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13 호 7월15일

평양 로동신문사발행 1950

전세계근로자들은 단결하라!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제13호 (59)

1950년7월15일

내 용

남반부의 로동당 전체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호소한 박헌영 동지의 방송 연설

친애하는 당원 동지들!

친애하는 로동자들! 농민들! 일체 애국적 인민들!

친애하는 남녀 빨찌산들!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나는 남반부 우리 당 전체 당원들에게, 남반부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조선 인민의 원쑤인 리승만 매국 역도들은 마침내 동족 상쟁의 내란을 폭발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영용한 인민군은 조국과 인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단호하게 반격전에 일어섰습니다. 반격전이 개시된지 불과 수일에 용감한 인민군은 벌써 三八선 이남의 광범한 지역을 원쑤들의 수중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정의의 총을 잡고 일어선 인민군은 일거에 개성, 연안, 백천, 옹진, 동두천, 춘천, 포천, 파주, 의정부, 문산, 수색, 주문진 등의 제도시를 해방하고 노도와 같은 진격으로 우리 공화국 수도 서울을 해방시키였습니다.

수도 해방은 실로 이번 전쟁의 승패를 사실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민군의 영웅적 진공에 호응하여 남반부 빨찌산들은 삼척, 울진을 해방하고 녕월, 봉화 등의 대부분을 해방하였습니다.

벌써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반부로부터 총퇴각을 시작하였으며 그의 침략 도구인 「유·엔 조선 위원단」도 동경으로 달아났습니다. 리승만 역도들은 서울을 버리고 지방으로 도망질 쳤습니다.

리승만 매국 역도들의 완전 멸망과 남반부 전체의 완전 해방은 오직 시간 문제뿐입니다.

친애하는 당원 동지들이여!

리승만 매국 역도들을 시급하게 완전 소탕하기 위하여 총궐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영용한 인민군의 진격과 승리에 호응하여 총궐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남반부의 당원들과 인민들은 지난 五년 간에 매국 역도들의 악독한 테로 학살을 박차고 조국의 통일과 독립 완성과 민주화를 위하여 실로 수많은 불요 불굴의 용감한 투쟁들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지난 五년 간의 남반부의 력사는 조국과 인민을 외래 제국주의에 팔아 먹으려는 리승만 매국 역적을 반대하는 애국적 인민들의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과 기록이며, 피의 기록이며, 민족적 영예로서 빛나는 기록이였습니다.

영웅적 十월 인민 항쟁을 비롯하여 三·二二 총파업, 二·七 구국 투쟁, 五·十 망국 단선 파탄 투쟁, 남북 인민들의 통일적 인민 정권 창설을 위한 八·二五 총선거 투쟁, 미군 철퇴를 관철하려던 一九四八년 十一월 총파업,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의 지지 및 실현을 위한 투쟁 등은 모두다 우리 조국 력사 상에 영원하고 귀중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영웅의 섬 제주도 인민들의 四·三 투쟁을 비롯하여 남반부 전역에 확대 발전된 용감한 빨찌산 투쟁은 조선 인민들의 영원한 민족적 영예와 더불어 대대 손손 고귀한 전설로서 전하여질 것입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조국과 인민을 팔아 먹는 리승만 역도들을 독사 같이 미워하는 남반부 동포들의 애국적 기개와 희생적 정신은 매국 역도들의 모든 시도와 술책들을 걸음마다 파탄시키였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총검의 비호 하에서 날로 강화되는 매국 역도들의 전대미문의 테로 학살도 남반부 형제 자매들의 애국적 투쟁의 불길을 결코 막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투적이며 애국적인 인민들 앞에 최후의 승리를 쟁취시킬 수 있는 거대한 전변의 시기가 도달한 것입니다.

지난 五년 동안 매국 노들의 야수적 테로 학살을 박차고 용감하게 싸운 남반부 형제 자매들의 모든 애국 투쟁

들은 총결 질 시기가 도달한 것입니다. 참으로 남반부 인민들도 조국의 주인이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인민들의 속에서 나왔으며 조국과 인민들의 우수한 아들 딸로써 조직되였으며 고상한 애국주의와 근대적 최신 장비로 무장된 인민군이 남반부 동포들의 편으로 뛰여 들어와서 남반부 인민들을 매국 노들의 폭압과 유린에서 구출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민군의 전쟁 목적은 아주 정당하며 명백합니다. 미제의 조종에 의거하여 남반부 인민들의 머리 위에 류혈적 팟쇼 경찰 제도와 악독한 식민지적 노예의 멍에를 내려 씌운 리승만 매국 역도들이 일으킨 동족 상쟁의 내란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려는 것입니다.

남반부 인민들을 원수들의 유린으로부터 구출하고 영예스러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기치 하에서 조국을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남반부 인민들에게도 북반부의 형제들과 똑 같은 자유와 공민권과 물질 문화 생활의 향상을 보장하여 주려는 것입니다.

조국과 인민에 무한히 충직한 인민 군대는 어떠한 희생이든지 어떠한 난관이든지 모두다 돌파하고 조국과 인민들이 자기들에게 부가한 이 신성하고 숭고한 과업을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리승만 매국 역도들을 소탕하고 조국과 인민들을 완전 해방하기 전에는 결코 정의의 총검을 거두지 아니 할 것입니다. 남반부 형제 자매들의 결애는 조국과 인민들의 리익을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인민군이 나타난 것입니다.

남반부의 친애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들은 당신들의 충직한 선렬들이 조국과 인민들을 위하여 동지들의 시체를 넘으면서 원쑤들의 고문대와 총탄 앞에 붉은 피를 뿌리며 조국의 대지 위에 통분하게 쓰러지던 그 장렬한 광경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가장 우수한 아들 딸들이며 가장 열렬한 애국 투사들인 김삼룡, 리주하 두 동무를 비롯하여 영용한 빨찌산의 지도자 리덕구, 김지회, 홍순석, 최승우, 리호제, 박치우 동무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이 고귀하고 용감한 애국 투사들의 통분하게 흘린 피를 어찌 헛되이 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빨찌산들이 활동하는 광범한 지역 내에서 수천 수백의 아름다운 촌락과 부락들을 태워 버리고 수천 수만의 무고한 인민들을 살륙 축출하던 그 악독하고 원통한 광경을 기억할 것입니다.

제주도가 三만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의 피바다로 화하고 전도의 절반 이상이 재데미가 되던 리승만 도당들의 야수 같은 전대 미문의 포행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수, 순천의 대학살과 전남, 경북, 경남의 전역을 걸친 대살륙, 대초토의 통분한 사태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모든 철골의 원한을 씻어 버릴 때는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조국과 정의의 군대이며 당신들의 가장 친한 벗들인 영용한 인민군이 바로 당신들의 이 원한을 씻어주며 선진 렬사들의 피의 넋가를 완전히 쟁취하기 위하여 리승만 역도들이 일으킨 동족 상쟁의 내란을 신속하게 종결시키기 위하여 당신들의 곁으로 진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엄숙한 시기에 전체 남반부 인민들이 어찌 총궐기하지 아니 할 것입니까? 무엇을 주저할 것입니까? 모두다 한사람같이 일어나서 이 전인민적 구국적 정의의 전쟁에 적극 참가하여야 되겠습니다.

한개의 도시, 한개의 농촌, 한개의 어촌, 한개의 공장, 기업소, 광산이라도 침묵하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한개의 정당 사회 단체도, 한개의 계층도, 한사람의 동포도 주저하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 전인민들이 궐기 단결된 통일적 애국적 전투 력량이 크면 클수록 역도들이 일으킨 이 동족 상쟁의 내란의 행정에서 오는 우리 인민들의 희생과 불행한 참화가 적게 될 것이며 역도들을 완전 소탕하고 내란을 종결시키는 시간은 최대한으로 단축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친애하는 남반부의 우리 당 전체 당원들과 전체 애국적 동포들에게 다음과 같은 과업들을 반드시 충직하게 시급히 또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호소합니다.

지난 五년 간에 조국의 통일과 민주와 독립 완성을 위하여 항상 인민들의 선두에 서서 인민들의 면전에서 용감하게 모범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역적들의 야수같은 폭압 하에서도 굴할줄 모르며 강인하게 훈련되고 단결된 우리 전체 당원 동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일층 정력적이며, 희생적이며, 창발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민들을 고무 격려하여 매국 역도들을 종국적으로 소탕하는 이 전쟁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적의 후방을 파괴 교란하는 투쟁을 희생적으로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동자에게 총파업을 선동 조직하고 농민들에게 태공 사업을 선동하여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대중적 폭동을 일으키며, 빨찌산 투쟁을 적극 강화하며, 전체 인민들을 동원 조직하며, 철도 운수의 파괴 사업과 통신 기관의 파괴 사업 등을 용감하게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결정적 패전으로 자기의 최후 운명에 다달은 리승만 매국 역도에게 미국인으로부터 공급되는 무기 군수품들이 우리 국토에 들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적의 후방에서 철도, 항만, 비행장, 교량, 련델들을 도처에서 파괴하는 투쟁을 용감히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군의 용감한 전투 모습과 그들의 전투 목적을 명확하게 인민들에게 적극 해설하며 인민 군대의 전투와 승리에 대한 최대의 전인민적 원조를 조직하며 주민들로 하여금 인민 군대를 적극 환영하도록 조직 선동하여야 하겠습니다.

남반부 인민들이 인민군과 자기들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이번 전쟁에 통일적 애국적 력량으로 적극 참가하는 것은 우리 당원들의 헌신적 활동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비겁자도 안일주의자 불성의자가 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근로 인민들의 영광스러운 선두 부대적 자격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당원들의 고상한 애국주의와 순결성과 적극성과 희생심을 고수 발휘하여야 하겠습니다.

적의 후방에서는 첫째도 폭동, 둘째도 폭동, 세째도 폭동입니다. 전력을 다하여 대중적, 정치적 폭동을 일으키여 인민 자신의 손으로 지방 주권들을 장악케 하며 적을 격멸 전진하는 인민군에 호응 궐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에 의하여 이미 해방된 곳에서는 인민 정권인 인민 위원회를 신속히 복구하고 전체 인민들을 인민 군대의 원조 사업에로 고무 격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용감한 빨찌산들은 더욱 용감하고 대담하고 명활한 공격전으로 넘어가서 후방에 남아 있는 적들을 소탕하며, 후방과 전선을 차단하며, 후방들을 혼란시키며, 혼란에 빠트려야 하겠습니다. 도처에 대중적 폭동을 일으키

명, [illegible] 파괴하며, 인민[illegible] 시급히 파괴하여야 하겠습니다.

용감한 기습전을 광범하게 조직하여 적의 참모부와 지휘부들을 습격하며, 철도, 운수 기관, 도로, 교량, 턴넬 통과 전신 전화 등을 파괴하며, 병력 이동과 군수 물자 수송을 기습 타격하며, 탄약 창고, 피복 창고를 습격 탈취하여야 하겠습니다. 반역자들을 체포 처단하며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격 전진하는 인민 군대에 백방의 원조를 주어야 되겠습니다.

로동자들은 시급히 총동맹 파업을 조직하여 생산, 교통, 운수, 통신 등을 총마비시키며, 도시에서는 대중적 정치적 폭동을 일으키며, 패주하는 적들의 파괴로부터 공장, 기업소, 직장, 광산, 철도 등을 수호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력량을 인민군의 적극 원조와 역도들의 신속 소탕을 위한 투쟁에 돌리여야 하겠습니다.

농민들은 적에게 한 알의 식량도 주지 말아야 하며, 도처에서 폭동을 일으키며, 지주들을 청소하며, 빨찌산들과 적극 합세하며, 적의 일체 동원 부역에 응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민군에게 백방의 원조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기업가, 상인, 수공업자들은 역도들에게 일체 재정적 부담에 태공하며 민족 경제를 미 제국주의자의 예속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는 인민군을 적극 원조 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문화인, 인테리들은 정치적 선전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인민 군대의 영용한 모습을 인민들에게 정확하게 해설하며, 역도들의 죄악을 무자비하게 폭로하며, 대중적 폭동 조직과 각종 후방 교란의 선동자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각종 괴뢰 기관의 복무자들은 역도들의 일체 명령에 태공하며 악질적 고급 관리들을 반대하고 전 직장을 고수하여 인민의 편으로 넘어 와야 하겠습니다. 또한 인민군을 적극 환영하며 열성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방군」 장병들은 총포를 거꾸로 잡고 인민군과 빨찌산의 편으로 넘어 와야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인민의 자식들이요, 결코 인민들의 원쑤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원쑤는 바로 미제의 주구인 리승

만 매국 역도들입니다. 이 때에 인민의 편으로 넘어 오지 않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전부대로 혹은 개인으로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인민군의 편으로 넘어 오면 인민군은 당신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국과 인민에 충실한 아들 딸들이 되여야 하겠습니다.

남반부의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결코 역도들이 일으킨 내란을 오래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신속하게 종결시켜 버리여야 하겠습니다. 전쟁이 신속하게 종결되면 될수록 인민들에게 유리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임무는 리승만 역도들을 완전 소탕시키는 데 있으며 또 하루라도 신속하게 소탕시키는 데 있습니다.

영용한 인민군은 원쑤들을 신속하게 반드시 소탕시킬 것은 추호만한 의심도 없습니다. 남반부 동포들은 인민군에 호응 원조함으로 일층 신속하게 완전 승리를 보장시키여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업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는 정당한 사업입니다. 우리의 사업은 정당하므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통일과 독립의 때는 왔습니다. 남반부 전체 인민들은 총궐기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공화국의 깃발 밑에서 조국 통일 위업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여야 하겠습니다.

통일된 조선 인민 만세!

영용한 인민군에 영예가 있으라!

조선 로동당 만세!

조선 인민의 단결된 애국적 민주 력량

진 반 수

조선 인민들의 단결된 력량은 오늘 조선 인민이 진행하고 있는 전인민적 정의의 전쟁에서 그 위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다。

미제의 지시로 리승만 역도들이 도발한 내전의 불길속에서 원쑤들을 소탕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자유와 민주를 쟁취하기 위한·조선 인민들의 정의의 전쟁은 승리적 진격을 계속하고 있다。

영웅적 조선 인민군은 리승만 괴뢰 정부 군대의 불의의 침공을 반격하고 적들을 三八선 이북지역에서 완전히 격퇴하였을 뿐만 아니라 三八선 이남의 광대한 지역을 해방하고 조국의 수도 서울시를 비롯하여 수원 등을 해방하였다。

리승만 도당의 군대는 승승 장구하는 인민 군대의 맹진격 앞에 궤멸되여 벌써 수습할 수 없는 패잔병의 집단으로 화하였으며 리승만을 비롯한, 매국 원흉들은 혼비 백산하여 그들의 더러운 여명을 끌고 이리저리 도주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이 도발한 이 내전의 불길이 그들의 예상과는 아주 달리 도리여 리승만 도당이 전면적 멸망에 직면하게 되자 발광적인 무장 간섭의 만행으로써 국면의 전환을 회책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트루맨은 六월 二十七일 미국의 해군과 공군에게 리승만 역도들을 무력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다음에는 륙군의 파견을 언명하였다。미국의 항공기들은 평화적 도시와 농촌들을 무차별 폭격하여 평화 주민들을 살륙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귀축적 만행으로써 자행되는 미제의 발광적 무장 간섭은 원쑤들을 소탕하기 위한 영용한 인민 군대들의 맹렬한 진격을 한걸음도 멈추지 못하며 이 거족적 정의의 전쟁에 총 궐기한 조선 인민들의 열화같은 투지를 추호도 굽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놈들은 영용한 우리 인민군 부대에게 결정적 타격을 받고 있다。

오늘 조선 인민의 정의의 전쟁에 있어서 확증되고 있는 우리 인민군의 영웅성과 위력은 무엇으로써 설명되는가? 그것은 조선 인민군이 단결된 조선 인민의

진정한 무장력이며, 전체 인민들과 불가분의 깊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군대이라는 사실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조선 인민군은 근로 인민들의 진정한 아들 딸들로써 조직되였으며, 전체 인민들의 정의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싸운다。그렇기 때문에 조국과 인민에게 대한 충성은 항상 인민 군대들을 고상한 애국주의 사상과 강철 같은 규률성으로써 무장케 하며, 전체 인민들은 또한 그 전력량을 기울여 한 사람같이 인민 군대의 전투에 모든 것을 바쳐서 협조한다。

북반부에서 인민들은 일층 앙양된 생산 투쟁으로써 전선의 수요에 민첩히 또 충분히 수응하기 위한 생산 운수 보급 사업을 열성적으로 진행하며, 청년들은 용약 인민 군대에 자원 참가함으로써 전선에 영예롭게 나아가고 있다。또 인민들은 원쑤들에 대한 적개심과 경각심을 제고하고 우리의 정의의 전쟁의 후방을 반석같이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동시에 남반부의 해방된 지구들의 인민들은 원쑤들을 처단하고 인민 위원회들을 부활시키고 토지 개혁 준비 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며, 인민 군대에 해방의 방조를 주기 위한 사업에 궐기하여 애국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남반부의 아직 해방되지 않은 지구들의 인민들은 광범하게 폭동에 궐기하고 있다。이미 대구와 광주 등을 비롯한 각지에서 인민 유격대들과 합세하여 인민 자신의 무장 투쟁으로써 인민 군대들의 진격에 적극 호응 협조하고 있다。그들은 리승만 역도들의 후방을 붕괴시키며, 패주하는 적들의 퇴로를 절단하며, 적군이 리용할 수 있는 건물, 교량, 운수, 통신 기관 등을 파괴하면서 인민 군대의 승리의 조건을 지여 주고 있다。

이렇듯 지금 남북 조선의 전체 인민들은 총 궐기하여 조선 민족의 영웅이며, 우리 인민의 수령인 김일성 장군의 주위에 강철같은 전투 부대로 총 집결되고 있다。

조선 인민들의 이 단결된 력량이야말로 오늘날 미제의 란포한 무장 간섭을 격퇴하고 리승만 역도들을 끝까지 추격 심멸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과 자유와 민주를 쟁취하고야 말 조선 인민들의 불요 불굴의 투지를 실현하는 기본 동력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조선 인민의 단결된 력량의 이러한 위력은 김일성 장군의 항일 빨찌산 투쟁을 비롯한 일제 통치 하에서의 조선 인민들의 줄기찬 민족 해방 투쟁의 전통과 八·一五 해방 후 五년간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자유와 민주를 위하여 불면 불휴로 계속된 남북 조선 인민들의 구국 투쟁의 전체 성과가 그 기초로서 전제되여 있는 것이다。

* * *

조선 인민들은 영웅적 쏘련 군대에 의하여 일제의

거반에서 해방된 후 악독한 일제 통치의 잔재를 숙청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적 조국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궐기하였다. 전국의 방방 곡곡에 인민의 창의로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인민 위원회들이 조직되였으며 인민들은 인민 위원회의 주위에 집결하여 민족적 과업들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우리 조국의 三八도 이남 지역에 진주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야망으로 인하여 조선 인민의 이 민주주의적 조국 창건의 위업은 난관과 장애에 봉착하게 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三八선 이남 지역에 진주한 후 자기의 군정을 선포하고 우리 조국에 대한 로골적인 식민지화 정책을 실시하며, 三八선을 고정화하며 조선을 량단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조선 인민들은 조국이 분렬된 조건 하에서 남북의 판이한 환경 하에서 조국의 통일 독립과 자유와 민주를 위하여 상이한 형태의 투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국의 북반부에 진주한 쏘련 군대는 백방으로 조선 인민들을 원조하여 조선 인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조국을 창건하며 민주화하는 사업을 적극 원조하였다.

북반부에서는 인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인민 위원회들이 조직되였고 이는 조선 인민들의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권 형태로 장성하였으며, 인민을 위한 완전한 민주주의적 자유가 보장되였다.

북반부 인민들은 인민 정권 하에서 제반 민주 개혁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제반 민주 개혁의 실시를 기초로 하고 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은 국가의 부강과 민주 발전을 위하여 또한 조국의 통일을 위한 물질적 토대로서의 인민 경제의 부흥 발전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 총 궐기하였다.

그리하여 량차의 인민 경제 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하였으며 一九四九—一九五〇년 인민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바 이 과정을 통하여 일제가 파괴하고 간 산업 시설들을 복구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신설 확장하였으며 산업에서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점차 퇴치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북반부의 경제 발전은 조국이 통일된 후 남반부의 파괴된 경제를 급속히 회복할 조건들을 창조 발전시켰다.

북반부의 공업 생산고는 一九四九년도에 있어서 一九四六년을 一〇〇으로 하여 三六七%로 장성되였다.

해방 후 북반부의 주요 산업 생산의 장성은 다음과 같다. 즉 一九四〇년을 一〇〇으로 하여 一九四九년의 각부문의 생산량은 전기 부문 二三六·七, 석탄 부문 三〇一·六, 광업에 있어서 흑색 광업이 六三六·七, 유색 광업이 三五三·七로 장성하였다. 금속 부문

은 四一七·八로 기계 공업은 一,五六七·二로 장성하였으며, 화학 공업은 三〇四·八로 건재 부문은 八〇一·一로 장성하였다. 경공업 부문은 三二一·八로 장성하였다.

이와 동시에 一九四九년 말까지에는 북반부에서의 화학 공업, 중공업 생산 부문의 복구 발전은 일제 시대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주로 전력, 석탄, 화학 공업, 금속 공업 등 제부문의 생산 시설들은 전국적인 수요에 응할 수 있는 규모로 복구 장성되였다.

북반부 산업 경제의 이러한 발전은 농촌 경리의 부단한 발전 및 농업 생산력의 향상과 병행되였다.

토지 개혁에 의한 반봉건적 농업 관계의 철저한 숙청과 관개 공사의 광범한 실시 및 영농 기술의 부단한 향상 등으로 농업 생산력은 급속히 장성하여 식량 부족 지대이던 북반부는 단시일에 식량의 여유 있는 지대로 전변되였다.

토지 개혁 후 북반부의 농민들은 一九四七년 한해에만도 三十만 정보의 경작 면적을 확장하였으며, 一九四九년에는 경지 면적이 해방 전 최고 수준이였던 一九三九년도에 비하여 四·五%나 증가되였다. 경지 면적의 확장과 아울러 농업 생산력 향상의 기준으로 되는 농산물의 반당 수확고는 부단히 증가되였다.

경지 면적의 확장과 반당 수확고의 상승은 당연한 결과로 북반부 농업 생산의 절대량을 증대시켰다. 一九四八년도에 벌써 미곡 잡곡의 수확은 一九四四년에 비하여 一一九·六%로 증가되였으며 이것은 일제 시대의 최고 수준인 一九三九년에 비하여서도 一一〇·三%에 해당하는 장성이다.

인민 경제의 부흥 발전과 아울러 북반부에서는 각 령역에 공한 우수한 민족 간부를 다량적으로 양성하였다. 인민들은 정권의 주인으로서 국가 생활을 관리하며, 생산을 조직 운영하는 도정에서 무수한 간부들을 배출케 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간부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배려와 대책들이 실시되였다. 그 결과 오늘 북반부는 통일 조국을 위한 유능한 인재들의 풍부한 원천을 가지고 있다.

북반부에서의 인민 경제의 부흥 발전에 따라서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도 또한 급속히 향상되였다. 민족 문화는 부흥 발전되고 있으며 인민들의 문화 수준은 날로 제고되고 있다. 북반부에서 문맹은 기본적으로 일소되였으며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게 되였다.

이와 동시에 북반부 인민들은 조국 보위를 위한 인민 군대의 창건과 장성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상한 애국주의 사상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철두 철미한 충성심으로써 무장되였으며 선진적 군사 과학과 근대식 무기로 장비된 우리 인민 군대의 창건은 북반부

인민들의 민주 건설의 가장 빛나는 성과의 하나인것이다.

이리하여 八·一五 이후 五년 간에 북반부 인민들은 위대한 쏘련의 방조 하에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자유와 민주를 위한 물질적 토대를 구축 발전시켰으며, 그 결과로 조선 인민들은 오늘 보는 바와 같이 확고 부동한 민주 기지를 북반부에 축성하는데 있어서 찬란한 성과를 쟁취하였다.

* * *

조국의 북반부에서 위대한 쏘련의 원조 하에 인민들의 민주 건설이 장성되고 있을 때에 조국의 남반부에서는 이와 판이한 정형 하에 인민들은 피의 항쟁으로써 미제의 침략 정책을 파탄시키며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살륙의 제일보에서부터 그의 파렴치한 침략 정책을 내세웠다.

미제는 남조선 진주 직후 「군정」을 선포하여 남반부 인민들에게 군사 독재를 실시하고 인민 위원회를 총검으로 해산시키고 말았다.

미군정 당국은 인민의 원쑤인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규합 조장하여 반인민적 세력을 인공적으로 육성하여 이들 반동 세력으로 하여금 민주 진영에 대한 박해를 감행케 하였으며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 단체들의 활동을 억압 탄압 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의 「남조선 군정청」을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소굴로 만들고 일제 시대의 경찰 헌병 제도를 부활시켜 악랄한 군사 경찰 기구를 조작하였다.

이러한 정형 하에서 미 군정 당국은 친일파 매국노들과 함께 민주 진영에 대한 로골적인 탄압 흉책을 진행시켰다. 이 탄압 흉책은 민주 진영의 사업을 정찰 테로로 비법적으로 간섭 억압하며 고의적으로 무장 충돌을 야기케 하며, 인민들을 살상함으로써 관경은 그러한 소동을 구실로 하여 민주 진영의 조직을 파괴하며, 간부들을 검거 투옥하며, 인민들이 향유하는 민주주의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를 말살하려는 집요한 의도에서 진행되였다.

一九四六년 五월 쏘미 공동 위원회의 사업을 고의적으로 파탄시킨 후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탄압 흉책을 로골적으로 추구하여 남반부 인민들의 단결된 력량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국제 정치 무대에서 침략적 반동 로선을 공공연하게 폭로하기 시작한 一九四六년 하반기에 들어 서면서부터 조선에서의 이러한 시도는 급격히 더욱 광포화하였다.

이러한 미 군정의 탄압에 항거하여 투쟁한 다수 인민들은 불법하게 체포 투옥 살상되였다. 이는 미군

정에 의하여 남조선 인민들에게 강행되는 탄압 박해가 공개적인 대규모 무장 진압의 국면에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인민들의 평화적 투쟁의 합법성이 란포하게 박탈 유린되는 것을 립증하였다.

인민들 앞에는 자기의 조직적 력량으로 미제의 무장 진압을 반격하고 자기의 진영과 간부를 수호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합법성을 탈환 방위하여야 할 긴급한 과업이 제기되였으니 인민들은 마침내 十월 인민 항쟁으로써 이 과업에 해답을 주었다.

그리하여 파업, 맹휴, 철시로부터 봉기, 소탕, 점령에 이르기까지 평화적 또는 무장적 모든 형태의 투쟁이 광범한 군중 속에서 진행되였으며 침략자와 매국노들에 의하여 조작된 군정 통치 기구는 각처에서 마비 분해되였다.

미 제국주의자와 매국노들은 남조선 전역을 진감시키는 인민 항쟁에 직면하여 전대 미문의 잔인 광포한 대량 학살의 무장 진압을 감행하여 나섰다. 그 결과 三백 수십명의 인민이 잔혹하게 학살되고 三천 六백 여명의 인민이 「행방 불명」이 되였으며 二천 六백 여명이 부상하였다. 그리고 四천 여명의 로동자가 해고되고 무려 二만 五천 여명이 불법적으로 체포 투옥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야만적 무력 진압에도 불구하고 十월 인민 항쟁은 미 제국주의자와 매국노들의 침략 반동 통치 체제를 근저로부터 진감시켰다.

미제와 친일파 매국 역도들을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전체 인민들의 단결된 력량이 급속히 장성하였으며 또 이러한 전인민적 단결의 핵심으로서의 로동자를 선두로한 근로 인민들의 선봉적 역할과 치렬한 투쟁력이 유감 없이 발휘되였다.

또 인민들은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 발전의 깃발을 고수하여 자기의 조직과 간부를 적의 무장 공격으로부터 수호하여 자기 력량을 끝까지 방어하며 나아가서 반동을 소탕하기 위하여서는 인민 자신이 무장하여야 할 필연성과 그 가능성에 대한 풍부 다양한 경험을 이 투쟁 속에서 쟁취하였으며 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남반부 민주 진영에 대한 미제와 친일 역도들의 반동 공세는 十월의 영용한 인민 항쟁으로써 통렬한 반격을 당하였다.

인민들은 十월 항쟁으로써 원쑤들의 탄압 흉책을 격쇄하고 더욱 견결한 단결을 쟁취하였으며, 더욱 그 투쟁 력량을 증대시켰다.

인민들의 이러한 승리는 남조선의 三대 민주 정당, 즉 공산당, 신민당, 인민당의 합당의 실현으로써 총화되였다. 十월 인민 항쟁의 고조된 인민 력량으로써 미제와 반동 진영의 방해를 박차고 남반부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정치 세력을 한개의 통일된 정당, 즉 남조선

로동당에로 집결시킨 三당 합당은 남반부 민주 력량의 장성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되였다.

十월 인민 항쟁으로써 남반부 민주 진영은 더욱 그 력량을 증가시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의 침략적 정책을 인민들의 안목 앞에 적라라하게 폭로하였으며 광범한 인민들이 남조선 로동당의 영향과 령도 하에 들어오고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이 확대되었으며 그 정치적 영향력이 급속히 강성하였다.

인민 력량의 이러한 장성에 당황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그들의 침략 야망을 추구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완전한 파쑈적 학살 제도를 수립하여 놓기 위한 흉책을 강행시켰다.

미제는 리승만 역도들로써 남조선에 자기의 침략 도구인 괴뢰 정부를 조작해 놓은 후 딸라와 무기의 원조로써 또는 미 군사 고문단의 지시로써 리승만 도당을 고무 추동하여 남조선에서 극악한 중세기적 테로 학살 제도를 실시하게 하였다.

장성하는 남반부 인민들의 민주 력량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무장한 군사 경찰 제도의 피비린내 나는 생지옥이 남조선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써 미국인들은 남조선에 대한 그들의 침략 정책을 계속하여 전체 인민이 반대하는 리승만 괴뢰 집단의 매국 정권을 유지시키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침략자와 매국노들의 의도와는 반대로 남반부 인민들의 단결을 더욱 공고하게 하고 그 투지를 더욱 앙양시켰으며 그 투쟁을 더욱 첨예하게 하였다.

남반부 인민들은 원쑤들의 무장 진압 앞에서 굴한 것이 아니라, 야만적 무장 탄압 앞에서 자기의 투쟁을 견지하고 자기의 진영을 수호하고 자기의 력량을 련마하는 길로, 즉 인민 자신이 무장하는 길로 진출함으로써 원쑤들의 무장 진압 공세에 강력한 반격을 가하였다. 인민들은 무장 인민 유격 투쟁의 길에 들어섰다.

一九四八년 四월 三일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 매국 역도들의 남조선 망국 단선을 반대하여서 궐기한 제주도 인민들의 영웅적 무장 투쟁은 남반부 인민 유격 투쟁의 새 기원을 짓는 신호로 되였다.

제주도 인민들은 무장 봉기로써 제주도 지방에서 五·十 망국 단선을 완전히 파탄시켰으며, 나아가서는 원쑤들에 대한 인민들의 투쟁을 계속적인 무장 투쟁의 높은 계단으로 추동시켰다. 그리하여 제주도 一로변一을 띠놓고 나서 리승만 괴뢰 군경의 거대한 군사력을 한손에 말고 영웅적 항쟁을 계속하여 괴뢰 군경을 계속적으로 격파함으로써 인민들의 위력과 기개를 천하에 떨쳤다.

제주도 인민의 무장 투쟁은 남반부 전체 지역의 인민들에게 교훈과 영향을 주었으니 그 뒤를 이여 남반부

의 모든 지역에서 인민들의 무장 투쟁이 계속 일어나게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세는 드디여 一九四八년 十월 려수 순천 지구의 소위 「국방군」 폭동 사건을 계기로 하여 남조선 천지를 진감시키는 인민들의 영웅적 빨찌산 투쟁의 새 국면을 초래하였다.

원쑤들의 탄압이 극악한 학살 제도로써 실시되며 인민의 정치적 자유가 최후의 일편까지도 박탈 유린되고 민주주의적 권리가 전연 말살된 남반부의 그러한 조건과 환경 하에서는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결국 테로에는 테로로, 무장에는 무장으로 싸우는 그러한 투쟁 계단으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남반부 인민들은 남조선 척수 산맥의 봉오리마다에 인민 공화국의 깃발을 세우고 인민 무장 부대의 본거를 구축하여 영웅 과감한 인민 유격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들의 더욱 높아 가는 성원을 받으며 인민들 속에 더욱 깊게 뿌리를 박으면서 그 정치적 군사적 력량을 증대시켰다.

빨찌산들은 一九四九년 겨울에는 리승만 도당이 미제의 무기와 미제의 군사 지도 하에 六만의 대군으로 조직한 소위 「동기 공세」를 일패도지케 하였으며 一九五〇년 봄에는 더욱 장성한 력량으로 원쑤들에 대한 치렬한 공세를 전개하고 광범한 농민들의 봉기와 협동하여 [illegible] 전감시켰다.

남반부 인민들은 무기를 들고 일어섬으로써 미제의 침략을 결단코 용허치 않을 조선 인민들의 백절 불굴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며 이 투쟁을 통하여 영웅성과 헌신성을 현시함으로써 승리에의 전망을 열어 놓은 것이다.

* * *

이와 같이 三八선으로 조국이 량단된 조건 하에서 남북 반부의 인민들은 각기 판이한 조건 하에서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진행하였다.

북반부에서는 위대한 쏘련의 방조 하에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각 부면에 공고한 인민들의 민주 건설이 급속히 장성하였으며, 이 민주 건설은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의 물질적 기초로 되였다.

남반부에서는 미 제국주의자의 파렴치한 침략 정책과 리승만을 수괴로 한 친일파 매국 역도들의 학살 탄압 제도 하에서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피의 항쟁이 계속되여 그것은 마침내 영웅적 남반부 빨찌산 투쟁으로 발전 장성하였다.

남반부 인민들은 북반부 민주 건설의 장성과 공고화에 항상 고무 격려되면서, 자기의 투쟁과 승리의 전망에 대한 지표를 가지게 되였다.

남북 반부 인민들의 이와 같은 투쟁을 기초로 하면서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자유와 민주를 위한 조선 인민

물의 투쟁은 두방향에 계속되였다。

一九四五년 十二월의 모쓰크바 三국 외상 회의의 조선 문제에 관한 결정과 이 결정에 근거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소집된 쏘 미 공동 위원회의 사업을 지지한 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남 북 조선을 통한 전체 인민들이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광범하게 궐기한 투쟁의 최초의 거대한 물결을 이루었다。

제二차 쏘 미 공동 위원회가 미제의 흉책으로 말미암아 파탄된 후 우리 조국에는 새로운 위기가 조성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의 량군 동시 철거에 관한 쏘련의 제의를 거부하고 조선 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상정시켰으며 남조선 단독 선거를 폭력적으로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러한 정형은 미제의 남조선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쏘련이 제안한 량군 동시 철퇴의 실현을 요구하는 기치 하에 중간파와 량심적 우익까지도 포함한 전체 인민들의 단결과 궐기를 촉성하였다。 그 결과 一九四八년 四월 十九일 평양에서 남 북 조선 제정당 사회 단체 대표자 련석 회의가 소집되고 미제가 시도하는 五·十망국 단선에 대한 거족적인 항쟁 방침이 결정되였다。

이 회의의 결과 조선 인민들은 각계 각층을 망라한 거족적인 단결로써 궐기하고 미제와 그 주구 리승만 도당이 총검으로 강제하는 五·十 망국 단선을 반대하여 치렬한 투쟁을 광범하게 조직 전개하였다。

五·十 망국 단선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전체 조선 인민들의 단결된 력량은 거대한 위력을 발휘하였으며, 미제와 리승만 도당의 「선거」 연극을 부셔 파탄시켰다。

미제와 리승만 도당의 공모로써 五·十 망국 단선의 결과 남조선 괴뢰 정부가 조작된 정형 하에서 조선 인민들 앞에는 괴뢰 정부를 타도하고 남 북 통일 선거를 실시하며 진정한 통일적인 인민 주권을 창설하여야 할 임무가 새로 제기되였다。

인민들은 一九四八년 八월 二十五일 력사적인 남 북 통일 선거로써 이 과업을 실천하였다。

조선의 전체 인민들은 이 력사적 선거 투쟁에서 그 단결된 위력을 내외에 시위하였으며 전체 인민의 총의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창건하고 조선 인민의 수령 김일성 장군을 수상으로 하는 공화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때부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조선 인민들의 유일한 정부로, 진정한 인민의 주권으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조선 인민들의 단결된 력량과 의지를 대표하였다。

조선 최고 인민 회의는 쏘련과 미국에 대하여 조선으로부터 군대를 동시에 철퇴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에 응하여 쏘련 정부는 一九四八년 말까지에 북조선에서 그의 군대를 완전히 철퇴하였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철퇴 요청에 응치 않을뿐만 아니라 남조선의 리승만 괴뢰 정부의 학살 팟쇼 제도를 엄호 조장함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자기들의 침략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남반부에서는 산업 경제의 파탄이 날로 격심화하고 인민의 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말았다。 미제의 략탈과 착취, 리승만 도당의 강탈은 날로 광포화하고 인민들에 대한 학살 박해는 남조선을 전대 미문의 생지옥으로 전변시켰다。

남조선에서의 미 제국주의자와 리승만 역도들의 예속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은 의연히 三八선으로 량단된 채로 남았다。

조국 통일에 대한 전인민적 요망은 드디여 七十一개 민주주의적 제정당 사회 단체들을 망라하는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결성케 하였으며 조국 전선은 그 결성 대회에서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을 전체 인민들 앞에 선포하였다。

전체 인민들은 조국 전선의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을 절대 지지하였으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지시 하에 리승만 도당은 평화적 조국 통일을 찬성 지지하는 남반부 인민들에게 가혹한 박해를 가하며 백방으로 그를 반대 방해하였다。

그것은 만일 통일적 총선거가 실시된다면 인민들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고 력사의 쓰레기통으로 쓸어 넣고 말 것이 분명하였던 까닭이다。

전체 조선 인민들은 평화적 조국 통일의 기치 하에 그 어느 때보다도 철석같이 단결하여 평화적 조국 통일을 방해하는 리승만 역도들을 소탕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궐기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들 사이에 광범하게 고조된 평화적 조국 통일 투쟁을 진압하고 조선의 분렬을 고정화하며, 남반부를 저들의 영구한 식민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그 주구 리승만 도당으로 하여금 로골적인 내란 도발 정책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리승만 도당은 공개적으로 「북벌」을 호언하고 남반부에서 조국 통일을 요구하는 인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며, 三八 연선에서 야만적 도발 행위를 거듭함으로써 미제의 내란 도발 명령에 복종하였다。

그 결과 조국 전선의 평화적 통일 방책이 선포된 이후에 남반부에서 리승만 도당에게 학살된 인민의 수효는 근 十만에 달하였으며 수십만의 인민들이 검거 투옥되였다。

그러나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이러한 발악은 조선 인민들의 평화적 조국 통일에 대한 거족적인 갈망을 조해하지 못하였으며 조국 전선의 대렬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 인민들의 력량의

장생을 조지하지 못하였다。

조국 전선은 一九五〇년 六월 전체 인민들의 요청에 기초하여 또다시 평화적 조국 통일 추진제의를 호소하였으며 뒤이여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의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이 제의되였다。

조선 인민의 평화적 조국 통일에 대한 불요불굴의 의지가 이와 같이 표현되고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 력량이 이와 같이 장성된 사실은 리승만 역도들을 최후적으로 인민에게서 고립시키며 미제의 침략 정책을 종국적으로 파탄시키는 것을 의미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마침내 리승만 도당에게 명령하여 동족 상쟁의 내전을 방화케 함으로써 인민들의 평화적 조국 통일 달성을 조지하고 자기의 침략 정책을 더욱 흉포하게 추구하려는 시도에 착수하였다。

어리하여 一九五〇년 六월 二十五일 리승만 괴뢰 정부의 「국방군」은 三八선 전역에 걸쳐 이북 지역에 대한 전면적 침공을 개시하고 조선에 동족 상잔의 내전의 불을 지른 것이다。

* * *

전체 조선 인민의 갈망과 열의를 반영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의 평화적 조국 통일 추진 제의가 전체 인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서 조국과 인민의 흉악 무도한 원쑤들은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쟁의 내전 도발로써 이에 대답하고 나섰다。 미제와 그 주구 리승만 도당은 조선에 내전의 불을 지름으로써 조선 인민의 거족적 지망인 평화적 조국 통일 사업을 파탄시키고 나아가서는 그 동족 살륙 정책을 통하여 남반부의 반인민적 매국 팟쇼 통치 제도를 공화국 북반부에까지 연장시키려고 시도하였다。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은 조선 인민이 북반부에서 쟁취한 민주 성과들을 유린 말살하고 인민이 향유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여 우리 조국 전체를 미제의 식민지로 전변시킬 것을 야망한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우리 인민군에게 적의 침공을 결정적으로 반격하고 적의 무장력을 완전히 소탕할 것을 명령하였다。 동족 상잔의 내전을 도발한 리승만 역도들을 분쇄 소탕하고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자유와 민주를 쟁취하기 위하여 조선 인민의 정의의 무력은 마침내 불을 뿜기 시작하였으며、전인민적 정의의 전쟁은 개시되였다。

전쟁의 국면은 최초부터 조선 인민군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였으며、개전 후 불과 수일에 우리의 영용 무쌍한 인민군에 의하여 리승만 도당의 무장력은 패잔병의 오합지중으로 변하여 지방으로 도주하

기 시작하였다。 조선 인민들은 패주하는 원쑤들을 추격섬멸하고 조국의 통일을 급속히 쟁취할 광명한 전망을 가지게 되였다。

그러나 이 광명한 순간에 조선 인민의 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강도적 침략주의를 적라라하게 폭로하면서 로골적인 무장 간섭으로써 조선 인민이 쟁취하는 이 승리를 유린 말살하며 조선을 정복하려는 광포한 무력 침공을 개시하였다。

미제는 인류의 정의와 세계의 평화에 대한 흉악 무도한 범죄자로 나섰으며、조선 인민의 자주권에 대한 불공대천의 원쑤로써 나타난 것이다。

조선 인민은 오늘날 자기 조국의 운명을 자기의 손으로 결정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들은 그 고귀한 피와 정의의 불로써 자기 조국의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 총궐기하고 있는 것이다。 미제의 여하한 폭력도 간계도 조선 인민의 이 불굴의 의사를 굴복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조선 인민들은 과거 五년 간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단결되였으며、단련된 력량을 가지고 있다。

영웅적 인민 군대들은 적들을 소탕하면서 승리의 진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군사적 승리와 병행하여서 진행되는 인민들의 제반 민주 개혁들은 심각한 력사적 사회적 변혁을 일으키면서 이 전쟁의 전 인민적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에는 오직 승리와 전진이 있을뿐이다。 어떠한 무력도 이 도도한 력사의 거류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 전체 조선 인민들은 우리 민족의 영웅이며 우리 인민의 수령인 김일성 장군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고 있으며、우리의 전인민적 정의의 전쟁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고야 말 불발의 의지와 신념으로써 통일되고 있다。 여하한 폭력도 자기 조국의 독립과 민주를 위하여 이와 같이 단결된 인민들의 위업을 좌절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의 정의의 전쟁은 전세계 수억만 평화 애호 인민들의 뜨거운 동정과 성원을 받고 있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강도적 무장 간섭은 유·엔 헌장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세계 평화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 행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평화를 고수하며、전쟁 도발자들을 증오하는 전세계의 수억만의 순진한 남녀들은 조선에 대한 미제의 무장 간섭을 결단코 방관시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인민의 민주주의적 진보를 위한 전체 인류의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한 부분이다。

위대한 쏘련의 무력으로 반세기에 궁한 일제 통치로부터 해방된 조선 인민이 과거 五년간 쟁취한 제반 민

주 개혁의 성과들과 이에 기초한 조선 인민의 진정한 주권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극동에서의 민주주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이다. 조선의 민주 력량은 세계 민주 진영 내에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은 세계 민주 진영의 불가분의 유기적 일환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민주 력량을 말살하려는 미제의 무력 침공은 세계 민주 진영에 대한 용허할 수 없는 도전이며, 위협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조선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질식시키려고 피비린내 나는 무장 침공을 감행하고 있는 월가의 침략자들은 인류의 정의와 행복에 대한 범죄적 침해자이며, 평화 애호 인민들의 공통의 원쑤이다.

오늘날 평화와 민주를 지향하여 전진하는 온 세계의 모든 인민들 앞에서 진보의 길을 가로 막고 궁핍과 기한과 살륙과 공포의 원흉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이라는 사실을 누가 모를 것이냐!

조선 인민에게 대한 미제의 강도적 무장 간섭을 규탄하는 전인류의 우렁찬 항의의 함성이 오늘 지구를 흔들고 있으며 대양과 대륙을 건너서 동에서 서에서 수억만 인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고무가 조선 인민들에게 쇄도하고 있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

모쓰크바에서, 파리에서, 와르샤와에서, 뉴욕에서, 북경에서, 동경에서, 지구의 이르는 곳마다 거대한 군중 대회들이 소집되고 인민들은 한결같이 「조선으로부터 미제는 피묻은 손을 떼라」고 절규하며, 조선 인민들의 승리를 지원하는 격려를 보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조선 인민들의 정의의 전쟁에 대한 미제의 무장 간섭의 광포화는 전세계 민주 진영의 격분을 환기하고 있으며, 세계의 수억만 인민들을 횡포한 침략자를 규탄하는 투쟁에 궐기시키고 있다. 조선 인민에 대한 전세계 민주 진영의 지지와 성원은 더욱 그 위력을 증대시키며 조선 인민들을 승리에로 고무 격동시키고 있다.

조선 인민들은 자기의 전력사를 통하여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 강력한 력량으로써 공화국의 기치 하에 김일성 장군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여 종국적 승리를 향하여 용감히 전진하고 있다.

조국의 통일 독립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영웅적 조선 인민군

박 영 성

새 전쟁 도발로써 생명의 연장을 획책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사수 하에 매국 역도 리승만 도배들이 도발한 동족 상쟁의 내란을 반대하여 남조선 「국방군」의 三八 이북 지역에 대한 불법적 침공을 제어하고 반격전에 총 궐기한 영용한 조선 인민 군대는 노도와 같이 적을 소탕하면서 남으로 남으로 맹렬한 진격을 계속하고 있다.

조선 인민 군대는 그 력사가 아직 짧으며 전투 경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용감성과 대담성 및 조국과 인민에 대한 고상한 희생성을 유감 없이 발휘하면서 개전 벽두에 벌써 조선 인민이 결정적 승리를 쟁취할 전략적 기본 조건들을 지움으로써 전쟁의 대세를 확정하는 빛나는 위훈을 세웠다.

조선 인민 군대는 정의의 전쟁에 궐기한지 불과 三일만인 六월 二十八일에 벌써 리승만 반동 팟쇼 통치의 철장이던 우리 조국의 수도 서울을 해방시켰으며, 七월 四일에는 인천, 수원을 해방시켰다.

그리하여 인민들의 열광적 환호 속에 이미 수다한 도시 부락 촌락을 포함한 광범한 지역 인민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광명을 갖다 주었다.

각 전선에서의 전투를 통하여 조선 인민 군대는 적군의 대부대를 소탕 포로하였으며, 무수한 전리품들을 로획하였다.

리승만 반동 팟쇼 경찰 통치의 암흑 속에서 해방된 지역들에서는 지하로 들어갔던 우리 당을 비롯하여 각 사회 단체들이 새로운 정치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인민의 힘으로 인민 위원회들이 복구되고 있다.

이 지역 농민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의 토지 개혁 실시에 관한 정령을 높이 받들고 자기들의 세기적 숙망이던 토지 개혁의 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척시키고 있는 한편 인민들은 리승만 통치 하에서와 금번

지대에서, 파괴된 각종 시설의 복구 사업에 온갖 열성을 다하고 있다.

아직 해방되지 못한 지역들에서 빨찌산은 인민들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 적의 후방을 교란하며, 인민들을 조국의 해방을 위한 신성한 전쟁에 궐기시키는 영용한 투쟁을 치렬히 전개하여 혁혁한 전과를 확대하고 있다.

전체 조선 인민은 전선과 후방에서 혼연 일치 철통 같은 전시 태세로써 비상한 애국심과 조국에 대한 헌신성으로써 승리를 향하여 용감히 총 매진하고 있다.

조국과 인민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지성과 정의에 불붙는 청년들은 공장 광산에서 학원과 농촌 거리에서 또한 해방된 지역에서 총 궐기하여 전선 출동을 열렬히 지망하고 있으며, 이미 그중 많은 부분들이 의용병으로서의 영예로운 임무에 착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선 인민 군대의 영웅적 승리의 전진과 조선 인민들의 불요 불굴의 단결된 강력한 전투적 력량과 아울러 리승만 도당의 만회할 수 없는 패배의 면속에 당황 실색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마침내 우리 조국에 대한 직접적 무력 간섭의 만행을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륙.해.공군과 심지어 일제 고용병까지 매수 동원하여 평화적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을, 폭격하여 무고한 우리 인민의 남녀 로소를 대량 학살하며, 인민들의 고귀한 피와 땀의 로력적 성과를 무참히 파괴 회진시키는 야만적 폭거를 거듭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에 대한 무력 침범을 은폐하기 위하여 쏘련과 중국의 합법적 대표가 참가할 조건을 박탈하고 안전 보장 리사회를 조급히 소집케 하고 자기들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유·엔 헌장을 유린하여 조선 문제에 관한 비법적 결정을 채택케 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유·엔을 실제에 있어 자기들의 흉악한 침략 도구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무러한 법적 효력도 못가지는 이 「결정」을 빙자하여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유·엔의 명의에 의하여 조선에서 경찰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구실로써 갖은 악랄한 발광적 만행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안보 리사회는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의 대표의 참가 없이 열린 七월 七일 회의에서 재차 조선 문제를 토의하고 「유·엔 군」이라는 명목 하에 조선을 침범할 비법적인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리하여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자기들의 침략 계획을 엄폐하던 마지막 가면과 연막까지 걷어 치우고 아주 로골적으로 자기의 강탈자적 진면목을 백일 하에 드러내였다.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 조국을 예속화함으로써 아세아 침략의 교두보를 설정하며, 나아가서는 세계 제패의

야망을 달성하려는 목적의 추구를 위하여 인간의 량심과 리성의 최후 일편까지 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들은 침략 준비로부터 직·접적인 침략 행동에의 길로 서슴치 않고 넘어섰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의 모든 침략적 시도와 행동은 전세계 인민들의 노도와 같은 반대 항의에 봉착되여 산산히 부서져 가고 있으며, 폭풍처럼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렬한 평화 옹호 운동의 거류속에 휩쓸며 들어가고 있다.

조국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정의의 전쟁에 총 궐기한 영웅적 조선 인민 군대는 개전 벽두에 거둔 혁혁한 전과를 고수 공고화하면서 더욱 큰 승리를 향하여 영용무쌍한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

※ ※

조선 인민 군대가 금번 전쟁에 있어 영웅적 반격전을 개시한 이래 오늘까지에 쟁취한 혁혁한 승리는 결코 우연히 달성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인민 군대의 창건 및 그 발전의 력사와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며, 또한 인민 군대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제반 특성과 전쟁 목적의 정당성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맑쓰―엥겔쓰는 로동 계급에게 자본주의의 매장인으로서의 역할을 준비시키면서 자본주의 제도와 투쟁할 것을 가르쳤다. 그들은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투쟁강령을 작성하였는바 이의 한 부분으로서 근로 인민들이 무장해야 할 과업을 제시하였다.

레닌은 새로운 사회 계급이 주권을 장악한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군대, 새로운 규률, 새로운 군사 조직을 가져야 할 것을 가르쳤으며, 그리함으로써 만이 능히 근로 대중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쓰딸린은 「참으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로 무장해야 하며 둘째로 무장해야 하며 세째로 무장하고 또 무장하여야 한다」(「쏘련 공산당 (볼쉐위끼) 력사」 간략 독본 당 출판사판 一四一페지)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맑쓰―레닌주의는 진정한 자기 군대, 자기의 무장력이 없이는 강압자와 교살자를 타승할 수 없는 것이며,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자기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다.

강도 일제의 야만적 통치 기반 밑에서 조선 인민들은 일제 원쑤들을 물리칠 자기의 군대를 못 가진 것을 통탄하였었다.

영용한 반일 무장 투쟁의 조직자이며, 령도자인 김일성 장군은 일적부터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

적할 수 있게 되였다.

조선 인민 군대는 단지 총칼로 무장된 것만 아니라 고상한 애국심과 과학적 선진 사상에 의한 전체 군무자들의 고상한 정치적 상태에 기초하여 경상적인 전투 준비와 그 제고를 보장함으로써 강철의 부대로 육성 강화되였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의 군대를 막론하고 그가 만일 옳은 정치 사상적 무장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는 한 개의 야만적 무장의 소굴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력사 상에서 적지 않게 보고 있으니 히틀러 팟쇼 군대와 일제 사무라이 군대가 그러하였으며, 오늘 세계 제패의 망상에 발광하고 있는 미제의 군대와 동족 상쟁의 흡혈귀 리승만 도당의 군대가 바로 이런 계렬에 속하는 것들이다.

조선 인민 군대는 항상 군대의 목적과 성격에 대하여 옳바른 교양을 받아 왔으며, 조국에 대한 애국적 의무의 신성한 의식, 헌신적 용맹성, 과감성을 교양받아 왔으며, 대담성과 강철같은 규률로써 훈련받음으로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최후의 피 한방울까지 바쳐 싸울 확고한 의지와 원쑤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으로 무장되고 있다.

조선 인민 군대 전체 군무자들은 일상적인 부단한 정치 문화 교양을 통하여 선진적 과학 사상과 리론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회 발전에 관한 제반 법칙을 과학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조선 인민과 세계 민주 진영의 필연적 승리에 대한 견결한 확신에 불타고 있다.

전체 인민군 군무자들은 누구를 위하여 복무하며,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싸우며 또 싸워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원쑤와 벗을 똑 바로 구별할 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투에 있어서 무쌍한 영용성을 발휘하며, 어떠한 곤난과 원쑤 앞에서도 굴할 줄 모르는 불요 불굴의 전투적 기개로써 조국과 인민으로부터 맡은 바 자기들의 영광스러운 임무를 성스럽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민 군대는 자각적 규률의 강화로써 자기의 전투적 대렬을 일층 공고화하고 있다. 어떠한 군대이고 그가 군대인 이상 반드시 규률이 있는 동시에 그것은 군대의 생명력으로 되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률에는 자각적 규률과 억압과 강제로써 유지되는 맹목적 형식적 규률이 있는 것이다. 조선 인민 군대의 규률은 매개 군무자들의 조국과 인민에게 복무하는 자각성에 기초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군무자는 상급의 명령을 법으로 인정하며, 그 명령을 절대적이며 정확하게 소여의 기한 내에 수행하도록 전력을 다 하고 있다. 상관은 부하를 육친의 애정으로 사랑하며 그들의 곤난과 요구를 제때에 몸소 책임적으로 해결해 주며, 매개 군무자들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고 친절하게 교육하여 줌으로써 부하는 항

외세들에 근거하여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은 무장 투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 구체적 실천으로써 조선 인민의 빛나는 민족적 전통과 기개를 중외에 선시하였다.

위대한 쏘련의 영웅적 무력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해방된 후 조선 인민은 하루 바삐 인민 자체의 군대를 창건할 것을 열렬히 갈망하였던 것이다. 더우기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우리 조국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이 일층 로골화하고 있는 환경 하에서 인민 무력의 창건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군대 조직에 필요한 온갖 가능한 조건의 성숙에 따라 마침내 조선 인민군은 전체 인민의 무한한 감격과 환희 속에 력사적 탄생을 보았다.

즉 조선 인민 군대는 북조선에 진정한 인민 정권이 수립되였으며, 온갖 민주 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인민 경제의 계획적 운영의 승리를 물질적 담보로 하여 탄생하였다.

조선 인민 군대는 탄생 첫날부터 조국의 완전 자주 독립을 위하여 침략자들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방위하며, 북조선 인민들이 달성한 제반 민주 개혁의 성과를 고수하는 고상한 목적과 임무의 특성 및 우월성을 기초로 한 무진장한 내부적 력량과 아울러 전체 인민들의 절대한 지지와 사랑과 열성적 원호로써 단시일 내에 공화국의 튼튼한 성새로서, 강력한 무력적 담보로서 장성 강화되였다.

조선 인민 군대는 정치 사상적 무장, 군사 기술적 무장, 규률과 기타 모든 부면에 있어 완전히 정규화된 현대적 군대로서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었다.

군사 기술과 군사 기재의 경이적 발전에 따라 현대전은 그 군사 행동의 규모가 비상히 확대되였고 전투 행동은 고도로 기계화된 각 병종의 협동 동작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였다. 현대전의 이러한 특징은 군대의 최신식 무기로서의 장비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 인민 군대는 자기 대오에 각 병종 부대, 즉 보병, 포병, 땅크 부대, 항공 부대, 해군 함대, 공병, 통신병 및 기타 부대들을 구비하였으며, 이 각 병종 부대들은 긴밀하고 위력있는 최신 기술로 장비되였다. 조선 인민 군대는 가장 위력 있는 최신식 무기로 장비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군무자들은 각종 무기와 군사 기재의 구조 및 성능에 정통하여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난관에 있어서도 능히 그를 극복하고 자기의 전투적 위력을 남김 없이 발휘할 수 있게 되였다. 하사관은 전사들을 교육 훈련하는 사업에서 군관들의 가장 친근하고 충실한 보조자로 되고 있으며, 군관들은 부하를 교육 훈련하고 관리하여 어떠한 전투 환경에서도 부대를 지휘하며 각 병종과의 협동 동작을 조

상 상관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상하의 동지적 친목과 단결 위에 축성된 조선 인민 군대의 고상한 규률은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조선 인민 군대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서 자기의 발전 강화에 있어 위력한 물질적 력량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선 인민 군대의 조직적 성원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인민 군대는 로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해방된 자유스러운 근로 인민들의 자제들인 조국애에 열렬한 조선 인민의 아들 딸들로 조직되여 있다. 따라서 우리 인민 군대는 병사와 지휘관들 간에 계급적 대립이 없으며, 다만 유일한 전투적 대가족으로서 견해 지향 및 목적의 유일성으로써 형성되여 있다.

우리 인민 군대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실시된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 개혁의 혜택을 직접 자기 부모들과 자기 자신이 받고 있는 애국적 근로 청년들로 구성됨으로써 인민의 권리와 자유 행복을 보장하는 인민 정권을 적극 보위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는 것이다. 그리하여서 조선 인민 군대는 인민과의 혈연적 관계에 놓여 있으며, 인민들은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간주하며, 그에 대한 원조와 사랑을 백방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있어서도 그러하였거니와 금번 전쟁에 있어 인민들이 자기들의 산아인 인민 군대에게 무기, 피복, 식량 등 일체 기재와 물자를 제대에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며, 전선에 보내는 선물과 위문 편지가 그칠 줄 모르며, 후방에서의 군무자 가정 원호 사업의 광범한 실시 등 제사실은 이를 여실히 실증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영웅적 쏘련 군대의 강대한 력량의 원천에 대하여 쓰딸린은 「붉은 군대의 혁혁한 승리는 무엇보다 먼저 그가 진정한 인민의 군대이며,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군대이라는 것으로 설명된다」라고 말하였다.

인민에게서 나왔으며, 그에 뿌리 박고 그의 지지와 원조로써 자기의 력량을 강화하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싸우는 조선 인민 군대는 실로 무적한 군대인 것은 사리의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우리 인민 군대의 위력한 력량의 원천의 다른 하나는 그가 영웅적 김일성 장군의 반일 유격대의 고귀한 혁명 전통을 토대로 하여 김일성 장군의 직접 지도 밑에 창건되였으며, 그의 계승자라는 것이다. 인민 군대는 김일성 장군을 받들어 반일 혁명적 유격 투쟁에 일생을 바쳐 참가한 진정한 조선의 애국자 혁명가들을 골간으로 하였으며, 그의 백전 로련의 투쟁 경험을 토대로 하여 창건되였다. 김일성 장군 반일 유격대는 오늘의 조선 인민 군대의 전투적 골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인민 군대는 「……실지에 있어서는 장구한 혁명 전통과 투쟁 경험과 애국 정신으로 빛나는 력사적 군대」

(김일성)인 것이다.

우리 민족의 절세의 애국자이며 영명한 령도자 김일성 장군의 이름과 그의 영웅적 반일 유격 부대의 빛나는 생명과 피의 력사는 실로 인민 군대 군무자들을 고무 격려하는 상징이며, 그들을 항상 승리에로 인도하는 찬란한 향도성인 것이다.

오늘 조선 인민 군대가 미 제국주의 침략자를 반대하는 정의의 전쟁에서 빛나는 전과를 올리고 있음은 오직 그가 김일성 장군의 반일 유격 투쟁의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十여년 동안에 걸친 적과의 싸움에서 축적된 각종의 전투 경험이 풍부한 김일성 장군의 전우들을 군사 간부로 소유하고 있으며, 김일성 장군을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직접 받들고 있다는 사실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 인민 군대는 정의적 도덕 사상의 군대이라는 것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인민 군대는 타 인민에 대한 존경의 정신으로 일관되여 있으며, 인류의 항구한 평화와 공고한 안전의 정신으로 교양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민 군대는 국제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세계 평화 옹호 인민 간의 형제적 친선의 군대로서 타 민족을 존경하며, 그들의 자주와 독립을 존중하는 반면에 제국주의 침탈자들의 도발 행위에 대하여는 극도로 증오하며, 이를 추호도 용서하지 않는 정의의 군대인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조선 인민 군대의 제반 특성과 우월성은 자본주의 군대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전쟁에서 원쑤를 소탕하고 종국적 승리를 쟁취할 기본 조건의 중요 부분으로 되는 것이다.

맑쓰—레닌주의는 어떠한 군대를 물론하고 그는 매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구성의 일부분이며, 또 그를 산생하였으며 그를 사용하는 그 사회 제도의 무기임을 가르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군대와 병사들을 제국주의 국가 그 자체의 계급적 본성에 의하여 조직하며, 교양하며, 훈련하여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며 강제적으로 략탈 전쟁의 싸움터로 내 몬다. 자본주의 국가 군대는 민족적 및 종족적 증오의 정신으로 교양 받음으로써 도덕성이라고는 추호만치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쓰딸린은 「독일 강탈자들이 자기의 도덕적 쇠퇴에 있어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벌써 오래 전에 야수적 수준에 까지 저하되였다는 한개의 사태는 벌써 그들이 자기를 피할 수 없는 멸망의 길로 운명 지여 놓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바 이는 오늘 미 제국주의 군대를 위시한 세계 침탈 도당들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것이다.

오늘 미 제국주의 군대는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소수 독점 자본가의 리익을 위하여 그들의 략

압적 명령에 의하여 싸우는 가장 부패하고 비겁한 군대인 것이다。따라서 그는 피침략 국가 인민은 물론 전세계 인민과 지어 자기 나라 인민들에게서까지도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여 증오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평화와 진보를 지향하는 새 사회 제도의 수립과 그 승리를 위한 근로 인민들의 투쟁으로 쟁취되였거나 혹은 앞으로 쟁취될 새로운 국가와 그 군대는 필연적으로 승리하였으며, 또 앞으로도 승리하리라는 것을 력사적 경험은 실증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 군대는 그 모체인 자본주의 국가 자체의 본질에 의하여 결코 어떠한 견고한 지반을 가질 수 없으며, 그는 불피코 멸망하고 말며, 이에 따라 그 모체인 국가도 조만 간에 허물어질 운명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조선 인민 군대는 자본주의 군대와는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군대로서 승리에 대한 원칙적 현실적 조전들을 각 방면으로 구비하고 있다。

* * *

조선 인민 군대가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항거하여 지금 전개하고 있는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다。

우리 조국은 제二차 세계 대전이 반팟쇼 진영의 승리로 종결됨으로 말미암아 자주 독립 국가로 발전될 수 있는 조전을 국제적 공약에 의하여 보장 받았다。

그러나 二차 세계 대전 이후 더욱 격화되여 가는 경제 공황과 내부적 제난관과 모순의 첨예화와 세계 평화 옹호 민주 력량의 급속한 장성 발전 및 자기 본국과 식민지 예속 국가 근로자들의 해방 운동의 앙양에 황겁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일련의 세계 제패 야망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이 국제적 보장은 파탄되고 말았다。

그러나 다시는 식민지 망국 노예의 쓰라린 과거를 되풀이 하기를 원치 않는 조선 인민은 갖은 방법을 다하여 조국 통일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 투쟁하였던 것이다。

마지막 시기에 조선 인민의 애국적 민수 력량의 집결체인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은 재차 평화적 조국 통일 추진을 제의하였으며, 원쑤들로 말미암아 이 역시 파탄되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조국의 독립과 민주 발전에 대한 불요불굴의 의지를 표현하며, 민주주의 제정당 사회 단체들의 지망에 근거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와 남조선 「국회」를 단일한 전조선 립법 기관으로 련합하는 방법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데 대한 판대한 제의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 조선 인민의 간악한 불공 대천의 원쑤 리승만 도당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체 조선 인민이 일일 천추로 갈망하는 조국의 평화

적 통일을 유린하고 끝끝내 동족 상쟁의 류혈적 내란 도발로써 대답하였다。

「이것은 세계 제패를 야망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을 자기들의 영구한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인민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김일성)이다。

「전쟁은 다른 수단들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온갖 전쟁은 그 전쟁을 발생시킨 그 정치적 제도와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여 있는 것이다。어느 강국 그 강국내의 어떤 계급이 전쟁 전 장기간에 걸쳐 실시한 바로 그러한 정책은 이 계급에 의하여 행동의 형식만을 바꾸어 가지고 전시에 있어서도 계속하는 것이다」(레닌 전집 로문판 제三十권 三三三폐지)라고 레닌은 지적하였는바 이로써 전쟁은 폭력적 수단을 써서 하는 정치의 연장이라는 것, 전쟁은 정치 제도와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여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전쟁의 사회적 성격, 그의 진정한 의미는 전쟁이 어떠한 정책의 연장으로써 발생하였으며, 또 어떠한 계급이 어떠한 목적에서 진행하느냐 하는 것으로써 규정된다。

「어떤 계급이 전쟁을 하며 또 전쟁을 계속하느냐 하는 문제는 극히 중요한 문제이다」(레닌 전집 로문판 제二十四권 五四三폐지)

쓰딸린은 전쟁의 두가지 종류, 즉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가) 정의의 전쟁。이것은 침략 전쟁이 아니고 해방 전쟁이여서 외국으로부터의 공격이나 예속화하려는 음모로부터 인민을 방위하며, 혹은 자본주의의 노예 제도로부터 인민을 해방시키며, 또 혹은 제국주의의 억압으로부터 식민지나 예속국을 해방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전쟁이다。

(나) 부정의의 전쟁。이것은 침략 전쟁이여서 타국과 타민족을 정복하고 노예화하려는 전쟁이다。」(「쏘련 공산당(볼쉐위끼) 력사 간략 독본」 당출판사판 二九○폐지)

전쟁의 성격 규정에 관한 이 탁월한 맑쓰—레닌주의적 과학적 방법이 명백히 가르치는 바와 같이 급변의 전쟁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의의 전쟁이며 적에 있어서는 저주할 부정의의 전쟁임이 명백한 것이다。

유구한 인류 력사 상에는 허다한 정의의 전쟁이 기록되여 있다。

一천 三백여년 전 고구려시에 봉전 대제국의 폭군 수양제와 그의 수백만 대군의 침략을 물리치고 인민들의 평화와 자유를 고수한 우리 민족의 명장 을지문덕 장군의 위훈을 비롯하여 十一—十一세기에 있어 동방 최대 최강의 거란(契丹—遼)의 전후 三차에 걸친 침입을 반대하여 고려 인민들이 조국의 독립을 고수한 영웅적 투쟁, 강도 일본의 침략에 항거하여 영웅히 투쟁한

엽결. 외관에서의 리순신 장군의 공적 등은 우리 선조들이 진행한 정의의 전쟁으로서 모두 다 외래 침략자를 구축하고 민족의 영예와 자유를 고수한 전사에 빛나는 승리인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의 一八四〇년—一八四二년의 영국에 대한 전쟁、一八一二년 나포레온의 침입을 반대한 로씨야 인민의 전쟁、一七九二년에 불란서 인민들이 군주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간섭자를 반대한 전쟁、一八五九년 오지리의 기반에서 해방하기 위한 이태리 인민들의 투쟁 및 쏘련에서의 공민 전쟁과 위대한 조국 전쟁은 모두 정의의 전쟁이였던 것이다。

력사는 침략자들과 억압자들이 제아무리 야수적으로 발광한다 하여도 인민은 죽지 않으며、정의의 전쟁에 궐기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하는 인민들은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그 군대가 진행하고 있는 전쟁이 정의의 전쟁이라고 하여 다만 그것만으로 전쟁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쏘련의 군사 과학은 전쟁 승리의 제조건으로서 림시적으로 작용하는 것과 장기적이며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들었는바 특히 후자를 중요시하고 있다。

전쟁의 진행과 결과를 규정하는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에 대해서 쏘련은 후방의 공고성、군대의 도덕적 정신、사단의 질과 수효、군대의 무장、장관의 조직 능력 등과 결부시킨다。

쏘련에 의하여 제기된 현실적 의의를 가지는 이 리론은 조선 인민들이 전쟁의 전망과 자기들의 승리에 대한 필연성을 리해하는 데 대한 열쇠로 되는 것이다。 조선 인민들은 조선 인민 군대가 가지고 있는 제반 특성과 우월성 및 전쟁 목적의 정당성에서 출발하는 장기적이며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서의 승리에 대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승리의 위력한 요소이며 필연적 전제로 되는 필승의 확신과 자기 력량에 대한 신념을 견지하고 있다。

쏘련적 군사 과학의 규정에 의하면 후방의 공고성이라는 개념에는 전체 국가의 생활과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것이 들어간다。 즉 사회 제도、정치、경제、생산 기구、근로자들의 조직성、이데올로기、과학、예술、인민의 도덕 상태 등등이다。 현대적 전쟁은 많은 인적 물적 공급을 후방에 요구한다。 전쟁의 운명은 이 공급 제때에 만족시키는 여부로써 크게 좌우된다。

인민적 민주주의 제도에 기초한 우리 공화국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공고하며、전선과 후방은 분가분리의 혈연적 관계로 집결되여 있으며、우리의 인민 군대는 자기의 국토 내에서 전투하고 있다。

군대의 도덕적 요인、군대의 정신에 대하여 쏘련은 적에 대한 승리를 규정하는 력량의 중요 원칙인 엄

민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관찰할 것을 특히 강조하였는바 그것은「전쟁의 정치적 목적의 특성으로、따라서 사회 제도의 특성으로、그 국가의 국내 및 대외 정책의 특성으로、광범한 인민 대중의 의식、문화 수준으로、지배적인 이데올로기 및 기타로써 설명한다。」(고•워로실로브)

즉 다시 말하면 군대의 도덕적 정신은 그 나라가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는가로써 규정되며 군대의 전사와 지휘관들의 의식 정도、진행되는 전쟁의 정당성과 침략자를 물리치기 위한 적과의 전쟁 수행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 정도、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과 자기 임무의 고귀성과 그의 실현을 위한 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승리에 대한 신념의 정도 등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라고 쏘련은 가르친다。

자기 조국의 식민지화와 인민의 노예화를 결사 반대하여 총궐기한 조선 인민과 조선 인민 군대의 전쟁 목적은 지극히 숭고하며、조선 인민과 조국의 생사 존망에 직접 관련되는 것이다。 조선 인민과 인민 군대의 견결한 도덕적 정신의 담보는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또 하나 다른 요인은 사단의 수효와 질、군대의 무기、군대 지휘관의 조직자적 능력 등이 그것이다。 이 요인은 전쟁의 전략적 계획의 범위와 규모 실행을 제약하는 것이나 그것은 또한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및 도덕적—정치적 상태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승리의 요인에 관한 명제와 아울러 그에 비하여 적지 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후비군에 관한 명제가 제기된다。 전쟁의 행정을 통하여 전선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후비군이 정확 신속히 보장되여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휘 간부의 양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미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발전될 기본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

* * *

조선 인민 군대는 조국 해방을 위한 성전에서 적을 격멸 소탕하고 빛나는 승리를 쟁취할 온갖 조건들과 가능성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전쟁 과정을 통하여 그것이 자기 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현실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승리에 대한 모든 조건과 가능성은 기계적으로 저절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민의 긴장된 로동과 조직적 지도로써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승리는 오직 모든 주객관적 조건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총동원하며、치열한 투쟁과 갖은 곤난과 희생을

통하여서 만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영용한 인민 군대는 조국의 통일 독립과 인민의 자유를 위한 전쟁에서 세계 전사 위에 찬란히 빛날 가지가지의 승리의 기록을 지으면서 계속 적을 추격하여 승승장구하고 있다.

전후에 있어서의 승리는 우리의 인민 군대가 튼튼히 보장하고 있다.

전체 조선 인민들은 인민 군대의 승리를 확신하며 전선의 요구를 제때에 충분히 만족시키며, 적의 우리 후방에 대한 파괴 교란을 방지하며, 온갖 부면에서 공고한 후방의 견지를 위하여 총 력량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전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은 조선 인민들과의 단결을 더욱 튼튼히 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 군대의 승리를 열렬히 성원하고 있다.

세계 평화와 안전의 성채인 위력한 쏘련 인민을 위시하여 제인민 민주주의 국가는 물론 여러 약소 국가 인민들과 미국 영국 자체 내의 인민들까지 조선 인민의 편에 서서 조선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며, 그의 력사적 위업의 성취를 충정으로 기대 성원하고 있다.

조선 인민의 투쟁은 정당한 까닭에 그의 력량은 강대하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오늘 조선에 있어서의 문제는 한낱 조선 자체의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현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제 문제로 되고 있다.

세계는 조선 인민 군대와 전체 인민들의 투쟁을 주시하고 있다.

조선 인민은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하루 속히 우리 강토에서 물리침으로써 조국의 영예와 자유를 고수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와 인류의 진보에 크게 기여하여야 할 자기들의 력사적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 인민은 미 제국주의자들을 그들이 길러 놓은 전쟁의 불길 속에 반드시 매장하고야 말 것이다.

조국의 통일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영웅적 조선 인민군의 항공대는 수량 상으로 우세한 미군 항공기를 다수 격추하였으며 청소한 우리 함대는 적의 순양함과 군함을 격침시켜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

조선 인민 군대 부대들은 적의 전략 상 중요 방어선인 대전을 비롯하여 전주, 광주, 목포 등 중요 도시들을 해방시켰으며 미군 제二十四 사단에 섬멸적 타격을 가하고 계속 맹렬한 추격전을 전개하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기치 높이 김일성 장군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된 조선 인민과 그의 무장력인 조선 인민 군대에게 승리의 영광이 있으라!

일체 력량을 전쟁에 복종시키는 사업에 있어서 로동당원들의 과업

렬 해

一九五〇년 六월 二十五일 새벽 리승만 괴뢰 정부의 군대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직접 조종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 기지인 공화국 북반부에 대하여 무력적으로 불의에 침공하였다.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리승만 매국 역도들을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정의의 해방적 전쟁이 개시되였다.

조국과 인민들의 우수한 아들 딸들로써 조직되였으며 고상한 애국주의와 근대적 최신 장비로 무장된 영용한 조선 인민군은 조국과 인민을 략탈자들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단호히 반격전에 넘어가서 三八 이남의 광범한 지역들과 인민들을 원쑤의 수중에서 해방하는 영예로운 사명을 용감 무쌍하게 수행하고 있다.

六월 二十六일 김일성 장군은 방송 연설에서 조국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분석하면서 조선 인민들에게 전시 대책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 장군은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전쟁의 목적과 그의 정당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면서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들에게는 거대한 위험이 닥쳐 왔다는 것을 경고하였다. 그 위험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생사에 관한 문제이며, 해방 이후 五년간 조선 인민들이 쟁취한 민주 성과의 운명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사수 하에 리승만 역도들이 일으킨 동족 상쟁의 내전에서 적들이 목적하는 것은 무력의 방법으로 조선 인민들에게서 정권을 빼앗으려 하며,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이 쟁취한 민주 개혁의 성과를 말살하여 버리며, 우리 인민들을 예속화시키고 우리 나라를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데 있다"고 김일성 장군은 지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 역도들 측으로 보면 이미 인민들이 쟁취한 모든 민주 개혁과 확립된 인민 정권을 말살하여 파괴하는 반

동적 반인민적 전쟁이며, 또 우리 나라를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략탈적 전쟁인 것이다。

그러나 조선 인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전쟁의 목적은 「리승만 매국 역도들을 반대하는 이 전쟁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그 헌법을 사수하여야 하며 남반부에 수립된 반인민적 파시스트적 리승만 괴뢰 정권을 소탕하고 우리 조국 남반부를 리승만 역도들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키며 남반부에 진정한 인민 정권인 인민위원회들을 부활시키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기치 하에 조국 통일을 완성하고 강력한 민주 독립 국가를 건설」(김일성)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리승만 역도들이 일으킨 동족 상쟁의 내전을 반대하여 우리가 진행하는 전쟁은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자유와 민주를 위한 정의의 전쟁이며, 또한 전쟁은 다만 리승만 역도들만을 반대하는 전쟁인 것이 아니라 조선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전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행하는 전쟁은 또한 세계 평화 수립에 있어서 특히 극동에 있어서 미 제국주의자들을 구축하며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는 중국, 월남, 비률빈 및 일본 인민들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거대한 힘으로 되는 것이다。

조선에서 동족 상쟁의 내란을 도발시킨 인류의 도살자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十만명의 「국방군」 장병들을 미국식으로, 미국의 무기로 무장시키고, 엄의 외 지대에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뽐내 왔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영용한 인민 군대의 반격에 의하여 소위 「국방군」이 여지 없이 패망당하게 되자, 미국은 자기의 침략적 목적을 위하여 해공군을 동원하여 직접 무력 간섭을 개시하였다。 그리하여 침략 준비의 정책으로부터 직접적 침략 행동에 넘어 갔으며, 무장 간섭의 방법으로써 조선 인민의 내정에 대한 공개적 간섭의 길에 들어섰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자기의 군대를 동원하여 조선에 대한 무장 간섭을 공공연히 전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조선에 대한 미국의 무장 간섭에 관한 성명에서 쏘련 부외상 아·아·그로미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분명히 요점은 미국의 침략자들이 남조선에 뿐만 아니라 북조선에도 손을 뻗치기 위하여 평화를 유린하였다는 그것이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무력 침공은 조선 인민에 대한 공공연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의 목적은 조선으로부터 민족적 독립을 박탈하며, 통일적 민주주의 조선의 형성을 조해하며, 또한 미국의 지배층이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전환시키며, 조선의 령토를 극동에 있어서 전략 기지로 리용하는 것을 허용할 반인민적 정권을 조선에 강제적으로 수립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진행하는 전쟁은 정의의 해방적 전쟁이

거 때문에 김일성 장군은 자기의 호소에서 인류의 력사는 자기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결사적으로 궐기한 인민들은 언제든지 승리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하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우리의 정의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제시하였다。

김일성 장군은 우리의 인민 군대에게 공화국 북반부의 제반 민주 개혁의 성과들을 사수하며 공화국 남반부 동포들을 반동 통치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바쳐 싸울 것을 호소하였으며, 조선 인민들에게 모든 사업을 전시 태세로 개편하여 모든 력량을 적의 박멸에로 총동원할 것을, 남반부 인민들은 적의 후방에서 유격전을 일으키며 역도들이 견디여 내지 못할 초전을 조성하며 리승만 괴뢰 정권의 명령에 복종하지 말 것을 호소하였다。 김일성 장군은 전체 조선 인민들 앞에 인민 군대에 대한 방조 사업을 백방으로 조직하고 그 대렬에 대한 강력한 보충을 보장하고 모든 필요한 것을 제때에 공급할 과업을 내세웠다。 우리 당은 김일성 장군이 제시한 제과업들을 누구보다도 민속하게 실현하는 데로 광범한 인민 대중을 궐기시키고 있다。

전쟁 첫 시기인 一九五〇년 六월 二十六일 김일성 장군을 수반으로 하는 군사 위원회가 조직되였다。 군사 위원회는 국내외 일체 주권을 자기의 수중에 집중하였으며, 또 七월 四일 조선 민족의 경애하는 수령인 김일성 장군은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의 책임을 담당하게 되였다。 이와 같이 조선 인민들은 승리에 대한 자신심을 매우 굳게 하였으며 전선과 후방이 혼연 일체가 되여 김일성 장군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적의 박멸에로 총동원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무력 간섭은 세계 자유 애호 인민들로부터 극도의 비난을 받게 되였다。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조선 인민의 편에는 량심을 가진 전세계의 인류들과 가장 강대한 위력을 가진 쏘련을 위시한 민주 진영이 철옹성같이 서고 있다。

지금 세계의 방방 곡곡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진보적 인사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의 책동과 조선에 대한 그들의 범죄적 침공을 반대하여 무자비하게 투쟁하고 있다。 그것은 조선 인민들이 미제와 리승만 도배들에 대하여 쟁취하는 승리는 세계 민주 진영의 승리의 하나로 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사업에 크게 공헌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

전쟁 도발자들을 반대하는 인민 해방 전쟁에서 우리 당은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산하의 가장 강력한 당으로서 전쟁에서의 모든 승리를 조직하여야 하며, 또 제반 민주 개혁의 성과와 인민 정권을 확고 부동하게 고수

하는 것을 자기에게 부과된 가장 고귀하고도 영예스러운 임무로 간주하고 있다.

조국과 인민 앞에서 우리 당과 매개 당원들이 책임진 고귀한 임무는 실로 거대하며 무거운 것이다. 우리 당은 그 력사로 보아 비록 장구하지는 않으나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에게 부과된 사명의 실천을 위한 투쟁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우리 당의 투쟁 행정은 항상 인민과 조국에 충직하였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항상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우리 당은 조선에 있어서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과 근로 인민들의 자유 해방을 위한 장구하고도 영예로운 투쟁을 계속하여 온 전신당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여 쏘베트 군대의 무력에 의하여 조선 인민들이 해방된 후 부강 조국 건설을 위한 애국적 투쟁 속에서 군중의 지대한 존경과 신망을 받게 되였다.

우리 당이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철석같이 단결시키며, 북조선에서 제반 민주 개혁을 보장하며, 인민 대중의 절박한 요구들을 제때에 정확히 해결하였으며, 공화국 북반부로 하여금 조국 통일을 위한 튼튼한 민주 기지로 전변시키는 투쟁에 있어서 항상 선봉적 조직자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전체 조선 인민들은 우리 당을 조국과 후손의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전위대로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의 념으로 우러러 보고 있다.

사실 우리 당은 조국 창건의 위대한 임무를 자기의 양견에 걸머지고 조국의 장래를 해결할 수 있는 장대한 정당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공화국 북반부 공장, 기업소, 광산, 철도, 농촌 문화기관 등 어디를 물론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과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 당 단체와 당원들의 핵심적 역할이 있으며, 그의 성과는 우리의 수많은 당원들의 애국적이며, 창발적인 고귀한 희생적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진 업적의 축적인 것이다.

우리 당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취한 성과를 남반부 인민들도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해방 이후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 역도들의 반인민적 반동 정책을 반대하는 온갖 투쟁의 선두에는 우리 당원들이 서고 있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이며 애국적인 우리 당원들이 통분하게 흘린 피가 헛된 것으로 되지 않을 결정적 시기가 도달하였다. 전체 당원들과 모든 조선 인민들 앞에는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총궐기할 때는 오고야 말았다.

우리 당원들은 전체 조선 인민들과 함께 리승만 역도들을 색출하여 완전 소탕하며 미제를 우리 강토에서 구축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조선 인민군대의 진격 앞에 침략자들의 군대들은 치명적 타격을 받아 멸망하고야 만다는 것이 날로 확증되고 있다.

정의의 총을 잡고 궐기한 인민군은 일거에 광범한 남반부 지역들을 해방하고 노도와 같은 진격으로 이미 六월 二十八일에는 공화국 수도 서울을 해방하였다. 수도를 해방한 사실은 실로 이 전쟁의 결정적 전환점이며, 전쟁의 승패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된다. 서울, 인천, 수원 등지에서의 침략자들의 패망은 미제의 괴뢰 「국방군」의 부패성을 여지 없이 폭로시키고 말았다.

인민 군대의 훌륭한 승리는 인민 군대가 다만 침략군대만을 격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투에서 그들을 완전히 격멸하고 전체 남반부 지역과 인민들을 적들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고 조국의 완전 통일 독립을 성취시킬 수 있는 강대한 무장력으로 장성하였다는 것을 전세계 인민들 앞에 시위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 리승만 도당들에 의하여 우리 조국에 조성된 가장 어렵고 곤난한 민족적 위기를 타개함에 있어서 조선 근로 대중의 위력한 전위대인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 앞에서 중대한 시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후방 사업 조직에 있어서 전투적 임무를 선봉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일찌기 레닌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공고한 후방이 필요하다고 불쉐위끼 당에 지시하였다.

레닌의 저서에 따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군대뿐만 아니라 후방도 역시 적의 타격을 견디여 내야 한다는 명제를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세계의 어느 군대도 공고한 후방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물론 장구하고 확고한 승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전선을 위하여 후방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냐 하면 오직 후방만이 전선을 온갖 종류의 공급으로 뿐만 아니라 또 사람, 즉 전사들과 사기와 리념으로도 전선을 부양하기 때문이다. 공고치 못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적대적인 후방은 가장 우수하고 가장 결속된 군대라도 기필코 강의치 못한 연약한 집단으로 전변시킨다」(쓰딸린 전집 四권 로동당 출판사판 四〇三—四〇四페지).

우리의 후방은 반석같이 공고하다. 우리의 인민군에 필요한 식량의 대부분은 인민 정권으로부터 토지를 받은 농민들이 공급하고 있으며, 전선에서의 필수품의 절대 다수는 국가, 즉 인민의 소유로 된 공장 기업소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고상한 애국주의 사상으로 통일된 전체 조선 인민들은 정치—사상적으로 통일된 인민으로서 인민군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에는 전선과 후방의 한계가 없게 되였다. 다만 「모든 것은 전선을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 일치 단결하여 적의 완전 소탕에로 매진할 뿐이다.

그러나 인민과 고립되였으며, 인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리승만 도배들의 후방은 공고할 수 없으며, 따

여서 전후에서 항상 패배하며, 마침내 붕괴의 운명에 있음은 또한 자연한 리치이다。

군대는 공고한 후방이 없이는 오랫 동안 전투를 계속 할수 없으며 공고한 전선을 위하여 군대는 후방으로부터 보충병과 군수품과 식량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위대한 조국 전쟁에서 쏘베트 군대의 후방의 견고성은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이 자기의 사회주의 조국과 조국의 명예와 자유를 위하여서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무릅쓰고 투쟁할 각오를 보여준 데서 표시되였다。

쏘베트 동맹의 로동자 농민들은 생산에 있어서 로동 생산성을 급속히 제고시키라는 쓰딸린의 호소를 실천하면서 평화적 건설 시기보다 二배 내지 三배까지 생산 능률을 제고하였다。 그리하여 쏘베트 국가는 전선에 무기, 탄약 및 식량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었으며, 적에 대한 승리를 획득하였다。

김일성 장군은 「모든 사업을 전쟁 목적과 적들을 소탕함에 복종시키며, 인민 군대에 대한 전인민적 방조를 조직하며, 그의 전선을 계속 증원 보충하여 그에게 일체 필수품을 공급하며, 군수품의 긴급 수송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우리 당원들은 김일성 장군의 지시를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솔선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단시일 내에 우리의 인민 군대가 쟁취한 혁혁한 승리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 것이며, 적을 끝까지 박멸하는 때로 전체 력량을 동원하도록 인민들을 조직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더우기 우리의 적은 강대한 미 제국주의자이며 전쟁에서의 우리의 승패는 자주 독립이냐 또는 다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노예 생활에서 신음하게 되느냐 하는것을 판갈이 하는 것임으로 다시금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매개 당원들로부터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여 원쑤들을 단기간에 무자비하게 소탕하기 위하여 모든 력량을 동원」 하라는 김일성 장군의 지시를 자기 사업에서 실천화하며, 자기 사업에서 전시에 특히 해로운 안일성과 해이성과 투쟁하며, 항상 당과 정부의 어떠한 과업이라도 정확 신속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평화적 조국 통일 제의를 거부하고 전쟁을 도발한 민족 반역자들과 우리 조국에 대한 무력적 침략의 마수를 뻗친 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전인민적 전쟁에 당원들은 용감하게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위대한 조국 전쟁에 있어서 볼쉐위끼당과 당원들은 독일 파시스트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전인민적 전쟁의 조직자이였다。 당 기관과 당원들은 전선에서, 후방에서, 빨찌산 대렬에서 투쟁의 선봉대이였다。 공산당원의 五〇% 이상이 전쟁 첫날에 군대로 나갔으며, 전쟁에서 곤난한 시기가 닥쳐올 때마다 언제나 볼쉐위끼당은 당원들을 동원하였으며 그들은 첫 대

렬에서 투쟁하였다。

지금 우리의 용감한 청년들은 홍수같이 인민군 자원병으로 나서고 있으며 그 수는 이미 七十四만을 초과하고 있다。 전국 방방 곡곡에서는 무장 침범자들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 나타나든지 그들의 침해로부터 우리 조국 강토를 수호하기 위하여 궐기한 자원병 부대들과 련합 부대들이 편성되고 있다。

우리 당원들은 인민군 대렬에서 강철같은 규률과 조직성의 선도자로서 인민 군대를 튼튼케 하고 있으며, 군인들을 조국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영웅성과 과감성의 정신으로 교양주고 있으며, 전투에서 항상 승리의 조직자로 되고 있다。

우리의 인민군은 적들을 소탕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전쟁의 목적이 명확하다。 당 단체들은 우수한 당원들을 인민 군대에 보냄으로써 군대를 계속 증원 강화하여 무장 침공자들로부터 조국 강토를 수호하는 선봉으로 되여야 할 것이다。

당 단체와 당원들은 전시 후방을 강화함에 있어서 정권 기관 사업을 협조 보장함으로써 간첩 분자, 파괴 분자들을 제때에 적발 소탕하며 후방의 온갖 파괴 분자들과 류언비어 류포자들과 유울 분자들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적들은 교활하며 음흉하며 기만과 요언들을 산포하려고 온갖 시도를 다 할 것입니다」라고 김일성 장군은 경고하였다。 그러므로 온갖 적대적 분자들에 대한 투쟁을 약하게 한다면 적을 리롭게 하는 것이며, 이는 곧 우리의 투쟁 대오를 약하게 하는 것으로 된다。 적들에 대해서는 추호의 용서와 타협도 필요 없고 다만 끝까지 타격을 주는 데서 만이 승리는 고착되는 것이다。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 인민의 창의에 의한 인민 주권이 수립되여 새 인민적 질서를 확립하였다。 또한 해방 전쟁의 승리적 진행과 함께 남반부에서 국내 반동의 근거지는 완전히 소탕되고 있으며 인민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지역들에서의 인민들은 반동에 의하여 해산되였던 인민 위원회를 복구하며 인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여 주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헌법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러나 인민 주권의 원쑤들은 무장 침범자들의 방조를 리용하면서 온갖 간계를 꾸미며 태공과 해독 사업을 획책하고 최후의 음모, 파괴 공작을 할 것이며 또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생산 직장과 중요 국가 기관들, 철도, 교통 시설(교량 도로 턴넬), 발전소, 방송국 및 체신 기관, 수원지 등에 대한 보위 사업을 어느 때보다도 강화하며 인민 자위대의 역할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매개 당원들은 모든 것을 전쟁의 리익에 복종시키는 사업에 있어서 정권 기관에 효과적인 방조를 줄 것이며 정권 기관의 지시는 하급 기관에서 정확히 제때에 집행되도록 협조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권 기관에서 복무하는 당원들은 책임성을 높여 정부에서 내린 제반 지령의 보다 신속한 실행을 조직할 것이며 기관 내 간첩 분자, 저탐 분자들의 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경각성을 제고할 것이며 모든 것을 전쟁 승리에 복종시키도록 할 것이다.

생산 기업소 기관, 철도 운수 부문에서 공작하는 당원들은 자각적으로 로동 규률을 더욱 강화하고 폭격의 결과에 파괴된 산업 기업소들을 민속히 복구하여 우리의 후방을 항상 공고한 상태에 놓여 있도록 고도의 열성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공화국 북반부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조국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불굴의 투지로써 전선에 더 많은 물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또한 전선이 요구하는 물자를 더 시급히 수송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 있다.

전선으로 나간 로동자들의 로동력을 제때에 보충하여 로동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 저하의 위험성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직장 내 로력을 더욱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전선으로 나간 로동력과 기타 부족되는 로동력을 소년과 녀성 로동자들로써 시급히 보충하여야 할 것이며 그들이 로동 능률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조건(타아소 설치, 기술 전습제 강화 등)들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위대한 조국 전쟁 당시 쏘베트 국가는 군사 경제의 가장 곤난한 문제의 하나였던 로동력 보충 문제를 성과있게 해결하였다. 쏘베트 녀성들과 소년들의 영웅적 로동은 로동력 부족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곤난을 해결하였다. 쏘베트 인민 경제에 있어서 녀성의 비중은 전쟁 전 一九四〇년의 三八%로부터 一九四二년 전쟁 초에는 五三%까지 증가되였으며, 트락또르 운전수는 四%로부터 四五%로 증가되였다. 또한 쏘베트 인민들의 헌신적 로동의 결과로 산업에 있어서 로동 생산성은 一九四二년에 一九% 장성하였고 一九四三년에는 一九四二년에 비하여 七%가 더 증가하였다. 이 고귀한 경험을 우리의 전시 산업에서 반드시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직장 내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적의 침해로부터 직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장 자위대를 강화할 것이며, 경각성을 제고하여 적의 암해 공작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또 그를 적발하여야 할 것이다.

공화국 북반부의 공장, 제조소, 광산들과 농촌, 어촌들에서 인민 경제 계획 실행을 위한 투쟁은 종전보다 몇배의 목표를 세워 더우 힘차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생산 직장의 전체 당원들은 로동 생산성 제고, 물자 절약, 원가 저하를 위한 투쟁을 매개 부리가다, 제흐들에서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이며 농촌 당원들은 전선과 후방에 식량을 보장하며 공업 원료를 보장하는 문제를 성과있게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적의 후방에 있는 당 단체와 당원들은 적의 후방을

파괴 교란하는 투쟁을 희생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적의 후방에서 로동자들은 생산 직장, 운수 기관들에서 태공과 파업을 조직하며, 도시에서나 농촌에서 폭동을 일으키며, 패주하는 적들의 파괴로부터 공장, 광산, 제조소, 기업소를 수호하며, 빨찌산 투쟁을 적극 강화하여 전체 인민들을 동원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들은 적들에게 식량을 주지 말며,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며, 금번 수확물을 수호하며, 인테리들은 여도들의 죄악을 폭로하며, 인민들과 더불어 해방 운동에 참가케 할 전인민적 운동을 우리 당원들은 열성적으로 조직할 것이며, 인민 군대를 적극 환영하며 그들을 백방으로 원조하도록 할 것이다.

빨찌산 운동을 확대하며 빨찌산 부대들은 적들의 교량, 도로, 전신, 전화 련락을 파괴하고 적군의 이동과 후방으로부터의 공급을 방해하며 적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파탄시켜야 할 것이다.

외국 무장 간섭 시기에 있어서 쏘베트 인민들의 빨찌산들은 도처에서 용맹한 활동을 전개하여 청소한 쏘베트를 사수하였으며 위대한 조국 전쟁 당시 독일 군대의 배후에서 빨찌산들은 영웅적으로 투쟁하여 쏘베트 동맹의 승리를 보장하였다.

조국 전쟁의 첫 二개년 동안에 빨찌산들은 三十만 이상의 적군을 살상하였으며 약 三천명의 적군 병사와 장교를 포로하였다. 一九四二년—一九四三년에 빨찌산들은 적군의 군용 렬차 三천대를 파괴하였으며, 三천 이상의 교량을 폭발시켰으며, 약 一만 五천대의 자동차와 천대 이상의 땅크를 박멸하였다.

적들의 후방에 있는 우리 당원들은 인민들과 함께 용감하고도 대담하게 빨찌산 운동을 광범히 조직하며 폭동을 일으켜, 진격하는 인민군에 호응 궐기하여야 할 것이다.

당 단체와 당원들은 군무자들과 전선에 나간 자들의 가족에 대한 꾸준한 원호 사업과 부상 당한 전사를 간호하는 병원에 대한 후원 사업을 광범한 전인민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인민 군대 장병들에게 각종 선물들과 위문 편지로써 그들의 사기를 고무하며 물질적으로 전선을 적극 방조하여야 한다. 또 후방으로 보내온 영예의 부상병들에 대하여 따뜻한 원호 사업이 실시되여야 하며 그들의 상처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완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신적으로 적극 위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군무자 가족들에게 사상적으로 되는 교양과 정신적 위안 사업을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함으로써 그들의 남편, 아들과 딸, 형제들이 참가하고 있는 전쟁의 정의적 성격을 알게 하며 전쟁에 참가한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비할 수 없이 영예이라는 것과 전쟁은 반드시 승리적으로 종결된다는 것을 해석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전쟁 시기에 있어서 당은 어느 때보다도 당원 대중과 광

범한 인민 대중 속에서 선전 선동 사업을 철저하게 전개하여야 한다。오늘 당 선전 선동 사업의 기본 임무는 인민들을 고상한 애국주의로 무장시키며 우리가 수행하는 전쟁의 정의적 성격과 전쟁에서 승리의 필수적 조건들과 전선에서 일어나는 제 사변들을 제때에 명확히 해석하여 전쟁 목적 실현에 총동원하는 데 있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진상의 정체는 완전히 폭로되였다。그들은 평화적 도시들과 농촌, 그리고 평화적 인민들에 대한 폭격을 야수적으로 감행하고 있다。이 진상을 인민들에게 알려 줌으로써 적개심을 고도로 앙양시키는 것이, 모든 선전 선동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방된 지역에 있어서 아직 인민 주권의 혜택을 맛보지 못한 인민들에게 지주 자본가들의 주권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민 주권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며 중간은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해석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전체 인민들에게 무엇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미군과 리승만 도당들이 우리 조국에 내란을 도발함으로써 조선 인민들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볼쉐위끼당이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에 인민 속에서 거대한 선동적 대중 정치 공작을 한 것은 그의 가장 위대한 부분의 하나였다。쏘베트 국가의 정체가 어떻게 곤난하든지 간에 사회 발전 법칙의 지식으로 무장된 당은 쏘베트 인민의 정의로운 사업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적은 꼭 격파되고야 만다는 것을 확호히 알고 있었다。승리에 대한 이 신념을 볼쉐위끼당은 전체 쏘베트 사람들의 심장 속에 박아 놓았던 것이다。볼쉐위끼당은 후방에서, 전선에서, 적을 무한히 증오하며 그를 격파하는 사업에 전력을 다 할 것을 쏘베트 사람들에게 교양하였다。

우리 당은 조선 인민들에게 열렬한 애국심과 조국의 운명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적을 극도로 증오하는 사상을 교양주는 데 거대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그리하여 우리들은 쏘베트 인민들에게서 그들은 어떻게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을 방위하였으며, 조국의 적을 분쇄하였는가를 배워 우리의 승리를 촉진하는 데 구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조국 애호 전쟁에 있어서 우리 당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조국 전선을 더욱 강고히 하며 우당원들과의 긴밀한 련락과 련계 하에서 무장 침략자와의 투쟁에 있어서 민주주의 력량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모든 복잡하고도 곤난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오늘의 조국 정세는 인민의 선두에 서 있는 우리 당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할 것을 긴절히 요구한다。

당 단체 책임 지도 일군들과 매개 당원들은 어느 때보다도 당 내부 사업을 공고히 하며 당적 조직 규률을

확립하고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당 상급의 결정 지시를 철두철미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당 단체와 당원들은 당 대렬 내에서 비겁한 자들과 류언비어 류포자들과 우울 분자, 도피 분자들을 용허하지 말아야 하며 사업에서 안일성과 해이성이 발로되는 자들에게는 치명적 타격을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쟁이 제기한 과업들을 열성적으로 수행하는 열성분자들을 엄격히 심사하여 입당시켜 당 대렬의 확대 강화에 당적 주목을 돌려 당과 대중과의 련계의 강화를 일층 공고히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군사적 시련의 불길 속에서 우리 당을 더욱 단련하고 대중과의 련계를 굳게 하고 인민의 거대한 사랑과 신망을 쟁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에 쏘베트 인민은 더 일층 볼쉐위끼당의 주위에 단결되였으며 전선과 후방에서 우수한 인사들이 당 대렬에 가입하였다。조국 전쟁 당시에 三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 대렬에 들어 갔으며 당에 입당 청원이 가장 많은 때는 전쟁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와 일치되였다는 것이 특징적이였다。

「모든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에로!」이것이 오늘 조선 인민들 앞에 제기된 전투적 과업이다。이 과업을 성과있게, 신속하게 실천하는 것은 우리 당과 당원들의 조직 정치 사업의 성과 여하에 결정적으로 의존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당의 전투 대렬을 강화하며 조직적 력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들의 당성과 조국에 대한 충실성은 곤난과 애로에 봉착하였을 때에 비로소 검열되는 것이다。

전선의 요구를 실행함에 있어서 당적 경각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며 정치적 각성을 고도로 제고하여 긴장되고 동원된 상태에서 당적 사업과 전투적 과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당원들은 반드시 인민의 모범이 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 사람의 비겁자도 안일주의자도 넘어 없이 근로 인민들의 영광스러운 전투적 부대의 성원으로서 당원의 고상한 애국주의와 순결성과 적극성과 희생성을 고수 발휘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승리는 반드시 정의를 사랑하는 인민의 편에 있다。

전체 당원들이여, 정의와 승리를 위하여 앞으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무력 침공은 조선 인민의 위력 앞에 분쇄된다

김 웅 기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의 천추에 저주할 매국노 리승만 도당을 사수하여 마침내 우리 조국에 동족상쟁의 류혈적 참극을 도발케 한 다음 그가 조선 인민군의 영웅적 반격으로 말미암아 결정적 멸망의 운명에 직면하게 되자 자기의 륙해 공군을 대량 동원하여 우리 조국에 대한 무력 침공으로써 공공연한 전쟁 상태에 들어갔다。

미 제국주의의 흡혈귀들은 항공대를 동원하여 공화국 남북반부의 도시와 농촌을 야만적으로 무차별 폭격하며 늙은이 어린이 부녀자를 가리지 않고 평화적 인민들을 대량 살륙하고 있다。 놈들의 함대는 우리의 령해를 침범하여 연안 도시와 농촌에 함포사격을 퍼붓고 있으며 륙군을 상륙시켜 우리의 영용한 인민 군대의 남하 진격을 조지하려고 발광하고 있다。

이것은 더 말할 것 없이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을 예속화시키며 조선에 대한 저들의 강도적 침략적 야망을 끝끝내 만족시켜 보려는 데에서 나온 것임이 극히 분명하다。

제二차 세계 대전의 결과 국제 정치 정세에는 급격한 변화가 조성되였으며 국제 정치 세력에는 새로운 력량 배치 관계가 형성되였다。

위대한 쏘련을 선두로 한 반제국주의 민주 진영의 력량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일층 강화 발전되였다。 쏘련의 위력의 계속적 장성 강화, 인민 민주주의 제국의 정치 경제적 확고와 사회주의 건설의 착수, 국내 반동과 미 제국주의의 침략자들에 대한 중국 인민 혁명의 력사적 승리, 독일 민주 공화국의 수립, 자본주의 제국에서의 공산당의 세력 강화와 민주주의 운동의 장성,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의 앙양 및 전세계적 범위에서 강력한 조직적 력량으로 발전되고 있는 평화 옹호 운동의 대규모적 발전 — 이 모든 엄연한 사실들은 반제국주의 민주주의 진영의 력량이

강대함을 립증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제국주의 반민주 진영은 더욱 약화되여 가고 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력량의 장성 강화, 경제 공황의 박두, 자본주의 체계에 있어 전반적 위기의 금후 첨예화, 그 체계의 내부적 또는 외부적 모순의 첨예화 등은 제국주의의 더욱 약화를 증명하는 것이다。

국제 무대에서 두 력량 간의 관계가 이와 같이 평화 및 민주 진영의 절대적 우세로 변경된 사실은 제국주의 전쟁 방화자들의 광란적 발악을 격화시키게 되였다。

「영 미 제국주의자들은 전쟁 방도로써 력사 발전을 변경하며, 자국의 내부적 또는 외부적 모순과 난관을 해결하려고 하며, 독점 자본의 진지를 확보하며, 세계의 패권을 잡으려고 예산하고 있다。」 (一九四九년 十一월 수개국 공산당 보도국 회의 결의문 중에서)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예속국에 군주—파시스트적 질서를 부식 강화하고 있으며, 로동 계급을 핵심으로 한 근로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단체들을 파괴하며 군사 전략적 조치와 경제적 팽창과 사상적 투쟁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등 온갖 방법과 수단으로써 침략 계획을 착착 실천에 옮겨 왔던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구라파를 경제적 정치적으로 노예화하려는 계획과 아울러 군사 전략 상 위치로서의 중요성 및 광대한 령역과 그 거대한 인구는 그들의 극동에 대한 탐욕적 야욕을 고도로 자극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극동은 민주 진영 대 반민주 진영 간의 첨예화한 세계적 투쟁에 있어서 가장 예리한 관계에 처하여 있는 지대로 되였다。

놈들은 중국에 대하여 대량적 무력 원조를 강행하여 내란을 조장하였으며 우리 조선을 포함한 동방 제 약소 국가에 대한 침략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六十여의 「만능」의 딸라도 중국에 있어서는 이미 한장의 휴지보다도 값없는 것으로 되고 말았으며 과학의 「정수」를 자랑하는 미국제의 무기와 탄환도 五억만 중국 인민의 단결과 강철의 의지 앞에 무용지물로 되고 말았으니 미국의 회망과는 정반대로 위대한 중국 인민 혁명은 력사적 승리를 쟁취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월남 인민 공화국은 불패의 력량으로 더욱 공고 발전되였으며 인도네시야, 필립삔, 인도, 마레이 등 제국에서의 민족 해방 투쟁은 무장 투쟁의 단계에로 넘어가 일층 확대 강화되고 있으며 일본에서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민주주의적 인민 운동이 급격히 앙양되고 있다。

극동에 있어서의 민족 해방 투쟁의 미증유의 앙양과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의 파탄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 야수적 광란 상태에 들어가게 하였으니 우리 조선에서의 도발적 행위와 대만에 대한 침략적 기도 및 일본에서 민주 력량에 대한 새로운 탄압 등이 곧 그의 표현인 것이다。

조선에서의 사건의 변천에 대응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으로부터 민주적 독립을 박탈하며, 통일적 민주주의 조선의 형성을 조해하며, 또한 미국의 지배층에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전환시키며, 조선의 령토를 극동에 있어서의 전략 기지로 리용하는 것을 허용할 반인민적 정권을 조선에 강제적으로 수립」(그로미꼬)하려고 지금까지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 버리고 아주 공개적 침략을 직접 개시한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 남반부에 상륙한 첫날부터 자기들의 침략 계획 실천의 길에 들어 섰다. 놈들은 「자선가」「자유의 신사」의 허울 좋은 가면을 뒤집어 쓰고 공갈, 협박, 회유, 기만의 졸렬한 술책과 테로 학살의 방법으로써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탈하기 위한 목적을 추구하여 왔던 것이다.

놈들은 인민의 의사에 의하여 창설된 인민 위원회를 탄압 해산하고 조선 인민의 불공 대천의 원쑤 리승만으로 하여금 주권을 횡탈케 하여 괴뢰 정권을 날조하여 내였다. 그리하여 놈들은 제 손발과 같이 움직이는 리승만 역적을 조종하여 五년간 반인민적 반동 통치를 강화하며 남조선 경제를 종속적으로 파탄시켜 미 독점 자본가들에게 완전히 예속시키였다.

놈들은 조선이 민주주의적 자주 독립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국제적 담보로서의 모쓰크바 三상회의 결정을 극력 반대 파탄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 인민들의 일치한 지망인 평화적 조국 통일 실현을 방해 파탄시키고 우리 조국에 동족 상쟁의 류혈적 참극을 연출케 하였다.

놈들은 이 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오래 전부터 열성적으로 준비하여 왔다. 미제의 명령 하에 리승만 괴뢰 정권은 기아, 빈궁, 실업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에게서 각종 명목으로 과중한 세금, 부담금을 강탈하여다가 「북벌」을 위한 군사비에 충당하였으며 애국적 빨찌산 「토벌」비에 소비하였었다. 미 제국주의 원쑤놈들은 리승만 도당을 직접 지휘하여 수十만의 애국적 인민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였으며 八만 여호의 농가를 소각파괴하여 「후방의 안정화」를 기도하였었다. 한편 놈들은 자기들의 추악한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조선 인민들의 천추의 원쑤 일제놈들과 까지도 리승만을 결탁시키였다.

그러면서 이 자들은 인간 도살의 발광자이며 세계 평화의 극악한 파괴자인 히틀러의 솜씨를 본받아 「북벌」과 「실지 회복」을 잠꼬대 처럼 외이고 있었다. 놈들은 리승만 역도배들의 군사적 모험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미국 준장 로버츠의 지휘 하에 五백여명으로 구성된 「미국 군사 고문단」을 남조선에 파견하여 리승만 괴뢰 군대를 오랫동안 훈련시켜 왔던 것이다. 이 로버츠라는 자는 미국 호전가의 괴뢰군을 「강화」시킴에 있어서의 자기의 「공로」를 루차 뽐내면서 「미국 납세자

들이 조선에 투하한 자본을 잘 지키며 최소 한도의 비용으로 최대 한도의 결과를 낼 군대를 조선에 가지고 있다」라고 호언 장담하였다.

一九四九년 十월 七일 리승만은 유·피 통신원에게 대하여 미국 원조의 덕분으로 「국방군」의 「위력」은 강화되였는바 三일 간이면 평양을 점령할 수 있다고 허풍을 쳤다. 불의의 이북 침공을 개시하기 바로 一주일 전인 六월 十九일에 리승만은 미 국무성 고문 덜레스가 참가한 소위 국회 석상에서 「만약에 우리들이 랭전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없다면 우리들은 열전에서 승리를 쟁취합시다」라고 아주 공공연히 내란 도발을 고함쳤다.

대체 이 추물 리승만은 무엇을 믿고 이와 같은 큰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가? 그것은 오직 제군에는 세계에서 제一「강국」으로만 보여지는 미국의 등쌀을 믿었던 것이요, 또 실지에 있어 미국의 조종에 의하여 금번에 도발 사건을 야기하였던 것이다.

미국 대한 원조 관리 처장 존슨은 五월 十九일 미국회 하원 지출 위원회에서 미국의 무장으로 장비되고 미국 군인들에 의하여 훈련된 十만명의 남조선 군대 장병들은 자기의 준비를 끝마쳤으며 임의의 순간에도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성명하였던 것이다. 미국국방 장관 존슨, 합동 참모장 브래들리, 국무성 고문 덜레스 등 「거물」들이 일본에 와서 맥아더와 더불어 회합을 가졌으며 그 후 덜레스가 남조선에 와서 三八선 경계선을 시찰하고 六월 十九일 소위 국회에 덜레스가 참가하고 「북한과의 타협의 길은 파멸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공산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남조선에 모든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 지지를 줄 용의가 있다고 성명한 후 불과 一주일만에 놈들의 이북 침공이 도발되였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저간의 소식을 여실히 알 수 있는 열쇠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리승만 괴뢰군은 영용 무쌍한 조선 인민군에게 도저히 견디여 내지 못하고 지리 멸렬 개전 벽두에 벌써 전국의 대세는 결정되였으니 패주에 패주를 거듭하고 있는 리승만 도배의 만회할 수 없는 사변의 위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당황 망조 하면서 또다시 유·엔의 간판을 걸머지고 나섰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六월 二十七일 황겁히 유·엔 안보 리사회를 소집하여 조선 문제에 관한 비법적 결정을 채택케 하였다. 이를 빙자하여 뻔뻔스럽게도 조선에서의 「유·엔 경찰」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미 제국주의자들은 떠들고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유·엔 헌장을 비법적으로 유린하면서 쏘련 대표와 합법적 중국 대표가 참가하지 않은, 또 조선 인민의 진정한 대표의 참가도 없이 「채택」된 것이니 하등의 법적 효력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로써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

서의「유·엔군」의 역할 담당 운운은 전연 황당무계한 것으로 오늘 어떠한 사람을 불론하고 이에 속을 자는 없는 것이며 반면에 「유·엔군」을 자처하면서 륙해공군을 동원하여 평화적 조선 인민들에 대한 대량 살륙을 감행하는 미 제국주의 군대 그 자체가 다름 아닌 강도적 침략 군대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확증되였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이 국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유·엔 기구를 월가 독점 자본가의 팽창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추악한 도구로 전화시키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마침내 침략 준비로부터 공개적 침략 행동에로 넘어갔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와 자유 안전을 지향하여 전진하는 세계의 일각에 포연의 냄새를 피뜨림으로써 세계 인민의 원쑤로 등장하였다。 그들은 세계 여론을 기만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자기들의 무력 침공을 정당화하며 조선 인민들을 「손쉽게 정복」하려고 계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계산은 이미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으며 또 부서지고 있다。 도발 사건이 발발된 첫날 쏘련 외무성 성명과 부외상 그로미꼬의 성명은 조선에서의 사건의 진상을 아주 명백히 밝히였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미 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 진면목을 전세계에 폭로하였다。」

오늘 세계에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 대한 침략을 엄폐하기 위하여 떠드는 목소리에 속는 자는 하나도 없으며 또 귀를 기울이려고 조차도 하지 않는다。

조선 인민은 미 제국주의 강탈자들로부터 자기 조국과 인민의 독립과 자유 해방을 고수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에 총궐기하였다。이 정의의 전쟁은 조선 인민에게 있어 가장 정당한 사업이며 나아가서는 전세계 평화옹호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일익적 임무를 수행하는 고귀하고 신성한 사업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인민들은 자기의 목숨의 최후순간까지 원쑤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결의를 굳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철석같은 결의와 적에 대한 열화와 같은 증오심에 불타는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 앞에 리승만 도당은 이미 패잔지졸의 집단으로 전락되고 말았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은 추악한 패망의 비명을 올리고 있다。

영용한 조선 인민 군대는 반격전에 넘어간지 불과 수일동안에 수다한 도시 촌락 부락을 포함한 광대한 지역을 해방시키고 리승만 역도들의 팟쇼 경찰 통치 하에서 수도 서울을 해방시키는 전사에 길이 빛날 위훈을 세웠다。 원쑤들은 서울에서 수원으로, 수원에서 대전으로 황겁히 도망질 치기에 안비 막개의 형편에 빠지고 있다。 놈들의 제二十四 사단은 벌써 패주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다수가 포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놈들이

「공중 요새」로 자랑하는 비 二九를 포함한 수十기의 항공기가 격추되였으며 놈들의 순양함과 군함이 격침되였다。 이러한 전투를 통하여 조선 인민들은 조국 력사에 만대로록 빛날 김군옥, 리문순, 김기옥, 리완근을 비롯한 많은 영웅을 갖게 되였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 민족은 모욕과 굴종을 감수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자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자기 자체로 해결하기에 그 누구보다도 대담하고 용감하며 조국애에 불타는 민족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선시하고 있다。

우리 민족을 「렬등」 민족이라고 떠들어 치며 우리 민족에게는 월가 장사군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운명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던 원쑤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의 진면목을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전세계 인민물도 이 엄연한 사실을 만족에 찬 기쁨으로 주시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이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고 자기 인민과 전세계 인민들을 속이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다。

조선 인민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을 예속화시키려는 음흉한 계획을 반대하며 또는 그들이 조선 인민의 자주권을 박탈하며 우리 조국에 대한 무장적 침범을 감행하는 것을 반대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과 자유와 독립을 수호」(김일성)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전체 조선 인민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해방 후 五년 동안에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적 민주 제도와 질서를 고수 공고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공화국 남반부에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급속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과 인민들의 물질적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요 불굴의 투지와 열화와 같은 애국심으로 총궐기하여 조국의 위기를 타개하고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길이 빛낼 영웅적 투쟁의 길에 들어섰다。

조선 인민들의 력량은 거대하며 무진장하며 우리의 영웅적 인민 군대는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를 격멸소탕하고 영광의 승리를 쟁취할 모든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다。

조선 인민들은 조국의 우수한 아들 딸로써 조직되였으며 상부로부터 하부에 이르기까지 고상한 애국주의와 선진적 과학 사상으로 무장된 강철의 대 전투 가족으로서 현대적 장비와 전투 기술로 무장되고 있다。 더우기 조선 인민들은 우리 민족의 민족적 영웅이며 경애하는 수령인 김일성 장군의 항일 유격 투쟁의 영웅적 전통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 장구한 세월에 걸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하여 온 애국자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직되였으며 오늘 김일성 장군을 최고 사령관으로 받들고 있다。

인민에게서 나왔으며 인민에게 깊이 뿌리박고 있는 조선 인민군은 인민과의 혈연적 련계 밑에 그의 무한한 사랑과 지원으로써 매 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듭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는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은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피묻은 손이 우리 강토에서 떨어지기 전에는 우리 조국의 천지를 뒤덮고 있는 검은 구름을 한점의 티끌 없이 깨끗이 찢어 버리기까지에는 절단코 그치지 않을 것이며 수十만 수백만 인민의 젊은 용사들은 영웅의 뒤를 따를 것이다.

동서 반구를 통하여 조선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을 지지하며 충정으로 성원하는 수억만의 진실한 목소리가 수륙 기만리 산을 넘고 대양을 건너 조선 인민들의 끓는 가슴에 승리의 격동을 더욱 우람차게 불러 일으킨다.

우리 조국에 침략 전쟁의 불길을 질러 놓음으로써 세계 제패 야망의 일단을 충족시키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로 말미암아 오히려 무너져 가는 자기의 운명을 사멸의 길로 더욱 재촉할 따름이다.

조선 인민 군대는 아름다운 우리 강토에서 원쑤들을 최후의 한놈까지 격멸 소탕하기 위하여서는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바쳐 영웅적으로 싸울 것이며 결코 정의의 총을 놓지 않을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발광하여도, 발버둥 쳐도 도도히 흐르는 조선 인민들의 승리의 력사적 거류는 결코 막지 못할 것이다.

조선 인민을 노예화하기 위하여 우리 조국에 죽엄과 류혈적 참극을 일으킨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의 앞에서, 인류 력사 앞에서 반드시 치명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미 제국주의의 강도 놈들을 한놈도 남김 없이 대구에서, 부산에서, 제주도 한라산에서 깨끗이 쓸어 조선 해협의 만길 바다 속에 수장지내 버릴 날은 멀지 않았다.

영광찬 공화국의 기치 높이 영명한 자기의 수령 김일성 장군의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되여 한 사람처럼 다만 앞으로만 나아가는 조선 인민의 앞에는 오직 빛나는 승리가 있을 뿐이다. —

총국적 승리를 향하여 단결의 힘찬 보무로 더욱 용감히 앞으로! —

참 고 자 료

이·브·쓰딸린 전집 제五권에 대하여

므·요브츄그

이·브·쓰딸린 동지의 전집 제五권이 세상에 나왔다. 전집 제五권에 들어 있는 쓰딸린 동지의 저작들은 볼쉐위끼당의 사상적 무기고에 대한 막대한 기여로 되여 있다. 이 저작들은 맑쓰—레닌주의 리론에 대한 정확한 리해와 사회 발전 법칙에 대한 심오한 지식과 또한 사회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 방도로써 우리의 당 간부들을 무장시키는 것이며, 또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다민족 쏘베트 국가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로동 계급의 위대한 혁명적 당을 단련하며, 강화하며, 그의 대렬의 통일과 레닌주의에 대한 충성을 보전할 것을 우리 간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전집 제五권에 들어 있는 쓰딸린 동지의 로작들은 一九二一—一九二三년에 서술된 것이다. 이 때는 외국 제국주의자들의 침해로부터 자기의 존재를 고수한 젊은 쏘베트 국가의 력사의 초기이였으며 인민 경제를 부흥시키며, 그것을 사회주의의 기초 위에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의 시기였다. 「전쟁에서 받은 상처를 고치는 것이 필요하였다. 파괴된 인민 경제를 회복시키고 산업, 교통 운수, 농업을 정돈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평화적인 건설에의 이행은 극도로 곤난한 정세 하에서 행하여 지지 아니할 수 없었다. 공민 전쟁의 승리는 용이하게 얻어진 것이 아니였다. 국가는 四년 간의 제국주의 전쟁과 또 三년 간의 무력 간섭으로 인하여 황폐해 졌었다」(「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 력사 간략 독본」 로동당 출판사판 四二九—四三〇페지).

레닌—쓰딸린 당은 평화적 경제 건설에로 들어가면서 로동 계급과 농민층의 동맹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 이미 불충분한 것으로 되여진 이 동맹의 낡은 군사—정치적 형태를 로동 계급과 농민층의 경제적 동맹으로써 대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전시 공산주의 정책을 신 경제 정책으로써 대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시기에 젊은 쏘베트 국가의 공개적인 적들—꿀라끄층, 네프만적 부르죠아지, 구 부르죠아 인테리겐

차 중의 반(反)혁명적 분자들, 백위군 도당, 멘쉐위크들, 에쎄르, 무정부주의자들,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과 또한 동시에 당과 쏘베트 인민의 숨은 적들—뜨로쯔끼 도배, 부하린 도배, 「로동자 반대파」, 민족 경향자들 및 기타—은 쏘베트 정권과 당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전쟁과 무장 간섭으로 인하여 야기된 경제적 붕괴를 리용하려고 노력하였었다. 당과 쏘베트 국가의 적들은 쏘베트 제도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전시 공산주의 정책에 대한 농민의 불만과 또한 전쟁과 경제적 붕괴 및 기아로 인한 피로(疲勞) 때문에 나타난 일부 로동자들의 불만을 백방으로 팽창시키며 이를 리용해 보려고 시도하였었다.

一九二一—一九二三년—이 시기는 당의 레닌적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으며 또한 쏘베트 국가의 위력을 내부로부터 약화시키며 파괴하려고 시도한 당내의 반(反)레닌주의적인 반대파 조류와 그루빠를 반대하는 당의 견결한 투쟁의 시기였다.

이 모든 볼쉐위즘의 적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당은 레닌의 주위에, 그의 사업을 레닌과 쓰딸린이 지도한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결속하였었다. 당 및 로동 계급과 전체 쏘베트 인민에 대한 쓰딸린 동지의 위대한 공적은 당을 레닌의 주위에 결속하기 위하여, 또한 레닌주의의 모든 적들에 대한 당의 레닌적 정책의 승리를 위하여 싸운 그의 불요불굴하며 철저한 투쟁이였다.

당과 국가의 생활에 있어서 곤난하며 책임적인 이 시기에 쓰딸린 동지는 레닌의 제의에 의하여 볼쉐위끼당 중앙 위원회의 총비서로 선거되였다. 一九二二년 말부터 레닌은 신병으로 인하여 자기 사업을 종종 중단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당과 쏘베트 국가를 지도하는 사업의 주요한 부담을 쓰딸린 동지가 담당하게 되였었다. 쓰딸린 동지는 위대한 레닌과 손을 맞잡고 젊은 쏘베트 국가를 건설하며 강화하였으며, 쏘베트 국가를 평화적 경제 건설의 궤도 위에 올려 놓았으며, 다민족 쏘베트 국가—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의 기초를 닦아 놓았으며, 레닌주의의 모든 적들을 반대하는 볼쉐위끼당의 투쟁을 지도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이 시기에 당의 활동과 쏘베트 국가의 건설을 실천적으로 지도하면서 그와 동시에 맑쓰—레닌주의의 리론을 발전시키며 전진시키였으며, 레닌적 학설을 당의 적들로부터 고수하였으며, 또한 혁명적 투쟁의 업적과 승리한 프로레타리아트의 국가 건설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레닌주의의 리론적 명제들을 [illegible]구하였으며 구체화하였다. 一九二一—一九二三년에 이·브·쓰딸린은 볼쉐위즘의 리론과 실천의 제문제에 관한 일련의 론문, 강연 및 보고를 내놓았으며 그리하여 맑쓰—레닌주의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새로운 명제와 새로운 결론들로써 맑쓰—레닌주의의 리론을 풍부케 하

였다.

쓰딸린 전집 제五권에 포함되여 있는 쓰딸린 동지의 로작들에서 취급되고 있는 실천적 및 리론적인 문제들의 범위는 비상히 광범하며 다각적이다. 이 시기의 쓰딸린 동지의 로작들에서 깊고 다방면적으로 해명되여 있는 문제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볼쉐위끼당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상의 문제들의 작성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즉(一)새로운 사회주의 사회인 우리 나라에서의 건설의 방도와 수단에 관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적 력량으로서의 쏘베트 국가와 로동 계급의 당의 강화의 방도와 수단에 관하여,(二) 쏘베트 국가의 제조건 하에서의 민족 문제 해결의 방도에 관하여,(三) 로동 계급의 혁명적 당의 전략과 전술에 관하여,(四) 당과 인민 대중과의 련계의 강화에 관하여, 대중에 대한 당의 정치적 영향의 강화에 관하여, 대중을 볼쉐위즘의 정신으로써 교양하는 형식과 방법에 관하여.

쓰딸린 동지는 레닌의 뒤를 계승하여 볼쉐위즘의 리론과 실천의 이 중요한 문제들을 강구하면서 복잡한 국제 국내 정세의 환경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당에 대하여 옳은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당과 쏘베트 국가의 발전 전망을 과학적으로 관정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당과 우리 나라의 로동 계급을 고무하였으며 무장시키였다.

전집 제五권에 들어 있는 쓰딸린 동지의 모든 로작들은 창조적 맑스주의의 이러한 탁월한 특징들로써 침투되여 있는 것이다.

* * *

一九二一년에 볼쉐위끼당은 전쟁과 무장 간섭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를 최단의 력사적 기간에 복구하며, 그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제조건들을 만들기 위하여 경제 건설의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규정들을 작성하였었다. 당은 레닌의 제의에 의하여 그 당시 황폐하여져 있던 농촌 경리를 향상시킬 목적으로서 여잉 곡물 수집제를 현물세 제도로 바꿔 놓았으며, 그리고 로동 계급의 모든 창조력을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써 산업을 부흥시키며 활기있게 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었다.

당의 원쑤들은 ― 뜨로쯔끼 도배, 「로동자 반대파」 및 기타 ― 당이 이 유일의 정확한 레닌적 방도를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며, 로동 계급을 분렬시키고, 비당원 로동자들로 하여금 당을 반대하여 일어나게끔 하며, 당의 지도적 역할을 없이 하며, 쏘베트 국가의 기초를 뒤흔들어 놓으려고 애썼다. 직업 동맹에 관한 론쟁 시기에 뜨로쯔끼 도배들은 「직업 동맹의 『국가화』」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강제하며 명령하는 군대식 방법을 로동 계급과 그의 직업 동맹들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직업 동맹에 관한 론쟁 시기에 모든 반당적 그루빠로부까를 폭로하면서 직업 동맹의 도움을 받아, 당의 주요한 과업 중의 하나로서 공산주의의 정신으로써 로동 계급을 교양하며, 전체 로동자들을 사회주의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끌어 들이며, 또한 ― 무엇보다도 먼저 ― 경제적 붕괴와의 투쟁에 자기의 로력을 집중할 필요성을 로동자들에게 확신시킬 과업을 당 앞에 내세웠었다.

一九二一년에 쓰딸린 동지가 서술한 것으로서 전집 제五권에 들어 있는 론문「우리의 의견 불일치」,「정권 장악 전과 그 후의 당」 및 「전망」과 「로씨야 전기화 계획」에 관하여 브·이·레닌에게 보낸 서한 및 기타 일련의 로작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조직 문제들에 바치여진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이 시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하며 긴급한 당의 과업은 경제적 붕괴를 반대하며 산업의 가장 급속한 부흥을 위한 투쟁에로 로동 계급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었다.

경제적 붕괴의 청산을 위한 쏘베트 국가의 근로 대중의 투쟁을 로동 계급이 령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쏘베트 정권에 대한 로동 계급의 신임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견고케 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우선 로동 계급을 설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직업 동맹에 조직된 수백만 로동자들의 자각성과 창의를 발휘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능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였었다.

「경제적 파탄을 극복하는 데 수백만의 로동 계급을 궐기시키려면 ― 쓰딸린 동지는 「우리의 의견 불일치」라는 론문에 이렇게 썼었다 ― 광범한 대중의 창의와 의식과 자발적 활동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적 파탄은 작일의 군사적 위협에 못지 않게 절실하고 치명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백만 로동자들을 민주주의적으로 구성된 직업 동맹을 경유하여 생산 부흥 사업에 인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경제 기관들의 경제적 파탄과의 투쟁을 전체 로동 계급의 혈연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경제 전선에서의 승리는 불가능한 것이다」(쓰딸린 전집 제五권 로동당 출판사 판 一四페지 ― 이하 동서에서 인용된 것은 페지 수만을 표시하겠음).

반당적 프락찌야 및 그루삐로부까를 반대하는 투쟁에 대하여 서술한 「우리의 의견 불일치」라는 론문에서 쓰딸린 동지는 로동 계급의 자각성, 자발성 및 창의성에 의하여 젊은 쏘베트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로씨야 사회주의 련방 쏘베트 공화국 및 그와 동맹한 공화국들은 ― 쓰딸린 동지는 썼었다 ― 지금 약 一억 四천만의 주민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八〇%

는 농민이다。 이와 같은 나라를 관리하려면 쏘베트 주권 편에 로동 계급의 특출한 사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왜냐 하면 오직 로동 계급을 통해서만, 로동 계급의 힘으로써만 이와 같은 나라는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 로동자의 신입을 유지 강화하려면 로동 계급의 자각성, 자발성, 창의성을 계통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로동 계급은 직업 동맹에 조직하면서, 그들을 공산주의적 경제 건설 사업에 인입하면서 공산주의 정신으로 계통적으로 교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一九―二○페지)。

一九二一년 一월 十九일부 「쁘라우다」에 발표된 쓰딸린 동지의 이 론문은 직업 동맹에 관한 론쟁 시기에 있어서의 레닌적 로선의 승리를 위한, 또한 레닌의 주위에 당을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막대한 역할을 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의 현명한 정책의 덕택으로써 당은 로동 계급과의 련결을 일층 강화시키는 옳바른 길을 선택하였으며, 당과 쏘베트 주권에 대한 로동 계급 대중의 견고한 신임을 보장하였으며, 수백만의 로동자들을 경제 건설 사업에 궐기시켰으며, 또한 전쟁과 무장 간섭으로 인하여 파괴당한 인민 경제를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五―六년) 내에 복구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 볼쉐위끼당이 이보다 못하지 않은 중요한 과업은 농민의 기본 대중을 쏘베트 정권의 편에 조직적으로 끌어 들이며, 그들을 국가의 전인민 경제 부흥을 위한 투쟁에 끌어 들이며, 로동 계급과 농민층 사이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였다。 一九二一년 三월에 개최된 볼쉐위끼당 제十차 대회는 브·이·레닌의 발기에 의하여 여잉 량곡 수집제를 현물세로 대체시키는 데 대한 결정과 신 경제 정책에로의 이행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었다。 신 경제 정책의 본질을 론증하며 설명하는 데는 레닌의 다음과 같은 론문과 연설, 즉 「현물세에 관하여」, 「신 경제 정책에 관하여」, 「로씨야 공산당(볼쉐위끼) 제十一차 대회에서의 로씨야 공산당(볼쉐위끼) 중앙 위원회의 정치 보고」, 「협동 조합에 관하여」, 「적게 해도 잘하라。 주 잘하라」 및 기타가 이에 바치여졌었다。 로동 계급과 농민층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조직할 것이 그의 기본 사상으로 되여 있는 레닌의 이 로작들에 대하여는 쓰딸린 동지의 다음과 같은 로작, 즉 「정권 장악 전과 그 후의 당」(一九二一년), 「전망」(一九二一년) 및 「十월 혁명과 중간층들에 관한 문제」(一九二三년)와 민족 문제 및 기타에 관한 쓰딸린 동지의 연설이 그와 직접 착치되는 것이다。

「정권 장악 전과 그 후의 당」이라는 자기의 론문에서 쓰딸린 동지는 로동 계급과 농민층과의 투투한 동맹이 쏘베트 국가의 견고성과 불패성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서구라파의 혁명이나 프로레타리아 당들과는 달리 우리 혁명의 행복스러운 특수성과 우리 당의 커다란 리점은 소부르죠아지의 극히 광범하고 유력한 층인 농민이 부르죠아지의 가능한 후비로부터 로씨야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진정한 후비로 되였다는 그 사실이다。 이 사정은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에게 유리하게 로씨야 부르죠아지의 약점을 확정하였다。 이것은 주로 로씨야에서 지주의 예속으로부터 농민들이 해방된 것이 서구라파와는 달리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도 하에서 일어났다는 것으로써 설명된다。 이 토대 위에서 로씨야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와 근로 농민과의 동맹이 결성되였다。 공산당원들의 임무는 이 동맹을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이다」(一三五―一三六페지)라고 쓰딸린 동지는 썼다。

쓰딸린 동지는 一九二一년 十二월 十八일 「쁘라우다」에 발표한 「전망」이라는 자기의 론문에서 쏘베트 혁명의 이 특성을 깊이 론증하고 있다。 쓰딸린 동지는 로씨야에서 로동 계급과 농민층의 동맹을 강화하며 이 동맹의 한 형태―군사―정치적―에서 일층 높은 다른 형태―경제적―로 이행할 데 대한 가능성 및 필요성을 다만 실천적으로 증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와 동시에 제二 인터내쇼날 내에 있는 서구라파 사회 민주주의 당들의 비속한 성격과 혁명 사업에 있어서의 그들의 무능력 및 해독성을 폭로하면서 농민 문제에 대한 그들의 리론에 대하여 치명적 비판을 주고 있다。

「로동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나라에서나 또는 어쨌든 공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 만이 로동자들이 주권을 장악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리론이 서구라파에는 있다。 이 리론에 기초하여 실로 카우츠키일파의 제씨들은 프로레타리아트가 소수를 이루고 있는 로씨야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적법성(適法性)」을 거부한다。 이 리론은 소부르죠아지, 무엇보다도 먼저 농민들이 주권을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것과 또 농민들은 그 다수 경우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후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르죠아지의 후비를 이루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 전제의 력사적 근거는 서구라파(불란서, 독일)에서는 소부르죠아지(농민)가 결정적 순간에 있어서 보통 부르죠아지의 편에 가담하였다는 데 있다(불란서에서의 一八四八년 파 一八七一년, 독일에서의 一九一八년 이후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시도)」(一四六―一四七페지)라고 쓰딸린 동지는 썼다。

이 현상의 력사적 원인을 론증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로씨야에서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 사이의 동맹을 결성하며 강화할 데 대한 명확한 계획을 말하였다。

「로씨야에서는 전연 다른 정형이 전개되고 있다. 첫째로, 로씨야에서의 부르죠아 혁명(一九一七년 二월—三월)은 서구라파에서와는 반대로 부르죠아지와의 맹렬한 투쟁 속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도 하에 진행되였는바 이 투쟁의 행정에서 농민들은 자기의 지도자로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주위에 결속되여 있었다. 둘째로, 로씨야에서의 프로레타리아 혁명(一九一七년 十월)의 시도(성공적인)도 역시 서구라파에서와는 반대로 부르죠아 혁명 이후 반세기를 지나서가 아니라 부르죠아 혁명의 뒤를 이여 대개 六—八개월을 지나서 시작되였는바 그 동안에 농민은 강력하고 조직된 농촌 부르죠아지를 산생할 수 없었고 더구나 一九一七년 十월에 전복 당한 대부르죠아지는 이미 그 이후에 자기의 기세를 회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둘째 사정은 로동자들과 농민들과의 동맹을 보다 더 강화시켰다」(一四八페지)라고 쓰딸린 동지는 썼다.

로씨야에서 혁명 과정에 있어서 조성된 프로레타리아트와 근로 농민 간의 실제적인 동맹은 쏘베트 주권의 기초로 되여 있다는 결론을 쓰딸린 동지는 이로부터 내리고 있다.

一九二一—一九二三년에 공하는 그의 저작들에서 쓰딸린 동지는 로씨야의 전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농민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인입할 과업을 제기한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당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전환을 리론적으로 론증하고 있으며 그는 로동 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농민을 사회주의 건설에 인입하기 위한 실제적 대책들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 시기들에서는 당은 로씨야에서 낡은 것을 파괴하며 자본을 타도하기 위한 공간으로 되여 있었다. 지금은…… 그와 반대로 그가 로씨야 내에서의 변혁의 당으로, 새로운 형태의 경제를 창설하는 당으로 변하였다. 이전에는 당이 낡은 제도를 습격하기 위하여 로동자들의 우수한 력량을 모집하였는데 지금은 식량, 운수, 공업의 기본 부문을 바로잡기 위하여 로동자들의 우수한 력량을 모집한다. 이전에는 당이 지주를 타도하기 위하여 농민의 혁명적 분자들을 끌어 들이였는데 지금은 농업을 개량하며 농민의 근로적 요소들과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프로레타리아트 사이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들을 모집한다. 이전에는 당이 자본과의 투쟁을 위하여 뒤떨어진 민족들의 우수한 분자들을 모집하였는데 지금은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와의 협력의 원칙 위에서 이 민족들의 근로적 요소들의 생활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들을 모집한다. 이전에도 당이 군대를, 낡은 장군의 군대를 파괴하였는데 지금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혁명의 전과들을 방위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로동자 농민의 군대를 전

설하여야 할 것이다」(一二九—一三〇페지).

프로레타리아트와 근로 농민의 동맹은 농민층의 선진자들을 국가 건설 사업에 인입하는 방법으로써, 또한 농업 지식으로써 농민에게 방조를 주며, 기계를 수선해 주며, 도시와 농촌 간의 물품 교역을 옳바르게 발전시키는 방도로써, 또한 개인 자본과의 투쟁에 있어서 국가의 지지를 받는 온갖 형태의 협동 조합에 농민을 결합시키는 방도로써, 또한 협동 조합을 통하여 식량과 원료의 대중적 저장을 실시하는 방법으로써, 또한 농업을 점차로 전기화하는 방도 등으로써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쓰딸린 동지는 강조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을 조직하는 과업과 관련하여 쓰딸린 동지는 로씨야의 전기화 사업에 대하여 막대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一九二一년에 「로씨야 전화 계획」(고엘로 계획)을 알게 되자 쓰딸린 동지는 레닌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이 문헌이야말로 「인용부 없는 실로 유일하고 실로 국가적인 경제 계획의 명저작입니다」(六一페지)라고 평가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이것이야말로 「경제적으로 락후한 로씨야의 쏘베트적 상부 구조 밑에다가 현 조건 하에서 실로 실제적이고 유일하게 가능한 기술적—생산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우리 시대에서 유일한 맑쓰주의적 시도입니다」(六一페지)라고 지적하였다.

또 여기에서 쓰딸린 동지는 뜨로쯔끼의 「계획들」에 대하여 「로씨야(전화 국가 위원회의 계획에 비하면 그 얼마나 빈약한 것이며 그 얼마나 락후한 것입니까! 고대 전설에 나오는 로씨야를 「구원할」 사명을 가진 일세의 주인공으로 자처하는 중세기의 수공업자……」(六一페지)라고 지적하면서 전쟁 전 공업의 파편(破片)에다가 미숙련한 농민—로동자 군중(로력군)의 로동을 대중적으로 적용하는 데 기초한 로씨야의 「경제 부흥」이라는 뜨로쯔끼의 「계획」에 대하여 치명적 비판을 주었다.

전화 국가 위원회의 계획을 공격한 리꼬브의 기회주의적 견지에 대하여 비판을 주면서 쓰딸린 동지는 리꼬브의 견지가 「범속한 「현실주의」—(실제에 있어서는 마닐로브의 망상)」라는 것과 리꼬브는 빼 속까지 인습에 젖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브•이•레닌에게 보낸 자기의 편지 속에서 쓰딸린 동지는 전기화 계획을 우리 나라의 진정한 경제 계획이라고 보면서 로씨야의 전기화 사업에 착수할 실제적 방침들을 명시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레닌적 계획을 강구하며 구체화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一九二一—一九二三년에 있어서 국가의 경제적 복구와 또한 로동자 및 농민 대중을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인입할 데 대한 당의 모든 사업을 지도할 기본적 주하(重荷)를 담당하였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은 이미 一九二四년까지에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현저히 향상되였으며, 불쉐위끼당의 지도를 받는 로동 계급의 광범한 대중은 사회주의 건설에 인입되여 사회주의 산업을 복구하며 향상시키였다。 쏘베트 주권에 대한 농민들의 신임이 비상히 제고되며 강화되였다。 즉 농민 대중은 농촌 경리를 복구하였으며 협동 조합에 가입하게 되였는 바 협동 조합은 그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참가에로 인도하였다。

* * *

레닌과 쓰딸린은 젊은 쏘베트 국가들을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에 련합시킨 고무자이며 조직자였다。 一九二二 —— 一九二三년에 쓰딸린은 민족 쏘베트 공화국들을 창건 강화하며 또 이 공화국들을 다민족 쏘베트 련맹 공화국 ——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 에 련합시키는 데 있어서 거대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一九二二년 十二월 제一차 전동맹 쏘베트 대회에서의 쓰딸린 동지의 보고와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의 결성 문제에 관한 그의 연설문 —— 전집 제五권에 들어 있는 —— 은 쏘베트 공화국들을 하나의 동맹 국가로 련합할 필요성에 대한 심오한 론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붕괴를 성공적으로 청산하며, 국가 방위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이 련합이 가지는 의의를 리론적으로 해부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에서 첫 다민족 사회주의 쏘베트 국가를 창건한 력사적 과정을 서술하였었다。

、이미 로써야 공산당 (볼쉐위끼) 제十차 대회에 보낸 「민족 문제에 있어서의 당의 당면 과업에 관하여」라는 자기의 테제 가운데서 쓰딸린 동지는 우리 나라의 인민들을 유일한 국가적 동맹에 통일할 필요성을 론증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즉 「개개의 쏘베트 공화국들이 고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들 측으로부터 그들의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말미암아 견실치 못하며 확고한 것이 못된다。 한편으로는 쏘베트 공화국들을 방위할 공동적 리해 관계와 다른 편으로는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생산력을 복구시킬 과업과 세째로는 곡물이 부족한 쏘베트 공화국들에 대한 곡물이 유족한 공화국들 측으로부터의 식량 원조가 긴요 불가결하다는 등의 사정은 제국주의적 예속과 민족적 압박으로부터의 유일한 구원책으로서의 개개의 쏘베트 공화국들의 국가적 동맹을 엄연히 호소하고 있다」 (二九페지)。 이미 공민 전쟁의 경험과 무력 간섭을 반대하는 투쟁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것을 립증하였었다。 즉 「자국」 또는 「타국」의 부르죠아지로부터 해방된 민족 쏘베트 공화국들이 긴밀한 국가적 동맹에 련합되여야만 제국주의의 련합 세력을 타승하고 자기의 존재를 고수할 수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二九——三〇페지)。

로써야 공산당 (볼쉐위끼) 제十二차 당 대회에 제출한 「당 건설과 국가 건설에 있어서의 민족적 제모멘트」라는 자기의 테제 가운데서 쓰딸린 동지는 쏘베트 제도의 제조건 하에서 이 위대한 과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완전한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였다。 즉 「……프로레타리아트는 민족 문제를 옳바르게 해결하는 열쇠를 쏘베트 제도에서 얻었으며 그 속에서 민족적 평등과 자원적 원칙 위에서의 견고한 다민족 국가 조직의 길을 발견하였다」 (二二五페지)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민족 쏘베트 공화국들은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동맹에 련합하는 문제에 관한 「쁘라우다」 신문 기자와의 담화에서 이·브·쓰딸린은 자주적인 쏘베트 공화국들의 련합 운동에 관한 력사를 서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즉 이 운동의 제一 단계는 쏘베트 공화국들의 군사적 련합, 군사적 동맹의 시기 —— 一九一八 —— 一九二一년 —— 인바 이 때에는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 앞에서 그들이 자기의 존립을 고수하기 위하여 련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운동의 제二 단계는 쏘베트 공화국들의 외교적 동맹의 시기 —— 一九二一년 말 —— 一九二二년 초 —— 였는 바 이 때에는 쏘베트 공화국들 내에 자본주의적 사유 제도를 부구시키려고 시도한 서구라파 자본주의 렬강들의 침공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들이 통일적 외교 전선을 지어 가지고 진출하지 않으면 아니되였다。 이 운동의 제三 단계는 쏘베트 공화국들의 경제적 련합을 위하여 一九二二년에 전개된 운동인데 이 때에 쏘베트 공화국들은 자기의 인민 경제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인 공화국들의 고립된 경제적 조건들로써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또 이 때에 우리 나라의 인민들은 통일적인 경제적 동맹에 련합할 필요성을 자각하였었다。

또 「쁘라우다」 신문 기자와의 이 담화에 있어서 쓰딸린 동지는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의 창건이 우리 나라의 모든 인민들의 운명을 위하여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강조하였다。 「국내 전쟁 시기에 쏘베트 공화국들의 군사적 동맹이 우리의 적들의 무장 간섭을 격파할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었으며, 제노아 및 헤그의 시기에 이 공화국들의 외교적 동맹이 련합국의 외교적 공격과의 투쟁에 있어서 우리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면, 유일한 동맹 국가로의 쏘베트 공화국들의 련합은 물론 쏘베트 공화국들의 경제적 번영을 근본적으로 용이케 하고 이 공화국들로 하여금 국제 자본의 침공을 대항하는 요새로 전변시킬 그러한 진면적인 군사—경제적 협조 형태를 창설할 것이다」 (一七五페지)라고 쓰딸린 동지는 말하였다。

쏘베트 국가의 그 후의 모든 력사는 쓰딸린 동지의 이 정의의 정당성을 전적으로 또한 완전히 확증하였다。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에 련합된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은 공동적 노력으로써 자기의 인민 경제를

사회주의적 경제로 개편할 가능성을 얻었으며 또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과거의 기술—경제적 락후성을 극복하며 그리하여 자본주의 나라들에 대한 자기의 정치적 및 경제적 독립을 보장하며, 또 따라서 자기의 국가적 자주권 및 방위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얻었다.

제十차 전로 쏘베트 대회에서 진술한 「쏘베트 공화국들의 련합에 관하여」라는 자기 보고에서 이·브·쓰딸린은 다민족 쏘베트 국가의 본질이 어떠한 부르죠아 다민족 국가의 본질과도 근본적으로 또 원칙적으로 판이하다는 것을 깊이 밝히였었다.

「쏘베트 정권은 그것이 그 내적 본질에 있어서 국제적이며, 대중들 속에 련합의 사상을 백방으로 배양시키며, 자체가 대중들을 련합의 길로 추동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여 있다. 만일 자본, 사유 재산 및 착취가 인간들을 호상 적대하는 진영에로 분할하여 그들을 분렬시킨다면(그의 실례로서는 영국, 불란서를 들 수 있으며, 그리고 파란 유고슬라비야와 같이 이 국가들의 기초 자체를 침식(侵蝕)하는 융화할 수 없는 민족적 내부 모순을 가지고 있는 적은 다민족 국가들까지도 들 수 있다)—만일 자본주의적 민주 정체가 지배하고 있으며, 국가들이 사유 제도에 기초하여 건립되여 있는 저곳 서구라파에서는 국가의 토대 자체가 민족들 호상 간의 불화, 충돌, 투쟁을 야기시키고 있다면 정권이 자본에 기초하여서가 아니라 로동에 기초하여 구성되여 있고 정권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에 기초하여서가 아니라 이 착취와의 투쟁에 기초하여 구성되여 있는 이곳 쏘베트 국가들의 세계에 있어서는 —쓰딸린 동지는 이렇게 지적하였다— 그와 반대로 정권의 본질 자체가 근로 대중으로 하여금 자연히 한개의 사회주의적 가정에 련합할 요망을 가지게끔 하고 있는 것이다」 (一八一—一八二페지)라고 그 당시 쓰딸린 동지는 말하였다.

다민족적 국가 련합의 자본주의적 형태는 국가의 와해를 초래하지만 그와 반대로 쏘베트적 형태는 각종의 민족들이 한개의 동맹 국가 내에서 점차적으로 그러나 확고하게 서로 접근하게 된다는 것을 쓰딸린 동지는 강조하였다.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의 결성 이후의 二十五년 간은 쓰딸린의 이 가장 중요한 명제들의 정당성을 확고 부동하게 확증하였다.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다민족적 국가 형성의 새롭고 쏘베트적인 형태—은 장성하며 확대되였다. 우즈베끄, 뚜르끄멘, 따지끄, 까자흐, 끼르기스, 몰다비야, 까렐로—휜, 리뜨비야, 라뜨비야, 에쓰또니야의 가맹 쏘베트 공화국들이 형성되여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에 가입하였다. 서부 우끄라이나, 서부 백로씨야, 벳싸라비야, 북부 부꼬비나, 자까르빠쩨야, 우끄라이나의 근로자들이 쏘련 내에 있는 자기의

동혈통(同血統)의 동포들과 또다시 합류되였다.

레닌—쓰딸린적 민족 정책의 기초 위에서 창건된 쏘베트 다민족 국가는 팟쇼 독일을 반대하는 전쟁의 곤난한 시련을 영예롭게 극복하였으며 또한 일층 공고하여졌다. 전쟁은 레닌과 쓰딸린에 의하여 창건되였고 또한 자원과 평등의 기초 위에서 동맹에 가입한 공화국들의 쏘베트적 동맹이 「국제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환경을 근로자들의 리익에 맞도록 변경시킬 수 있는」(一八九페지) 거대한 국제적 력량으로 발전되였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전쟁은 또한 쏘련이 다민족 국가의 표본이라는 것을 표시하였으며 「쏘베트적 국가 제도는 민족 문제와 민족 협조에 관한 문제가 다른 어떠한 다민족 국가보다도 더 잘 해결되여 있는 그러한 국가 조직 제도이라는 것」(쓰딸린)을 표시하였다.

부르죠아적 다민족 국가는 전쟁의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와해되였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이미 제一차 세계 대전은 부르죠아적 다민족 국가들의 와해를 초래하였었다(아후쓰토—웽그리야). 제二차 세계 대전은 또한 「타」민족들에 대한 압박 제도에 기초한 부르죠아적 다민족적 국가 구성이 독일 팟쇼들의 공격을 받아 견디여 내지 못하였다는 것을 아주 명백히 립증하였었다.

팟쇼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해방 투쟁은 새로운 다민족적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인민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친선적 관계의 새로운 형태를 산생하였다. 그 실례로서는 체코슬로바키야 공화국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전후 시기에 있어서의 식민지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의 광범한 규모는 부르죠아지의 압박자적 민족 정책의 본질을 명백히 증명하며 민족 문제 해결의 자본주의적 방법의 파산 상태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의 력사는 이와 같이 쓰딸린 동지의 명제가 가지는 정당성을 백번이나 천번이나 확인하고 있다. 즉 「수십년 동안 자본주의적 민주 정체는 제민족의 자유 발전의 리익을 착취 제도와 량립시키는 기초 위에서 민족적 모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때까지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또 앞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도리여 민족적 모순의 실꾸리는 점점 더 심각하게 뒤엉크러지면서 자본주의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다」(一八七페지).

자본주의 포위의 아주 곤난한 조건 하에서 쏘베트 다민족 국가를 건설하며 강화하면서 레닌과 쓰딸린은 쏘베트 조국의 방위력을 제고시켰으며, 사회주의 국가의 외교 활동을 훌륭히 지도하였으며, 쏘베트 인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一九二一년 十二월에 「전망」이라는 자기 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즉 「부르죠아

지는 로써야를 진압하지 않고서는「자기의」로동자들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이 때문에 로써야에 대한 이전의 모든 공격들보다 더욱 복잡하고 철저한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는 부르죠아지의 공작이 점점 더 강화되여 가고 있다」(一四四폐지)。제十二차 당 대회에서의 결론에서 쓰딸린 동지는 재차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즉「우리는 적들에게 포위되여 있다。이것은 일반이 다 명백히 아는 바이다。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제국주의의 승냥이들은 잠자고 있지 않다。우리의 적들이 우리한테 기여들어와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틈이라도 엿어 보려고 애쓰지 않는 순간은 순시도 없다。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우리의 적들이 혹은 봉쇄라든가 혹은 무장 간섭이라는가 그 어떠한 준비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확신할 만한 근거는 없다」(二七〇폐지)。

쓰딸린은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하며, 쏘베트 국가의 방위력을 꾸준히 단련하며, 외국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앞잡이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일 것을 쏘베트 사람들에게 호소하였다。

인민 경제를 복구하며, 붉은 군대의 위력을 강화하며, 로동 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사업에 있어서 레닌—쓰딸린당의 지도 하에서 一九二二—一九二三년에 달성한 쏘베트 국가의 제성과는 쏘베트 국가의 방위를 튼튼케 하였으며 평화적 휴식을 오랫동안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 * *

전집 제五권에 수록되여 있는 저작들 중에서는 민족 문제에 관한 맑쓰—레닌주의적 리론의 고전적 강구에 바친 쓰딸린 동지의 론문과 연설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一九二一년 초에 이·브·쓰딸린은「민족 문제에 있어서의 당의 당면 과업에 관하여」라는 로씨야 공산당(볼쉐위끼) 제十차 대회에 제출한 테제를 썼으며, 또 一九二一년 三월 十일에 제十차 당 대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연설하였으며, 또 동년에 그는「민족 문제의 설정에 대하여」및「十월 혁명과 로씨야 공산주의자들의 민족 정책」이라는 론문들을「쁘라우다」에 발표하였으며, 또한 찌플리쓰 당 단체의 회의에서「그루지야와 자깝가즈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의 당면 과업에 관하여」라는 보고를 하였다。一九二二년에 쓰딸린 동지는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의 결성과 관련하여 민족 문제에 관한 연설을 하였다。一九二三년에 그는「당 건설과 국가 건설에 있어서의 민족적 제모멘트」에 관하여, 제十二차 당 대회에 제출한 로씨야 공산당(볼쉐위끼) 중앙 위원회의 테제를 썼으며, 또 당 대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보고하였다。一九二三년 六월에 이·브·쓰딸린은 로씨야 공산당(볼쉐위끼) 중앙 위원회와 민족 공화국 및

민족주(州) 책임 일꾼들과의 제四차 협의회의 사업을 지도하였으며 이 협의회에서「민족 문제에 관한 제十二차 당 대회 결정의 실천에 관한 실제적 제대책」이라는 보고를 하였다。

쓰딸린 동지의 이러한 연설, 보고 및 론문들은 민족 문제에 관한 맑쓰—레닌주의 리론에의 고귀한 기여로 되여 있다。「맑쓰주의와 민족 문제」(一九一三년)라는 쓰딸린 동지의 저명한 저서와 또한 볼쉐위크들의 四월 콘페렌치야에서의 민족 문제에 관한 그의 보고에서 쓰딸린 동지에 의하여 발전된 사상과 명제들이 상술한 쓰딸린의 로작들에서 더 한층 강구되여 있다。이 로작들에서는 우리 나라에서의 민족 문제에 관한 볼쉐위크적 해결의 실천적 강령이 백방으로 강구되여 있으며, 또한 인민들의 평등과 친선에 관한 레닌—쓰딸린적 이데올로기의 주요한 원칙들이 규정되여 있으며, 그리하여 볼쉐위끼당은 이 정신으로써 우리 나라의 모든 인민들을 교양하고 있는 것이다。

제十二차 당 대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이·브·쓰딸린이 서술한 보고 테제와 또 이 대회에서 그가 진술한 보고「당 건설과 국가 건설에 있어서의 민족적 제모멘트」는 당 생활에 있어서 거대한 리론적 및 정치적 의의를 가지였으며 또 가지고 있다。

이 테제와 보고에서 민족 문제에 관한 맑쓰—레닌주의적 리론을 강구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전세기 말부터 부르죠아 다민족 국가들에서 두개의 기본적인 경향—일방으로는 민족적 폐쇄성(閉鎖性)의 소멸, 제민족의 경제적 접근, 광대한 지역의 하나의 련관된 전체에로의 점차적인 통일에로 향하는 경향과 타방으로는 인민들의 경제적 통일의 강제적인 형태의 소멸과 피압박 인민 및 예속 민족들의 제국주의적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에로 향하는 경향—의 투쟁 속에서 이루어진 민족적 관계의 변증법을 밝히였다。력사적 분석의 기초 위에서 쓰딸린 동지는「민족들의 경제적 련합의 행정과 그 련합의 제국주의적 방법 간의 불상용적 모순은 부르죠아지가 민족 문제의 정당한 해결에 도달하기에 무능하며 무원(無援)하며 무력함을 제약하였다」(二二一폐지)고 론증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적 건설에로 넘어가는 一九二二—一九二三년의 제조건 하에서 민족 문제는 우리의 다민족 국가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가지였었다。우리 나라의 각 민족에 대한 당의 옳바른 정책이 없이는 국제 자본주의의 면전에서 모든 민족들의 근로자들의 통일을 보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민족들에 대한 당의 옳바른 정책이 없이는 그들을 사회주의의 건설에 끌어 들이며, 변강들의 경제적 및 문화적 락후성을 극복하며, 우리 나라들의 모든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옳바른 민족 정책이 없이는, 민족주의, 배타적 애국

주의에 대한 결정적인 투쟁이 없이는 당은 과거에 압박 받던 민족들의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서 확고한 신뢰를 얻지 못하였을 것이며 또한 그들을 서로 친선하며, 서로 존경하며, 대로씨야 인민을 존경하는 정신으로써 교양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민족 문제의 분야에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전련방 내 프로레타리아트의 가장 문명한 층을 대표하는 이전 강국의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 주로 이전 피압박 민족들의 농민과의 사이에 옳바른 상호 관계를 설정할 데 관한 문제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민족 문제의 계급적 본질이 있는 것이다. 만일 프로레타리아트가 수十년 동안 짜리즘의 정책에 의하여 배양되였고 뿌리박힌 로씨야 사람 전체에게 대한 불신임의 잔재 일체를 없애 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민족(異民族) 농민들과 설정함에 성공한다면 그밖에 또 만일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가 완전한 상호 리해와 신임을 획득하며 프로레타리아트와 로씨야 농민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이전 피압박 민족들의 프로레타리아트 및 농민들 사이에서도 역시 진정한 동맹을 설정함에 성공한다면 과업은 다 해결된 것과 다름 없을 것이다」(二九一페지).

쏘베트 국가에서의 민족 문제의 옳바른 해결은 다만 국내적인 의의 뿐만 아니라 또한 의심없이 국제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로씨야와 같은 그러한 다민족 국가에 있어서의 민족 문제 해결 여하에 따라서 압박 받는 식민지와 반식민지 인민들의 동정을 쏘베트 국가 편에 전취하는 문제가 좌우되였었다. 볼쉐위크들에 의한 민족 문제의 실제적 해결 여하에 따라서 인종론을 반대하며 피압박 인민들의 「렬등성(劣等性)」에 관한 허위적인 부르죠아적 전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성공과 또한 자국의 제국주의 정부와 싸우기를 원치 않으며 또 외국의 식민지적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피압박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할 능력이 없는 지배적 민족들의 「사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국주의적인 배타적 애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성공이 좌우되는 것이였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민족 문제의 옳바른 해결이 가지는 국제적 의의를 강조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제十二차 당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우리는 운명의 의사에 의하여 누구보다도 앞장에 나서서 전(全) 자본주의의 전선을 돌파하였던 것이다……전동방이 우리 공화국 동맹을 실험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동맹의 범위 내에서 민족 문제를 그 실천적 적용에 있어서 옳게 해결하게 되거나 혹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동맹의 범위 내에서 제민족 간의 진실한 형제적 관계, 진실한 협력을 설정하게 된다면 그 때에는 전동방이 우리의 련방을 해방의 기치로 선진 부대로, 간주하게 될 것인 바 전동방은 이 선진 부대의 뒤를 반드시 따라가게 될 것이니 이것은 세계 제국주의의 멸망의 단서가 될 것이다. 혹은 우리가 여기서 오유를 범하며,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에 대한 이전 피압박 민족들의 신임을 파란시키며, 공화국 동맹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동방의 눈초리를 이쪽에 끄으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때에는 제국주의가 승리하고 우리는 패망할 것이다.

여기에 민족 문제의 국제적 의의가 있다」(二八七、二八八、二八九페지).

민족 문제에 있어서의 당의 정책을 강구하며 그의 실현을 지도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민족 문제에 관한 맑쓰—레닌주의적 리론을 발전시키였으며 전후 자본주의의 시기에 있어서의 민족 간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쏘베트 국가의 제조건 하에서의 민족들 간의 새로운 친선 관계 창설의 경험으로써 맑쓰—레닌주의적 리론을 더욱 풍부케 하였다.

무장 간섭자들과 백위군들을 반대하는 전쟁이 끝나던 시기까지에, 즉 一九二一년까지에 볼쉐위끼당은 민족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미 현저한 성과들을 거두었었다. 짜리즘의 민족적 압박은 이미 청산되였었다.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우크라이나, 백로씨야, 그루지야, 아르메니야, 아제르바이쟌—과 민족 쏘베트 공화국들—호레즘 및 부하라—이 창건되였으며, 허다한 자치 공화국과 자치 주들이 형성되였었다. 우리 나라의 각종 민족들 사이에 있은 과거의 불신임과 불화가 점차로 소멸되였으며 이 점은 「변강들」의 근로 대중이 로씨야의 로동자 및 농민들과 손에 손을 잡고 무장 간섭자 및 백위군들을 반대하여 싸우던 공민 전쟁 시기에 이미 명백히 나타났었다.

쓰딸린 동지는 「민족 문제에 있어서의 당의 당면 제과업에 관하여」라는 테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로씨야에 있어서의 쏘베트 제도의 수립과 국가적 분리에 대한 민족들의 권리 선포는 로씨야 내(內) 제민족들의 근로 대중들 간의 관계를 전변시켜 놓았으며, 낡은 민족적 반목을 근절하였으며, 민족적 압박의 지반을 소멸시켰으며, 로씨야 로동자들로 하여금 로씨야에서 뿐만 아니라 구라파와 아세아에서 까지도 그들의 민족적 형제들의 신임을 얻게 하였고 그 신임을 열정에까지, 즉 공동적 사업을 위하여 투쟁하기에 주저치 않으리만큼 제고시켰다.……자국 내에서 민족적 반목과 민족적 압박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또한 서방과 동방의 민족들의 근로 대중측으로부터의 신임과 열정이 없었다면 로씨야 로동자들이 꼴챠크와 제니낀을 타승할 수 없었을 것이며 아제르바이쟌 및 아르메니야 공화국들이 일어서지 못하였으리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서 말할 수 있다」(二七—二八페지).

그러나 이 시기에 쏘베트 국가에서 민족 문제가 완

전혀 해결되었다고는 아직 인정할 수 없었다。 짜리즘의 곤난한 유산 ── 변강들의 경제적 및 문화적 락후성 ──을 청산하며 민족들의 경제 상 및 문화 상의 실제적 불평등을 실지로 청산하도록 보장하며, 그리하여 그 발전에 있어서 중앙 로씨야보다 뒤떨어진 이전의 피압박 민족들로 하여금 경제적 및 문화적 방면에 있어서 중앙 로씨야를 따라가도록 하여야 만 되였었다。

「이 민족적 불평등의 본질은 우리가 력사적 발전에 의하여 과거로부터 유산을 넘겨 받았으며 그리고 그 유산 때문에 한개의 민족, 즉 대로씨야 민족이 정치적 및 산업적 관계에 있어서 다른 민족들보다 더 발전되여 있다는 그 점에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한해 동안에는 퇴치할 수 없으나 박후된 민족과 인민들에게 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 방조를 줌으로써 반드시 퇴치되여야 할 실지적 불평등이 있게 되는 것이다」(四四페지) 라고 쓰딸린은 제十차 당 대회에서 말하였다。

구 로씨야 인민들의 이 실제적 불평등은 피압박 민족들에 대한 짜리즘의 정책, 즉 지주 및 부르죠아지의 정책의 결과인 바 그 정책의 목적은 그들 속에서 온갖 민족적 국가의 맹아를 절식시키며, 그들의 문화를 기형적인 것으로 되게 하며, 억압하며, 그들의 언어를 구속하며, 박해하는 데 있었다。

쏘베트 국가에 있어서의 민족 문제의 본질은 짜리 로씨야로부터 계승 받은 우리 나라의 많은 민족들의 경제 상, 정치상 및 문화 상의 실제적 락후성을 퇴치하도록 하며 또한 국가적, 경제적 및 문화적 관계에 있어서 중앙 로씨야를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이 민족들에게 지여주는 데 있다는 것을 쓰딸린 동지는 그의 로작들에서 말하였다。

「……당의 과업은 비(非) 대로씨야 민족의 근로 대중이 앞서 나간 중앙 로씨야를 따라가도록 원조하여 주며 또 그들에게

(ㄱ) 이 인민들의 민족적 상모(相貌)에 적합한 형식으로써 쏘베트 국권(國權)을 자체 내에서 발전 강화하며,

(ㄴ) 지방 주민의 풍습과 심리를 아는 지방 사람들로써 구성되여 있으며 모국어를 사용하는 재판, 행정, 경제 기관 및 주권 기관을 자체 내에 수립하며,

(ㄷ) 자체 내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출판물, 학교, 극장, 구락부 사업 및 일반 문화 계몽 기관을 발전시키게끔 원조하여 주는 데 있는 것이다」(三二──三三페지)。

쏘베트 인민들의 민족적 쏘베트 국권(國權)과 민족적 쏘베트 문화의 발전에 대한 이 레닌─쓰딸린적 강령은 모든 쏘베트 공화국 및 주들에서의 당 및 쏘베트 주권의 활동의 기초로 되였다。

불쉐위끼 당은 쏘련에 있어서의 민족 문제 해결의 레닌─쓰딸린적 강령을 실현하였다。 우리 나라의 매개

인민은 자기의 민족적 쏘베트 국권을 얻어냈으며, 국가 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기의 민족 간부를 양성하였으며, 또한 형식에 있어서 민족적이며, 내용에 있어서 사회주의적인 자기의 문화를 발전시키였다。「변강」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 락후성은 영원히 소멸되였다。

쏘련의 모든 민족들의 근로자들은 대로씨야 인민의 방조 하에서, 레닌─쓰딸린당의 령도 하에서 자기의 경제 기구를 사회주의적 원칙으로써 개조하였으며 사회주의 사회의 열성적인 건설자로 되였다。 우리 나라에는 과거에 있은 바와 같은 민족적 불화가 전혀 없다。 즉 쏘련의 동등권 있는 인민들의 친선이 우리의 사회 생활의 법칙으로 되여진 것이다。 과거의 피압박 인민들의 생활에 있어서의 이 모든 위대한 변화들이 가능한 것으로 되여진 것은 공산당이 민족 문제에 있어서의 레닌─쓰딸린적 정책을 철저히 실시한 때문이다。

다민족 쏘베트 국가의 건설에 적용된 레닌─쓰딸린적 민족 정책의 제원칙은 조국 전쟁의 시기──쏘베트 동맹에 대한 팟쇼 독일의 배신적인 침공이 쏘베트 공화국들의 존재와 쏘련의 인민들의 자유 및 독립에 대한 위협을 조성한 때에 현저한 성과가 나타났다。 팟쇼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 사람같이 궐기한 쏘련의 모든 인민들의 우의적인 협력은 쏘련 인민들이 당하고 있었던 위협── 그들의 국가적 및 민족적 독립을 파멸시키려고 한 위협을 일소하였다。 일시적으로 독일 팟쇼 강점자들의 정권 하에 들어가게 되였던 우끄라이나, 백로씨야, 리뜨바, 라뜨비야, 에쓰또니야, 몰다비야 및 까레로─휜 공화국의 령토는 쏘련의 모든 인민들, 특히 대로씨야 인민의 형제적인 원조의 덕택으로써 해방되였다。

민족 문제에 관한 쓰딸린 동지의 모든 연설과 론문들에 있어서 민족 문제에 대하여서는 로골적으로 제국주의적이며, 또한 사회─배외 애국주의적인 리론을 비판하며 폭로한 것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민족 문제의 설정에 대하여」(一九二一년)라는 자기 론문에 있어서 쓰딸린 동지는 민족 문제에 대한 공산주의적 견해와 이 문제에 대한 사이비(似而非) 사회주의적이며 기회주의적 견해와는 원칙적으로 정반대된다는 것을 해명하고 있다。 비록 제二 인터내쇼날의 「사회주의자들」이 완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 구라파 민족들의 민족적 해방을 위한 투쟁의 필요성을 때때로 말하였다고 할찌언정 그러나 그들은 아세아와 아프리카의 식민지 인민들을 제국주의의 압박으로부터 해방할 데 관한 문제는 전혀 제기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식민지 인민들의 해방과 온갖 민족적 압박의 결정적인 청산을 요구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었다。 비록 제二 인터내쇼날、

의「사회주의자들」이 때때로 피압박 민족들의 자결권에 관하여 말하였다 할찌라도 그들은 이 권리를 다만 민족—문화 자치를 요구하는 데로 귀착시키였다。공산주의자들은 국가적 분리에까지 이르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위한 꾸준한 투쟁을 실시하는 것이다。

제二인터내쇼날의「사회주의자들」은 민족 문제를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관한 문제와 관련이 없이 고찰하였으며 또한 민족 문제를 자본의 주권의 전복이 없이 부르죠아 사회의 범주 내에서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즉

「(一)민족 문제와 식민지 문제는 자본의 주권으로부터의 해방에 관한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二)제국주의(자본주의의 최고 형태)는 완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 민족과 식민지들을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노예화함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三)완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 민족과 식민지들은 자본의 정권을 전복함이 없이는 해방될 수 없다。

(四)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는 완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 민족과 식민지들을 제국주의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킴이 없이는 확고하여 질 수 없다」(六九—七○페지)。

력사적 경험은 민족적 평등에 관한 제二인터내쇼날의「사회주의자들」의 공담이 공허한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이「사회주의자들」—례하면 영국에서의 레이버 당원들—은 주권을 장악하고나서 민족들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하등의 대책도 취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은 식민지 인민들을 압박하는 제국주의적 정책을 계속하는 것이며 그 것을「민주주의적」문구로써 은페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 문제에 대한 사회 민주주의적 견해들에 내린 쓰딸린적 비판과 주요한 자본주의 나라들의「사회」당들의 배외주의적 정책에 대한 폭로—전집 제五권에 들어 있는 로작들에서 부여된—는 현 시기에 있어서도 그의 힘과 의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민족 문제에 대한 쓰딸린 동지의 로작들은 온갖 형식의 민족주의와 배외주의, 즉 과거의 지배적 민족의 착취 계급들로부터 나오는 대국주의적인 배외주의와 또한 지방주의적인 민족주의를 반대하는데 예리하였었다。쓰딸린 동지는 그루지야 공산당 찌플리쓰 단체의 총회에서「그루지야와 자깝가즈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의 당면 제과업에 관하여」(一九二一년 七월 六일) 진술한 자기의 보고에서 그루지야, 아르메니야, 아제르바이쟌의 민족주의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내리었었다。그런데 이 민족주의는 자깝가즈에서 자깝가즈의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사수하던 민족주의적 부르죠

아당들—아르메니야에서의 다스나크들, 아제르바이쟌에서의 무싸와찌스트들, 그루지야에서의 멘쉐위크들—이 여기에서 여러해 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관계로 강화된 것이다。쓰딸린 동지는 그루지야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서 민족주의와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며 그루지야의 민족주의적, 멘쉐위끼적 정부가 출현하기 전 까지에 존재하던 형제적인 국제주의적 련결을 복구하며 각종 민족들의 근로자들 사이에 호상 신임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과업을 그 당시 제기하였었다。민족주의적 잔재들을 반드시 작열(灼熱)한 철(鉄)로써 그 것을 지져(燒) 버려야 하며, 민족주의의 괴사(怪蛇)를 반드시 압살하고 국제주의의 건전한 분위기를 반드시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쓰딸린 동지는 지적하였다。

그루지야의 공산당원들은 쓰딸린 동지의 이 지시들을 실현하면서 뜨로쯔끼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민족—편향자들을 격파하였으며 또한 전체 까자크 인민들 사이의 형제적 협력의 강화와 대로씨야 민족과의 튼튼한 친선 관계를 맺음에 성공하였었다。

민족 공화국들의 요구와 욕망을 고려하지 않으며, 우리 나라의 각 민족들의 문화와 언어를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며, 동맹 공화국 및 자치 공화국들의 존재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는 일부의 당 일군과 쏘베트 일군들의 행동과 기분 가운데에 나타난 대국주의적 배타주의에로의 편향을 반대하며, 레닌적 민족 정책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야 할 필요성이 제十차 당 대회와 제十二차 당 대회에 보내는 쓰딸린 동지의 테제 및 테제에 대한 그의 보고들에 강력히 강조되여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또한 지방 민족주의에로의 편향을 반대하는 결정적인 투쟁의 필요성이 강조되여 있는 것이다。그런데 이 지방 민족주의는 민족적 할거심(割據心)을 배양하였으며, 로씨야 로동 계급에 대한 과거의 피압박 민족들의 불신임을 부식하였으며, 쏘련의 모든 인민들의 친선과 형제적 협력의 수립을 루차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제十二차 당 대회에서의 결론에서 쓰딸린 동지는 지방 민족주의의 해독에 관한 문제를 상정치 말 것을 제의한 부하린 및 라꼬브쓰끼라는가 그 당시 숨어 있던 기타의 당과 인민의 원쑤들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두 전선에서의 투쟁, 즉 대로씨야 배외 애국주의를 반대하는 로씨야 공산주의자들의 투쟁과 지방 배외 애국주의를 반대하는 비로씨야인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었다。

一九二三년 六월에 당 중앙 위원회의 주최 밑에 열린 민족 공화국 및 민족 주(州)의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진술한 연설에서 쓰딸린 동지는 민족 공화국 및 민족 주들에서 진정한 볼쉐위끼적 당 간부들을 육성하며 교양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한 장애물인 민족주의를 반대

하는 이데올로기 투쟁에 관한 문제를 날카롭게 내세웠었다。

「민족주의——이것은 각 변강들과 각 공화국들에서 맑쓰주의적 간부들, 즉 맑쓰주의적 선봉대를 양성하여 내는 행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상적 장애물인 것이다。 우리 당의 력사는 볼쉐위끼당이 로씨야 지역에 있어서 멘쉐위즘과 투쟁하면서 장성 강화하여 졌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왜 그러냐 하면 멘쉐위즘은 부르죠아지의 이데올로기이며 멘쉐위즘은 부르죠아 이데올로기를 우리 당에 도입하는 안내자이므로 멘쉐위즘을 극복함이 없이는 볼쉐위끼당이 튼튼하여 질 수가 없었던 까닭이다。 일리츠는 이에 대하여 여러번 썼다。 볼쉐위즘이 그의 조직적 및 이데올로기적 형태에 있어서 멘쉐위즘을 극복하는 정도에 따라서 만이 볼쉐위즘은 진실한 지도적 당으로 장성하였고 강화되였던 것이다。 각 변강들과 각 공화국들에 있는 우리의 공산당 단체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족주의에 대하여도 역시 그렇게 말하여야 될 것이다。 민족주의는 이 단체들에 대하여 멘쉐위즘이 이전에 볼쉐위끼당에 대하여 하던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민족주의적 은폐물을 통하여서 만이 멘쉐위끼적 요소도 포함한 각종의 부르죠아적 영향들이 변강에 있는 우리의 단체들에 침투하여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三七九페지) 라고 쓰딸린 동지는 말하였었다。

민족주의자, 뜨로쯔끼주의자, 부하린 도배 및 기타 레닌주의의 원쑤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폭로하며 쏘베트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민족주의적 편견들을 극복하면서 볼쉐위끼당은 쏘련의 모든 공화국과 주들에서 민족주의와 투쟁하며, 민족주의를 근절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맑쓰주의적으로 단련된 볼쉐위끼적 간부들을 길러 냈으며, 또 당은 지나간 二十五년 동안에 쏘련의 모든 민족들의 근로자들을 민족친선의 정신으로써 교양하였으며, 전체 쏘베트 인민의 사상—정치적 통일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쏘련 공민의 의식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잔재는 민족 문제의 분야에 있어서 지금도 아직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외국 제국주의적 부르죠아지는 이것을 백방으로 재생시키려고 애쓰는 것이며, 그러한 노력은 특히 독일 팟쇼가 우리 나라의 일부를 강점하고 있던 시기에 나타났었다。 볼쉐위끼당에 의하여 분쇄된 민족주의적 당과 그루빠의 부스러기들은 현재 이런 또는 저런 자본주의의 렬강의 제국주의적 부르죠아지의 종복과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하여 우리 나라의 인민들 사이에 과거의 민족적 불화를 부활시키며, 그들 사이에 적개심을 부식하며, 그들에게 있어서 로씨야 인민에 대한 불신임을 발생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써 그들은 쏘련 인민의 모든 과거의 력사는 다만,

그들을 분리하였을 뿐이고 그들을 서로 접근시키지는 아니한 것같이 묘사하면서 력사를 외곡하는 것이며, 또한 쏘베트 정권 시대에 쏘련 인민들이 거둔 거대한 성과들을 저락시키며 중상하기 위하여 인민들의 가부장적이며, 봉건적인 과거를 리상화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목적으로써 그들은 자본주의적 서구라파 앞에 굽어 엎드리면서, 쏘련 인민들의 문화를 대로씨야 민족의 문화에 대립시키는 것이며 또한 우끄라이나, 백로씨야, 발찍 연해 제국 및 기타 우리 나라의 제인민들의 문화는 서구라파의 부르죠아—지주 문화를 섭취하며 이를 배운 결과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공민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자본주의적 잔재를 숙청하며 모든 쏘베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자각성의 정신으로써 교양하기 위하여는 민족 간의 적개심이라는 유해한 병균을 산포하려고 시도하며, 또한 외국의 제국주의적 부르죠아지의 병기고로부터 취하여 온 그리고 쏘베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그들에게 주입하려고 시도하는 민족주의를 끝까지 폭로하며 완전히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이데올로기 전선에 있어서와 민족주의적 편견——이것은 자본주의의 가장 생활력 있으며 가장 위험한 잔재의 하나이다——을 극복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의 간부들에게 평가할 수 없으리만큼 고귀한 원조를 주고 있는 것은 쓰딸린 전집 제五권에 들어 있는 민족 문제에 관한 쓰딸린 동지의 로작들인 것이다。

* * *

프로레타리아트 당의 전략과 전술 문제에 관한 로작들로서 쓰딸린 동지의 전집 제五권에 들어 있는 것들을 가장 위대한 리론적 가치를 표시하고 있다。

전집 제五권에 들어 있는 것으로서 처음으로 발표된 팜프레트 초고 「로씨야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 전략 전술에 관하여」 (一九二一년) 와 론문 「정권 장악 전과 그 후의 당」 (一九二一년), 「로씨야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전술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一九二三년), 「十월 혁명과 중간층들에 관한 문제」 (一九二三년) 및 기타의 쓰딸린 동지의 로작들은 이 시기에 쓰딸린 동지가 강구하여 낸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 당의 전략과 전술의 기본적 명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쓰딸린의 팜프레트 초고 「로씨야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전술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당 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깊이 맑쓰주의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였었고 또 능숙하게 이를 해결한 표본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쓰딸린 동지는 이 팜프레트 초고에 있어서 연구 대상 및 술어들 (리론, 강령, 전략, 전술,

선동 구호, 행동 구호 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당은 자기의 전략과 전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로동운동의 객관적 면과 주관적 면을 고려한다는 관점으로부터 쓰딸린 동지는 출발하고 있다。 전략과 전술의 행동 분야로 되는 것은 운동의 주관적 면이다。

「객관적 면——쓰딸린 동지는 이렇게 썼었다——이것은 프로레타리아트와 그들의 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프로레타리아트의 외부에서와 그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발전의 제행정이며, 결국 전사회의 발전을 결정하는 제행정이다。 주관적 면——이것은 객관적 제행정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의식에의 반영으로서 프로레타리아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정이며 이것은 객관적 제행정의 진도를 혹은 촉진시키며 혹은 지연시키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 제행정을 결정하지는 못하는 제행정이다」(七六페지)。

다음으로 쓰딸린 동지는 맑쓰주의의 리론과 강령 사이의 차이를 론증하고 있다。

「맑쓰주의의 리론은 무엇보다도 먼저 객관적 제행정을 그것들의 발전과 소멸에 있어서 연구함으로써 발전의 경향을 확정하며 불가피적으로 주권에로 궐기하게 될 계급은 어느 계급이며, 혹은 불가피적으로 몰락할 것이며 또 몰락하지 않을 수 없는 계급은 어느 계급인가를 교시하여 준다。

……맑쓰주의의 강령은 리론의 제결론에 립각하여 자본주의 발전의 일정한 시기에 공하여서의 혹은 자본주의의 전(全) 시기에 공하여서의 궐기하는 계급의——이 경우에 있어서는 프로레타리아트의——운동의 목적을 규정하여 준다」(최저 강령과 최고 강령)(七七페지)。

이에 계속하여 쓰딸린 동지는 당의 전략과 전술 사이의 차이를 정식화(定式化)하고 있다。 「전략 이것은 강령의 제교시를 지침으로 삼고 또 내부적(국적) 및 국제적 투쟁 력량들을 참작하여 일반적인 로선, 일반적인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 방향에 따라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 운동은 추진되여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발생 발전하는 제력량의 호상 관계 하에서 최대한 성과를 달성하는 관점에서 추진되여야 한다。 이러한 것들에 상응하여 전략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력량과 사회 전선에서의 그의 동맹자들의 력량의 배치 도식(일반적 병력 전개)을 작성한다。 「제력량의 배치 도식의 작성」을 전술과 전략에 의하여 동시에 실시하게 되는 세력 배치—포치(布置)에 관한(구체적—실천적인) 사업 그 자체와 혼동하지 말 것이다。 이것은 전략이란 로선을 확정하며 또 프로레타리아트 진영 내의 제전투 력량의 배치 도식들을 작성하는 데 국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반대로 전략은 자기 관리 하에 있는 후비군들을 교묘하게 리용하며 전술을

방조할 목적으로 기동답으로써 전(全) 전환기에 공하여 투쟁을 지도하며 당면한 전술을 수정하여 주는 것이다」

「……전술 이것은 전략의 제교시와 자국 내에서와 면접 제국에서의 혁명 운동의 제경험을 지침으로 삼고 또 소여의 각개 모멘트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와 그의 동맹자들의 내부에 있어서의 력량 상태(문화 정도의 고저, 조직성과 의식 정도의 고저, 어떤 전통들이 있는가, 기본적 및 부차적인 운동 형태와 조직 형태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와 또한 적의 진영 내에 있어서의 력량 상태를 참작하며 그리고 적의 진영 내에 있어서의 부조화와 온갖 혼란성을 리용하여 가지고 광범한 대중들을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의 편으로 쟁취하여 오며 또 사회 전선에 있어서의 전투적 진지에로 그 대중들을 인도하는(전략상 계획에 기초하여 작성된 력량 배치 도식의 집행으로서) 구체적 방침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그 방침들은 전략의 제성공을 가장 정확히 준비하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이러한 것들에 상응하여 전술은 당의 표어들과 지령들을 주기도 하며 변경하기도 한다」(七七—七八페지)。

당의 전략이라는 것은 일정한 력사적 시기(한개의 력사적 전변으로부터 다른 력사적 전변에 이르는 시기)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리해 관계를 포괄하는 일정한 전반적 목적에로 프로레타리아트 운동을 지도하며 또한 이 전기간을 충만시키고 있는 계급 간의 전쟁을 승리하려고 지향하는 것이고 또 당의 전술이라는 것은 계급 간의 모든 전쟁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전체 전쟁의 승리 또는 패배에로 인도하는 그의 개별적 전투만을 포괄하며, 따라서 전략의 기간을 통하여 몇번이라도 변경될 수 있는 것인 바 쓰딸린 동지는 당의 력사의 구체적 자료에 근거하여 이 량자 간의 호상 관계를 론증하였다。

이·브·쓰딸린은 당의 전략과 전술 사이의 호상 작용을 해부하였다。

「전술의 과업은 투쟁이 총체적으로 보아서 전쟁의 승리를, 다시 말하면 전략 상 성공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대중을 투쟁에로 인도하며, 그런 표어들을 내여 놓으며, 그렇게 대중을 새 진지에로 인도하는 데 있다」(七九페지)。 쓰딸린 동지는 로동 운동의 만조와 퇴조에 따라서 또 투쟁의 모든 요인과 시간 및 장소의 제조건 등등을 참작하여 당의 전술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론증하고 있다。

바로 이 팜프레트 초고와 론문 「정권 장악 전과 그 후의 당」에 있어서 쓰딸린 동지는 一九一七년까지의 당의 력사적 발전에 대한 도식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그 후에 그가 작성한 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 력사의 시대 구분(時代區分)의 토대로 되였었다。

바로 여기에서 이·브·쓰딸린은 당이 타협주의자들과 싸워야 할 력사적 필요성 및 합법칙성을 론증하고 있다。

「레닌이 ·········타협주의자들과 타협 없는 투쟁을 전개한 것이 옳은 일이였던가? 물론 옳은 일이였던 것이다。왜나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당은 범벅이 되여 약해졌을 것이며, 조직체인 것이 아니라 각종 분자들의 혼합물이 되여 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며, 당과 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쏘베트 정권이 그것 없이는 세계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워낼 수 없었을 것인 그러한 내부 결합과 단결성, 그러한 류례 없는 규률과 전대 미문의 신축자재성을 당이 가지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당은 자체를 깨끗이 함으로써 공고화된다」라고 랏싸르는 옳바르게 말하였다」(八七—八八페지)라고 쓰딸린 동지는 썼다。

바로 이 팜프레트 초고에서 이·브·쓰딸린은 二十세기 초에 있어서도 마치 로씨야 전제 제도가 여전히 구라파의 헌병으로 남아 있는 듯이 말하는 류행적인 의견을 반박하였었다。

「사실들은, 로씨야 전제 제도는 심지어 자국의 로동 계급조차도 구라파 자본의 원조가 없이는 이를 처치할 형편에 있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로씨야의 로동 계급이 잠자고 있었고 로씨야의 농민들이 짜리·아버지에 대하여 아직껏 신뢰심을 갖고 있으면서 동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 로씨야 전제 제도는 사실 상 구라파의 헌병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그러나 一九〇五년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一九〇五년 一월 九일의 총소리는 로씨야·프로레타리아트를 각성시켰고 동년의 농민 운동은 짜리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심을 깨뜨려 버렸다。현재에 있어서는 구라파 반혁명의 중심은 로씨야 지주들로부터 영·불의 은행가—제국주의자들에게로 이전되여 있다。구라파의 헌병인 로씨야 전제 제도와 싸운다는 전쟁의 진보성을 구실로 하여 가지고 一九一四년 프로레타리아트에 대한 자기의 변절을 변명하려고 시도한 독일 사회 민주주의자들은 사실인즉 자기의 과거의 그림자를 최후의 방패로서 내놓았으나 이 것은 물론 얼토당토 않게 내놓은 것이다。왜냐 하면 헌병으로 되는 데 충분한 력량과 수단을 가지고 있는 구라파의 진짜 헌병들은 뻬뜨로그라드에 앉아 있은 것이 아니라 베를린, 파리, 런던에 앉아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는 구라파가 로씨야에 사회주의를 수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짜리에게 주는 공채 등등의 형식으로써 반혁명까지 수송하고 있으나 로씨야는 구라파에다 정치 망명객들 외에 또 혁명을 수송하고 있다는 것이 누구에게도 명백히 알려져 있는 바이다」(八九—九〇페지)라고 쓰딸린 동지는 썼다。

쓰딸린 동지의 이 원칙적인 지적은 력사적 사실에

대한 제二 인터내쇼날의 사회—배외 애국주의자들의 외곡을 폭로하였었다。

「로씨야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전술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一九二三년)라는 론문—이 론문의 기본으로 된 것은 쓰딸린 동지가 뻬레쓰벤쓰크 구역 로동자 구락부에서와 「쓰웨르들로브」대학의 공산당원 프락치야에서 진술한 강의이다—에서 이·브·쓰딸린이 당의 전략과 전술에 관하여 팜프레트 초고(一九二一년)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력사적 실례들에 의하여 상세하게 설명되였으며 해석되였었다。여기에서 쓰딸린 동지는 볼쉐위끼당의 발전의 각 계단에 따르는 그의 력사적 경험을 토대로 하여 레닌적 전략 계획의 정당성을 립증하였으며 부르죠아 반혁명파 고의 멘쉐위크—에쎄르적 종복들의 전략 계획의 파탄을 립증하였다。

「十월 혁명과 중간층들에 관한 문제」라는 론문에서 쓰딸린 동지는 구라파와 로씨야 혁명의 경험을, 총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즉「특히 우리 공화국 동방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프로레타리아트는 중간층들—무엇보다도 먼저 농민들—의 동정과 지지가 없이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만일 이 층들이 적어도 중립화되여 있지 않다면, 만일 이 층들이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아직도 분리되여 있지 못한다면, 만일 그들이 아직도 대중적으로 자본의 군대를 이루고 있다면 프로레타리아트는 정권 장악에 관해서는 공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四一九—四二〇페지)。

구라파 및 로씨야 혁명의 력사적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쓰딸린 동지는 카우츠키와 그 도당들—그들은 사회의 중간층 특히 농민층은 원래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원쑤로나 되는 듯한 그러한 허위적「론거」에 근거하여 프로레타리아트를 혁명 반대의 방향으로 경고하였었다—의 반볼쉐위끼적 리론의 기회주의적 본질과 야비한 성격을 폭로하고 있다。쓰딸린 동지는 다음과 같은 것을 론증하고 있다。즉「전체 맑쓰주의자들 중에서도 가장 원칙적인 맑쓰주의자인 맑쓰는 농민들의 존재를 무시하지 말며, 그들을 프로레타리아트의 편에 쟁취하며, 이리하여 미래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에서 그들의 원조를 받도록 할 것을 공산주의자들의 당에 루루히 권고하고 있었다」(四二一페지)는 것이다。

쓰딸린 동지의 이 로작은 그의 기타의 로작들과 마찬가지로 또한 역시 트로쯔끼주의자 및 기타 레닌주의의 원쑤들을 반대하여 그의 칼날을 돌린 것이었다。그런데 레닌주의의 이 원쑤들은 농민 층의 혁명성을 부인하였으며 또한 프로레타리아트가 농민층을 이끌고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에로 향하여 나간다는 그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이 로작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명백하게 또 확신성 있게 증명하였었다。즉「농민들을 쟁취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회주의의 기치 하에,

서 지행되였다。프로레타리아트의 손으로부터 토지를 받고、프로레타리아트의 원조 밑에 지주들을 타승하고、프로레타리아트의 지도 하에 정권에까지 오르게 된 농민들——그들은 자기네들의 해방 과정이 프로레타리아트의 기치 하에서。그의 붉은 깃발 아래서 지행되였으며 또 앞으로도 지행되리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리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이 사정은 이전에는 농민들에게 위혁물(威嚇物)로 되여 있던 사회주의의 기치를 천대、빈궁、압박으로부터의 그들의 해방을 용이하게 하는 기치、그들이 우러러 보는 기치로 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四二四페지)。로씨야에서 十월 혁명이 승리한 결과에 또한 역시 사회주의의 기치 하에서 되였고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피압박 민족들에 대하여도 역시 많은 정도로 이와 꼭 같이 말하여야 한다고 쓰딸린 동지는 말하는 것이다。

실생활과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단지 로동 계급의 재산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립증하였다。이 이데올로기는 광범한 근로 농민 대중과 이전의 피압박 민족들의 근로자들의 의식 속에 침투되였었다。사회주의 혁명의 동력과 후비군에 관한 레닌—쓰딸린적 학설의 정당성과 위대한 힘이 이 점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당의 전략과 전술에 관한 레닌—쓰딸린적 리론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요인으로 된 것은 당 건설의 아주 중요한 원칙들에 대한 쓰딸린 동지의 해명이다。쓰딸린 동지는 一九二一년의 직업 동맹에 관한 론쟁 시와 一九二三년의 당내 정세에 관한 론쟁 시기에 이 문제에 대하여 루차 주의를 돌리였었다。

「당의 제과업에 관하여」라는 자기 론문에서 쓰딸린 동지는 다음과 같이 론증하였다。즉 「당은 동일한 의사를 가진 자들의 동맹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 외에 동일한 행동을 하는 자들의 동맹、즉 공통한 사상적 토대(강령 전술)의 기초 위에서 투쟁하는 동일한 행동을 하는 자들의 전투적 동맹인 것이다」(四五四페지)。

당에 관한 레닌의 학설을 발전시키면서 쓰딸린 동지는 당이라는 것은 자원적 원칙 위에서 하부로부터 조직된 프로레타리아트의 선진 부대이라는 것과 또한 당 규률이라는 것은 당의 위대한 사업의 정당성을 당원들이 확신하는 기초 위에서 조성되는 자각적인 것으로 되여야 한다는 것을 당 간부들에게 가르쳤다。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고 허위적으로 떠들어 대는 방법으로써 당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고 노력한 소위「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주의자들」의 배신적 활동을 폭로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당내 민주주의의 본질을 규정하였다。

「……민주주의에는 두가지가 있는듯 하다。즉 당저

도 사업에 있어서의 독자적 활동과 그에의 적극적 참가를 열망하는 당원 대중의 민주주의와 또 하나는 일군의 인물을 다른 일군의 인물로써 대신하는 데에 민주주의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불만을 품은 당 고관들의「민주주의」가 그것이다。당은 첫째 종류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는 이 민주주의를 견결히 실시하게 될 것이다」(四七〇페지)。

당 대중의 민주주의의 광범한 전개는 인민 대중 속에서 우리 당과 그의 위신을 튼튼케 하는 제조건 중의 하나였다。당 지도에 있어서의 현명한 레닌—쓰딸린적 로선의 덕택과 또한 그 사업의 정당하며 불쉬위끼적인 조직의 덕택으로써 우리 당은 위대한 쏘베트 인민의 전체 생활과 활동을 승리적으로 지도하는 강유력한 六백만의 전투적 조직으로 되여졌다。

전집 제五권에 들어 있는 쓰딸린 동지의 일련의 연설과 론문들은 대중 속에서의 당의 정치 사업과 당과 인민의 련계(聯繫) 강화와 인민의 공산주의적 교양에 바쳐진 것이다。

당은 그의 맑쓰주의적으로 준비된 간부들이 광범한 인민 대중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강력하다는 것을 쓰딸린 동지는 수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쏘베트 정권 하에서는——그는 이렇게 말하였다——형태여하를 불문하고 광범한 대중들과 련결되여 있지 않은 맑쓰주의적 간부들이란 상상할 수 없는까닭이다。그것은 맑쓰주의나 대중적 당과 아무런 공통점을 가지지 못한 그러한 간부들일 것이기 때문이다」(三八九페지)。

이미 一九二一년 초에「우리의 의견 불일치」라는 론문에서 쓰딸린 동지는 대중에게 접근하는 문제、그들을 당의 편에 끌어 오는 문제、그들을 적극적인 경제 건설에 인입하는 문제가 당 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라는 것을 론증하였다。「로농 국가에서——전국가적 의의를 가진 중요한 결정은 특히 그 결정이 로동 계급에 직접 관계되는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 정치 형편에 이렇게 또는 저렇게 반영되지 않고서는 실시될 수 없다는 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다。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치를 경제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가소롭고 경솔한 것이다。실로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일일이 미리 정치적 견지에서도 평가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一八페지) 라고 쓰딸린 동지는 썼다。

경제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이 과업들을 정치적으로 취급하며 로동 계급을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궐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과 또한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로동 계급을 공산주의의 정신으로써 계통적으로 교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레닌과 쓰딸린은 가르치고 있다。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하는 데 있어서는 로동자와 근로자들의 대중적 단체인 직업 동맹, 협동 조합, 청년 동맹 및 녀자 로동자와 녀성 농민의 대표 회의에서 녀성 단체들이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놀아야 하는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이러한 단체들을 가르쳐 이것들이야말로 당과 로동 계급을 련결하는 인전대라고 부르고 있다.

전집 제五권에 게재된 것으로서 쓰딸린 동지가 一九二三년 四월 제十二차 당 대회에서 진술한 로씨야 공산당(볼쉐위끼) 중앙 위원회의 조직 총결 보고는 이러한 대중적 근로자 단체들의 역할에 관한 문제에 그의 많은 부분을 바쳤었다.

「……정치에 있어서는 ── 쓰딸린 동지는 대회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 계급이 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이다. 바로 이 점에 정치 령역에 있어서 계급의 선봉대인 당의 지도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당의 수중에 들어 있는 촉수(觸手)이며, 또한 당이 자기의 의지를 로동 계급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며, 그리고 로동 계급을 분산적인 대중으로부터 당의 군대로 전환하게 하는 그러한 대중적인 비당원 기관들의 광범한 망으로써 당이 반드시 위요(圍繞)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리유가 있는 것이다」(二三七폐지).

쓰딸린 동지는 또한 대중에 대한 당의 정치 공작에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출판물의 거대한 의의를 역시 강조하였다. 「출판물은 대중적 기관이거나 대중적 단체는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과 로동 계급 사이의 눈에 보이지 않는 련계를, 즉 그의 힘으로 보아 대중적 성격을 가진 그 어떠한 전달 기관에도 비할 수 있는 련결을 맺고 있다. 출판물은 제六 강국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 강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없으나 그것이 힘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론쟁의 여지가 없다. 출판물은 당이 그의 도움으로 날마다 또 시시각각으로 자기의 말로써, 당에 필요한 말로써 로동 계급과 더불어 말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당과 계급 사이의 정신적 실머리를 댕겨 놓는 수단으로서 이보다 더 신속 자재한 기관은 이 세상에 없다」(二四三 ── 二四四폐지)라고 쓰딸린 동지는 썼다.

위대한 사회주의 혁명은 모든 민족과 종족에 속하는 프로레타리아트뿐만 아니라 농민의 광범한 대중 속에 사회주의 사상을 보급하기 위한 길을 개척하였다는 것을 쓰딸린 동지는 립증하였다. 그는 인민 대중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하며, 남녀 로동자 농민에 대한 정치 학습을 조직하며, 그들을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궐기시킬 것을 꾸준히 당에 호소하였다.

대중 속에서의 정치 사업과 대중적 근로자 단체들의 역할과 일반적 당 사업에 있어서의 출판물의 지위와 근로 녀성들의 조직 사업 및 정치 학습의 거대한 의의에 관한 쓰딸린 동지의 이 가르침 ── 지나간 二十五년 동안에 우리 당의 간부들을 무장시켜온 이 력사적 가르침은 현재에 있어서도 쏘베트 인민의 대중 속에서 정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당 단체들의 행동 지침으로 되여 있는 것이다.

* * *

전집 제五권에 들어 있는 쓰딸린 동지의 로작들은 그의 기타의 로작들과 마찬가지로 창발적인 맑쓰주의와 레닌주의의 정신으로써 일관되여 있다. 레닌주의를 고수하며 그것을 수다한 적들 ── 멘쉐위크, 뜨로쯔끼주의자, 부하린 도배, 민족주의자 등등 ── 로부터 옹호하며, 레닌주의에 대한 온갖 외곡을 폭로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맑쓰주의의 리론을 발전시키며, 창조하며 또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도적 당의 력사적 경험과 로동 운동의 력사적 경험에 의하여 맑쓰-레닌주의 학설을 구체화하며 풍부케 하고 있다.

쓰딸린 동지의 아주 위대한 정치적 및 리론적 활동의 덕택과 또한 레닌주의에 대한 그의 불변의 충실성 및 레닌주의의 원수들에 대한 그의 비타협성의 덕택으로써 당은 레닌의 중병시와 그의 서거 후에 있어서 레닌주의를 고수하였으며 그의 적들 ── 당을 레닌적 길로부터 리탈시키려고 시도한 뜨로쯔끼주의자, 부하린 도배 및 기타 ── 을 격파하였으며, 레닌의 학설을 발전시키며 그를 실생활에 실현하였다.

쏘베트 국가의 국내 및 국외의 모든 적들에 대한 쓰딸린 동지의 꾸준하며 철저한 투쟁의 덕택으로써 당은 자기 력사에 있어서의 이 극히 복잡하며 긴장된 시기에 내부적 및 국제적인 제곤난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으며, 경제적 붕괴를 퇴치하는 사업에 있어서 거대한 성과들을 거두었으며, 로동 계급과 농민층을 자기의 주위에 결속시키었으며, 그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인 제과업의 해결에로 인도하였다.

당 대열의 통일과 그의 정책의 정확성과 그의 리론의 순결성에 관한 쓰딸린 동지의 꾸준한 배려의 덕택으로써 당의 원쑤와 레닌주의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에 있어서는 레닌이 대렬로부터 나간 후 우리 당의 지도적 핵심은 쓰딸린, 몰로또브, 깔리닌, 워로실로브, 구이비세브, 후룬제, 드제르진쓰끼, 까가노위츠, 오르쵸니낏제, 끼로브, 미꼬얀, 안드레에브, 스다노브, 스웨르니끄, 야로쓸라브쓰끼, 스끼랴또브 및 기타의 제동지들로써 형성되였으며 결정적으로 결성되여졌다. 「이 지도적 핵심은 레닌의 위대한 기치를 고수하였으며, 레닌의 유훈의 주위에 당을 단결시키였으며, 쏘베트 인민들을 국가의 공업화와 농촌 경리 집단화의 넓은 길로 인도하였다. 이 핵심의 지도자로 또한 당과 국가의 령도적 력량으로는 쓰딸린이 되였다」(「쓰딸린 략전」 로동당 출판사판 一〇三폐지).

一九二一년—一九二三년에 관계되는 쓰딸린 동지의 연설과 론문들은 레닌주의를 위한 쏘베트 동맹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다민족 쏘베트 국가의 강화를 위한 레닌—쓰딸린당의 투쟁의 력사적 지상을 반영하고 있다。

쓰딸린 동지의 전집 제五권에 들어 있는 저작들은 레닌주의 사상의 거대한 재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사상들은 항상 전체 볼쉐위크들—당원 및 비당원—의 충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지남침으로 될 것이며, 그리하여 이들은 이 지남침에 의거하여 위대한 레닌의 뒤를 따라 확신성 있게 전진할 것이며, 또한 레닌의 우수한 전우이며, 레닌—쓰딸닌의 위대한 사업의 전체적 계승자인 쓰딸린 동지가 항상 싸워왔으며 또 싸우고 있는 바와 같이 레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그들은 싸울 것이다。

(「볼쉐위끼」지 一九四七년 十四호에서)

리 득 호 역

꼰쑬따찌야

외국 무장 간섭 시기의 모쓰크바 당 단체

박 영 화

一九一八년 三월 十四일 제四차 전로씨야 림시 쏘베트 대회는 쏘베트 공화국의 수도를 모쓰크바에로 이전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모쓰크바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사회주의 국가의 수도로 되였다。 그리하여 쏘베트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및 문화적 생활의 모든 지도는 모쓰크바로 집중되였다。

국내 전쟁의 승리적 종결에 있어서 모쓰크바의 역할은 고귀한 것이다。 모쓰크바는 쏘베트 인민의 조국 전쟁과 해방 전쟁을 매일 지도하면서 모든 전선 및 광활한 나라의 방방 곡곡들과 수많은 선으로 련결되여 있었다。

쓰딸린은 국내 전쟁의 진행 중에 「산업과 문화—정치적 중심지 모쓰크바와 페뜨로그라드가 있는 중앙 로씨야, 즉 민족적 관계에 있어서 동족의 주민 주로 로씨야 인민이 거주하는 중앙 로씨야는 혁명의 기지로 전환되였다」 (전집 四권 三六〇페지) 고 강조하였다。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는 볼쉐위끼의 지도 하에 로씨야의 농민을 자기 편으로 이끌었으며 국내 전쟁의 기본적인 곤난을 참았으며 쏘베트 주권을 위한 자유와 독립을 위한 로씨야 인민의 투쟁의 선두에 섰던 것이다。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의 가장 선진적이며 또 단결된 부대는 페뜨로그라드와 모쓰크바의 로동자들이였다。 「실제에 있어서 페뜨로그라드와 모쓰크바의 프로레타리아트가 아니면 누가 쏘베트 정부의 지주로 될 수 있겠는가?」 (동상 三六一페지) 라고 쓰딸린은 一九一九년 十二월에 썼다。

一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수도이며 「자본주의적 노예

一六%의 공산주의자들이 쏘베트 내에 자리를 차지하였다.

모쓰크바의 당 조직은 직업 동맹과 공청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지도하였으며, 당의 지도 밑에서 모쓰크바의 직업 동맹과 공청은 자기 과업을 원만히 완수하였다. 직업 동맹은 가장 우수한 일군들을 전선으로, 식량 수집대로 파견하였다. 그들은 후방에서 로동자들을 조직하였으며, 거대한 산업을 복구하였으며, 로동 규률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붉은 군대의 전사들과 가족들에게 궁핍 없는 주의를 돌렸다.

쏘베트 로씨야는 전쟁의 불난 속에 있었으며 원수들은 곡물, 원료, 연료가 가장 풍부한 구역들을 점령하였다. 이 때문에 공화국의 후방과 그중에서도 모쓰크바와 뻬뜨로그라드 같은 그러한 중심지들은 각종 곤난을 참으면서 원수에 대한 승리를 위하여 기력을 다 해서 로력하였다.

국내 전쟁의 수년 간에 모쓰크바는 극도로 식량의 곤난을 느꼈다. 그러나 모쓰크바의 로력자들은 각종의 곤난을 참으면서 원수에 대한 승리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다.

모쓰크바, 레닌그라드 및 기타 산업 중심지에 대한 식량 공급 사업을 보장함에 거대한 역할을 논 것은 모쓰크바의 선진적 로동자들로써 조직된 식량 수집대였다. 그들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확대를 위하여, 빈농 위원회 조직을 위하여, 식량 준비를 위하여 거대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一九一八—一九二〇년 간에 모쓰크바는 二만 二천명 이상의 로동자를 식량 수집대에 파견하였다.

十월 혁명 시기에 격파되였으나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착취 계급의 격렬한 저항의 환경 속에서 후방에서의 로동자들의 영웅적 로동은 진행되였다. 멘쉐위크 및 에쎄르들은 외국 멸정의 돈으로 계속적으로 음모를 조직하였다.

一九一八년 四월에 쏘베트 주권을 반대하고 나온 것은 모쓰크바 군주주의자들이였다.

一九一八년 八월 三十일 자모스크워레츠의 이전 미헬쏜의 공장에서 사회 혁명당원 까쁠란의 흉악한 사격에 의해서 레닌은 부상 당하였다. 이 음모의 진상은 그 다음날 八월 三十一일에 폭로되였는바 이것은 당시 모쓰크바에 체류 중이던 영국 사절단장 록까르트가 조직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였다.

제니낀의 공격이 최고조이던 一九一九년 九월 二十五일 모쓰크바에서 로씨야 공산당(볼쉐위끼) 모쓰크바 위원회 건물에 폭탄이 투하되였다. 여기에서는 모쓰크바의 책임적인 당 일군들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폭파시에 十二명이 사망하였으며 四十四명이 부상 당하였다.

모쓰크바의 근로자들은 거대한 곤난을 당하였으며

로부터 로력 인류를 해방시키는 「운동」의 공포자인 모쓰크바! 조국 전쟁의 참모부이며 쏘베트 정부의 진실한 인민적 정책의 상징인 모쓰크바! 쏘베트 국가의 근간적 후방인 중앙 로씨야의 지도적이며 단결시키는 중심지인 모쓰크바! 이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외국 무장 간섭과 국내 전쟁의 수년 간에 있어서의 모쓰크바의 력사적 역할이다.

모쓰크바 프로레타리아트의 용감성, 헌신성, 자각성, 사회주의 혁명 사업에 대한 그의 충실성은 로씨야의 모든 근로자들을 위하여 모범이 되였다. 모쓰크바의 로동자들은 모든 전선에서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으며 그들은 식량 수집대와 군대의 골간을 구성하였으며 그들은 국가의 모든 지방에서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조력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던 간에 도처에서 그들의 모범은 대중을 고무하였으며 근로자들을 투쟁에로, 군사적 공격에로, 그리고 영웅적 로동에로 궐기시켰다.

쏘베트 조국 방어에 있어서 원수들과의 불굴의 투쟁에 있어서 그들은 용감성의 모범을 표시하면서 국내 전쟁 기간에 후방 사업의 모범을 보였다. 즉 모쓰크바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관계의 시초를 표시한 공산주의적 토요 로동이 발생하였으며 이 창조적 운동은 전국 방방 곡곡에 전파되였다.

군대를 위한, 국가 및 당 사업을 위한 간부의 직접적인 원천이며 참으로 무진장의 힘으로 군대에 탄환, 전차, 기관총, 군복, 신발 등을 무한히 공급한 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병창고의 하나로서의 모쓰크바의 역할을 재삼 더 되풀이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모쓰크바의 지도적 역할과 전선과 후방에서의 모쓰크바 로동 계급의 영웅성은 볼쉐위끼당의 지도적 조직적 역할에 의하여 보장되였으며 레닌, 쓰딸린이 쏘베트 국가의 수도에 대하여 돌린 그 특별한 배려로써 보장되였다.

볼쉐위끼당 모쓰크바 위원회는 모쓰크바 근로자들의 활동을 발기하고 지도하는 전투적 참모부였다.

모쓰크바 볼쉐위크들은 첫번으로 전선에 의용군을 파견하였으며 그들은 정치적 자각성과 혁명적 규률의 모범을 보였다.

공민 전쟁 시가에 모쓰크바의 근로자들은 더욱 철석같이 볼쉐위끼당 주위에 단결하였으며 당 조직원 수는 나날이 장성하였다. 一九一九년 三월 一일에는 모쓰크바에 一만 七천명의 당원이 있었다. 一九二〇년 三월 一일에는 모쓰크바의 당원수는 三七,七七二명이며 후보 당원 수는 三,三一九명이였다.

모쓰크바 볼쉐위끼는 모쓰크바의 로동자 병사 대의원 쏘베트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一九一七년 六월 一일 모쓰크바 쏘베트에 三二·八六%의 공산당원이 있었다면 一九二〇년 三월 一일에 와서는 八六

빈궁과 기아를 참았다。 모쓰크바 프로레타리아트의 우수한 아들들은 국내 전쟁의 전선에서 싸웠다。 그들은 기아와 파괴와 투쟁하였으며 격파된 착취자들의 저항을 철완으로써 격파하였다。

볼쉐위끼당에 의하여 지도되며 위대한 수령 레닌과 쓰딸린에 의하여 고무되는 모쓰크바의 근로자들은 쏘베트 주권의 가장 신임하는 성새로 되였다。「이 시기의 믿기 어려울 만한 곤난성과 그것과의 필사적인 투쟁은 로동 계급 속에 무진장한 정력이 숨어 있으며 볼쉐위끼당의 전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진장한 가를 표시하였다」(「전동맹 공산당 (볼쉐위끼) 력사」 二一八페지)

一九一八년 여름과 가을에 쏘베트 국가는 간섭자들과 백위군의 흉악한 습격을 격파하였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 것은 정규적이며 엄격히 훈련된 붉은 군대의 창건이였다。一九一八년 六월 十七일 처음으로 모쓰크바 근로자들을 붉은 군대에 동원함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였다。 동원은 모쓰크바에서 철저하고 민첩하게 진행되였다。 동원은 청소한 붉은 군대에게 거대한 보충을 주었다。 동원의 성공은 모쓰크바 볼쉐위크들의 열성적 사업에 의해서 보장되였다。 이와 함께 모쓰크바 당 조직은 당원들 앞에 군사 지식을 습득할 과업을 제시하였다。

「공산당원 동지여! 당신은 무기를 취급할 수 있는가? 만일 그럴수 없다면 지체 없이 자기의 위원회에 들어가며 또 훈련에 참가하라! 공산당원은 사회수의 사업을 공고히 하기 위한 완전무장이 있어야 한다」이러한 프랑카트들이 모쓰크바의 공장 제조소들에 걸려 있었다。

당시의 당원의 의무는「전력을 다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말고 사회주의 혁명을 옹호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였다。

一九一七년 七월 三十일 모쓰크바 당 대표회의는 모쓰크바 당 조직원의 五분지 一을 전선에 一주일 안으로 동원할 것을 결정하였다。 우수한 공산당원들의 전선으로의 파견은 당을 약화시키지 않았다。 당의 대중과의 굳은 련결은 새로 배출하는 로동 계급의 선진분자들로써 보충할 가능성을 주었다。 이를 위해서는 당 사업을 보다 강화할 것이 필요하였으며 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제고시키지 않으면 안되였다。

「생활 자체가 아직 일본인과 아메리카인들이 씨베리아에서 강화되지 않은 동안에 많은 당원들을 전선으로 보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늙은이 대신에 새로운 력량, 즉 젊은이들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레닌 전집 二十三권 一七五페지) 라고 레닌은 一九一八년 八월 十六일 모쓰크바 당 위원회 회의에서 말하였다。

레닌은 모쓰크바 공산당원들 앞에「대중속에서 당 일군을 끌어 낼」(동상 一七五페지) 과업을 제기하였고

모쓰크바의 당 단체들은 영예롭게 이 과업을 처리하였다。

군중 사업의 정확한 조직은 입당자의 무진장한 류입을 보장하였다。 이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논 것은 一九一八년 八—九월에 창건된 동정자들의 그룹이였다。 그때에 동정자들의 대렬은 현저하게 성장하였으며 또한 모쓰크바 당 조직은 수천의 신뢰할 수 있는 예비군을 얻었다。 모쓰크바는 후방에서의 사업이 약화되는 위험성이 없이 자기의 우수한 사람들을 전선으로 보낼 수가 있었다。

「一九一八—二〇년 동안 모쓰크바 볼쉐위크들은 자기의 우수한 대표자들 수천명을 전선으로 보냈다。 새로운 [illegible] 一八월 동원이 있은 직후 모쓰크바 위원회는 一九一八년 九월 六일 당적 동원을 선언하였다。 다음의 당적 동원을 호소하는 공산당(볼쉐위끼) 모쓰크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一九一八년 十一월 九일부터 모쓰크바에서 진행되였다。

一九一八년 초에 영 불, 미 제국주의자들은 쏘베트 공화국을 분할하는 협약국의 제一차 진공을 조직하였다。

아세아에 있어서 협약국은 꼴차크와 씨베리아에 모집한 영국 사령관 녹쓰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간섭자들의 도움으로써 막대한 무력을 집결하면서 꼴차크는 로씨야의 중앙부로 전진하였다。 뻬뜨로그라드 근방에서는 유제니치 부대가 활동하고 있었다。 남에서는 제니낀의 활동이 심하였다。

간섭의 목적은 제니낀에게 보낸 구츠끄브의 서한에「그의 기본적 생활 중심지인 모쓰크바와 뻬뜨로그라드를 탈취하여 일격에 볼쉐위즘을 교살시킬것」이라 표시되여 있었다。

볼쉐위끼당은 인민들을 꼴차크 반대 투쟁에로 궐기시켰다。 볼쉐위끼당 중앙위원회는 당단체들이「국방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데로 로동계급의 가장 광범한 층을 인입하기 위하여」 전력량을 경주할 것을 책임지웠다。 수도의 기업소들에서는「모든 것을 꼴차크와의 투쟁에로! 모든 것을 원수들의 격멸에로!」라는 하나의 전투적 구호 밑에 수많은 집회가 진행되였다。

四월 十九일 레닌은 붉은 광장에서 다수의 로동자들 앞에 나와서 모든 자각적 남녀 로동자들에게 사업으로 궐기로 주목을 원조할 것을 호소하였다。

레닌은「회합과 집회가 적다。 직접적인 선동이 필요하다。 동원되지 않는 사람들을 방문해야 한다。 집회의 총결은 그의 용감성 과단성 및 충실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매개인에게 주입시켜야 한다」(레닌 전집 二十四권 二六一페지) 라고 말하였다。

간부 회의에서 레닌의 연설이 있은 후 간단한 편지가 주석단에 제출되였다。 로동자들 중 한사람의 손으로 씌여진 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여 있었다。

「동무들! 꼴차크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참말로 우라는 로동자 농민의 주권을 과거의 짜리의 종복들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아니다。우리에게는 이 주권이 고귀하게 전취된 것이며 로동자 농민의 불라는 손에 총을 잡고 쏘베트 주권을 자기 피로써 그 댓가를 지불한 그러한 주권인 것이다。나는 六十세다。그러나 나는 손에 총을 잡고 쏘베트 주권을 자기 피로써 방비하기 위해 붉은 군대의 대렬에 들어가겠다」(一九一九년 四월 十八일부 「쁘라우다」)

이는 꼴차크와의 투쟁 시가에 있어서 모쓰크바 근로자들의 사기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수 많은 례중의 한가지 례일 따름이다。

一九一九년 四월 十六일 모쓰크바 분가점 철도일군들의 대표 회의가 진행되였으며 레닌은 여기에서 연설하였다。「동지들! 세계에서 첫번으로 우리는 전쟁을 진행한다。이때는 어느때나 하면 로동자와 농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물샐틈 없이 포위된 요새인 나라에서 기아와 모든 곤난을 체험함으로써 전쟁의 무서운 점이 무한량하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보면서 그들이 토지와 공장과 제조소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을 리해하고 있는 그러한 때이다。인민 중에서 대다수의 로동자와 농민이 자신의 쏘베트 주권 즉 근로자들의 주권을 방어하고 있으며 또 그 전투의 승리가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모든 문화의 혜택과 모든 인간 로동의 창조물을 리용할 가능성을 보장하는 그런 전투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느끼고 보는 그러한 인민을 어느때나 이겨내지 못한다」(레닌 선집 二十四권 二五八—二五九페지)。

로동 계급이 승리한다는 충분한 신념 즉 쏘베트 국가의 불패성의 기초를 명백히 하는 레닌의 연설에 대답해서 一九一九년 四월 모쓰크바 분가점 철도공장 로동자들의 발기에 의하여 장갑차의 조립 작업반의 보충을 위해서 의용군의 동원이 진행되였다。장갑차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서 전선으로 十개 조립 작업반과 많은 전철수、기관사、화부、주유부들이 출발하였다。

모쓰크바 공청은 八〇〇명을 극동 전선으로 보냈다。모쓰크바에서 공산당원들의 춘기(一九一九년) 동원은 전선에 수백명의 정치 일꾼과 지휘관을 주었다。

꼴차크와의 투쟁에로 근로 대중을 동원함에 관한 볼쉐위끼당과 쏘베트 국가의 거대한 사업은 현저한 성과를 가져 왔다。쓰딸린의 직접적 지도하에 꼴차크를 반대하는 결정적 공격 계획이 작성되였다。이 계획에 따라서 동부 전선의 남부 부대는 프룬제의 지휘하에 一九一九년 四월 二十五일 반격으로 넘어 가면서 부구루쓸란、부굴마、벨례비 근방에서 꼴차크 부대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하였다。꼴차크는 동쪽으로 떠나가기 시작했다。

一九一九년 여름 쏘베트 공화국과 그의 수도 모쓰크바에는 새로운 위협이 가까와 왔다。

꼴차크군이 괴멸된 후 영 불 제국주의자들은 그의 제二의 신임할만한 주구 제니낀에게 쏘베트 로씨야에 주요한 타격을 가하고 모쓰크바를 점령할 과업을 부과하였다。

련합군의 새 진공의 계획에서 결정적 위치가 모쓰크바로의 공격에 돌리여졌다。반혁명의 두목들은 모쓰크바를 그 점령과 함께 전쟁의 결말이 결정되는 열쇠의 요점으로 간주하였다。

「제니낀을 모쓰크바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것」。이것이 이 시기에 있어서 모쓰크바 사람들을 고무 격려한 구호였었다。

一九一九년 七월 九일 「로씨야 공산당(볼쉐위끼) 중앙위원회 통보」에는 당 단체에 보낸 중앙 위원회 서한이 공포되였다。

이 서한에 레닌은 「쏘베트 공화국은 원수에 의해서 포위되였다。쏘베트 공화국은 말로가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유일한 군사적 진영이 되여야 한다」라고 썼다。

그라하여 「모든 것은 제니낀과의 투쟁에로」라는 구호는 쏘베트 로씨야의 모든 조직들과 기관을 위하여, 지도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모쓰크바 공산주의자들을 위하여、모쓰크바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레닌의 이 서한은 다음 수개월 간에 있어서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전투적 강령으로 되였다。

一九一九년 七월 十二일에 성립된 로씨야 공산당(볼쉐위끼) 모쓰크바 전시(全市) 대표 회의는 레닌의 서한에 관련해서 대중 속에서의 선전 선동 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과 전시 체제에서 당 조직 사업을 개조할 것을 제기하였다。

一九一九년 九월 四일 모쓰크바 쏘베트 간부 회의는 모쓰크바에 전시 상태를 포고하기로 결정하였다。

十월 五일 로씨야 공산당(볼쉐위끼) 모쓰크바 위원회 집행 위원회와 모쓰크바 쏘베트 간부회의 련석 회의에서 모쓰크바시 방어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결정되였다。

모쓰크바시 방어 위원회 수중에 수도 지역에서의 주권의 전체가 집중되였다。

모쓰크바가 완전한 무장으로 적을 대할수 있게 쏘베트 국가의 수도를 방어의 요새로 전환시키기 위한 모든 방책이 채택되였다。

동시에 볼쉐위끼당과 쏘베트 정부는 제니낀 부대의 공격을 억제하며 모쓰크바에 대한 그후의 공격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거대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一九一九년 九월 二十四일 로동자—농민 방어 쏘베트는 제니낀의 공격을 반대하는 방어 조직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一九一九년 九월 二十二일 공화국 혁명 군사 위원회는 모쓰크바 방어 구역의 구조에 관한 명령을 발표하였다. 남쪽에서 모쓰크바를 엄호한 방어 경계선이 설정되였다.

一九一九년 九월 중순 이 방어선 전설에 十二만의 로동자와 붉은 병사가 종사하였다.

볼쉐위끼당과 그의 중앙 위원회와 혁명의 수령인 레닌과 쓰딸린은 모쓰크바의 방어 조직에 막대한 주의를 돌리면서 동시에 련합국의 제二차 진공을 완전한 파멸로 끌어 넣지 않으면 안될 즉 제니낀 부대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였다.

一九一九년 九월 二十六일에 개최된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모쓰크바를 공격한 백위군을 섬멸하기 위하여 쏘베트 인민을 동원하는데 관한 방책을 수립하였다.

전선 지대의 당 단체에 보내온 서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였다.

「근본적이며 군사적이며 또 그와 아울러 정치적인 최근 몇달 동안의 파업은 무엇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떠한 불피의 희생과 손실의 댓가에 의해서도 제니낀의 공격을 격퇴하는 것이며 그리고 뚤라를 그 공장과 함께 그리고 모쓰크바를 방어하는 것이며 그 후에는 공격으로 넘어가는 바이다」

一九一九년 九월 二十六일 로씨야 공산당(볼쉐위끼)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제니낀을 격멸하는 사업에 있어서 뛰중한 의의를 가진 중요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는 쓰딸린을 제니낀 격멸의 조직을 위하여 남부 전선에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다.

제니낀 공격을 조직함에 있어서의 쓰딸린의 역할은 탁월하였다. 반역자 뜨로쯔끼에 의해서 붕괴에 까지 다다른 남부 전선은 단기간 내에 개선되였다.

「뜨로쯔끼의 파산된 주구들을 참모부에서 축출하였으며 전선 사업에 뜨로쯔끼의 전적 불간섭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쓰딸린은 불가강(짜리찐)으로부터 노워로시스크에 이르는 제니낀 전선 돌파에 대한 낡은 범죄적 계획을 버리고 천재적으로 파업을 해결한 자기의 작전 계획을 작성하였다」(쓰딸린 략전 로동당 출판사판 七十四페지)。

정세가 긴박하게 되면 될수록, 모쓰크바 근로자들 앞에 제기된 파업들이 복잡하고 곤난하면 할쑤록 모쓰크바 볼쉐위크들의 선동 사업의 규모는 더욱 광범하게 되였으며 그 형식은 더욱 각양 각색으로 되였으며 투쟁과 승리에로 호소하는 볼쉐위끼의 연설은 더욱 소리 높게 울리였다.

제니낀을 반대하는 투쟁에 모쓰크바 근로자들의·전력량을 동원하는 파업은 이 시기에 있어서 전적으로 필

요하였었다。 이 파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쓰크바 볼쉐위크들의 선전 선동 사업은 거대한 의의를 가졌었다。

당 선전 선동 사업은 모쓰크바 근로자들의 애국열의 앙양을 각방면으로 표시하였으며 그 중요한 표시 중의 하나는 一九一九년 十월 八일—十五일까지 진행된 당 주간이였다。

「당 주간은 쏘베트 주권으로서는 곤난한 시기와 때를 같이 하였다」라고 레닌은 썼다。(레닌 전집 二十四권 四八四페지)

「모든 부르죠아와 특히 도시 소부르죠아……이 청중은 모두 마침 최근에 또 마침 모쓰크바에서의 당 주간 사업에 혼란을 뿌리려고 또 쏘베트 주권이 얼마 안가서 파멸하며 제니낀은 얼마 안되여 승리한다고 예언하려고 갖은 애를 다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니낀의 「성과」라는 것을 보았고 마침 지금 공산당원의 사명과 의무와 결부되여 있는 모든 곤난성과 중하와 위험성을 안 프로레타리아 대중 속에서 수천 수만이 공산당의 강화를 위하여 국가 관리의 그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곤난한 부담을 자신들이 담당하기 위하여 궐기하였다」(레닌 선집 二十四권 四九二페지)

모쓰크바에서의 당 주간은 완전히 특별한 성과를 얻었으며 볼쉐위끼당의 승리였었다。 당 주간 동안에 모쓰크바에서 당에 가입한 자는 一四、五八一명이였다。 같은 기간 중에 모쓰크바에서 二八四、七六二명이 참석한 一、二三五개의 집회가 진행되였다。

당은 전투적 기치를 들고 당 주간에 일했다。

레닌은 당 주간의 결과에 관하여 「쏘베트 주권의 성공은 즉시로 현저하다!」라고 말하였다。

「자기 전위에 대한 로동자와 농민의 동정의 힘은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의 하나로 되였다。

왜냐 하면 이것은 기적이다。 즉 기아 추위 붕괴 파산의 미증유의 고통을 참은 로동자들은 다만 모든 정신상의 용기와 쏘베트 주권에의 모든 충실성과 헌신성과 영웅성의 모든 정력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의 무준비성과 무경험성에도 불구하고 국가라는 선박을 관리하는 부담을 자신 맡기까지 하고 있다。 또 이는 폭풍우가 극도에 달한 순간에 있다……」(레닌 전집 제二十四권 四九一페지)

당 주간은 볼쉐위끼당의 위대한 전위와 그의 대중과의 공고한 련결을 실증하였으며 당 주위에 광범한 근로자들의 층을 더욱 많이 집결하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 모스크바와 뻬뜨로그라드의 당단체들은 전선으로 보내기 위하여 자기의 가장 우수한 일꾼들의 동원을 개시하였다。

모쓰크바 볼쉐위크들은 전선으로 출발하면서 「신성한 붉은 깃발에 맹세하자、 한 발자욱도 뒤로 물려나지 말고 오직 앞으로!」 이러한 약속을 하였다。

모쓰크바와 기타 산업 중심지의 공산당원들의 동원은 남부전선의 간부의 강화를 대규모적으로 진행하였다。

「남방 전황에 대하여」라는 론문 가운데서 쓰딸린은 제니낀의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우리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된 것은 『뻬쩨르부르그、모쓰크바、뜨웨리、이와노보·워즈네센쓰크로부터 울리의 남방련대에 들어와서 그것을 완전히 개조한 로동자 공산당원들이 전선에 쇄도한 것』(쓰딸린 전집 제四권 三六四페지)이였다 라고 지적하였다。

다만 一九一九년 十월중단 해도 혁명 군사 위원회 정치국을 거쳐서 전선으로 五、四二七명의 공산당원들이 나아 갔으며 그중에서 모쓰크바는 압도적 다수인 三、六二八명을 보냈다。

동원된 공산당원들은 대다수가 직접전투 부문으로 파견되였다。다만 一九一九년 十월 四일부터 七일까지만 하더라도, 남부 전선에 三二六명의 공산당원들이 도착하였다。그 중에서 八명은 사단 정치 위원으로 임명되였으며、二명은 려단 정치위원으로 三十八명은 련대 정치 위원으로 임명되였으며、十명은 지휘 책임을 받았으며、백二十五명은 전투 부문에 있어서 다른 책임적인 정쳐적 및 군사적 사업에 파견되였던 것이다。

一九一九년 가을 동안에 모쓰크바에서 전선으로 많은 수의 로동자 자원병이 파견되였다。또한 직맹원들과 공청원들도 우수하게 사업하며 훌륭한 결과를 가져왔다。

쓰딸린의 지도 하에 一九一九년 十월말 오룔—고롬 워로네즈 구역에서 백위군의 정예 부대에 대하여 중대한 타격이 가해졌다。

모쓰크바에 대한 그 이후의 공격에서 격파된 제니낀군은 할수 없이 남방으로 퇴각하게 되였다。『모쓰크바로의 진군』의 운명은 또 그와 함께 련합국의 제二차 진공의 운명도 결정하였다。

로씨야 반혁명의 도움을 받아서 쏘베트 주권을 타승하며 로씨야 인민에게 새로운 굴레를 씨우려던 련합국 제국주의자들의 시도는 파멸로 끝났다。그러나 국제 제국주의는 아직도 쏘베트 주권을 파괴하려는 자기 시도를 단념하지 않았다。

一九二○년 봄에 쏘베트 로씨야에 대한 련합국의 새로운 제三차 진공 계획이 작성되였다。간섭자들은 진공의 기본 력량으로서 당시 부르죠아—지주의 민족주의적 뽈련의 지배 하에 있던 파란과 크림에서 『음흉한 남작』 우랑겔 장군에 의해서 조직된 제니낀군의 잔존 부대를 리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파란과 우랑겔은 이는 쏘베트 국가를 교살하려고 시도한 국제 제국주의의 두 팔이였다。

쏘베트 공화국은 방어를 위하여 원쑤들을 분쇄하기 위하여 다시 전 력량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一九二○년 五월 五일 레닌은 전로씨야 중앙 집행 위원

회、모쓰크바 로동자 병사 농민대의원 쏘베트、직업동맹 모쓰크바의 공장 제조소 위원회의 련석회의에 출연하여 쏘베트 안만과 수도의 근로자들을 새로운 헌신성에로 호소하였다。

「한번 문제가 전쟁에 까지 이른다면 모든 것은 전쟁의 리익에 복종되지 않으면 안되며、모든 국내 생활은 전쟁에 복종되지 않으면 안되며、이에 있어서 아무리 사소한 주저라 할찌라도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전쟁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하였는가、우리의 력량을 충분히 긴장시켰는가、원조를 전선으로 충분히 돌리였는가? 하는 문제로 모든 심의 시에 제一위에 세우도록 함이 없이는 하나의 회합도 하나의 협의회도 진행하지 말도록 하라。여기서는 다만 전쟁을 원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이 남도록 함이 필요하다。모든 주저를 내던지고 전선에 모든 회생을、전선에 모든 원조를 주어야 한다。그리고 모든 력량을 집결하여 모든 회생을 하여가면서 우리는 의심없이 이번에도 승리할 것이다」(레닌 전집 제二十四권 二六一페지)

수도의 근로자들은 이번에도 모든 것을 전선으로 보냈다。새로운 수천의 로동자와 사무원들이 백파—파란인과 우랑겔을 반대하는 전선에 참가하기 위하여 붉은군대로 들어갔다。

어느때에나 마찬가지로 전선에 최초로 파견된 것은 수도의 공산당원들이였다。一九二○년 五월—六월 간에 모쓰크바는 九八○명의 공산당원을 파란 전선에 보냈으며 또 六월二十五일부터 十월 十일까지 파란 전선과 우랑겔 전선에 四차의 당적 동원에 따라 二、一三五명의 모쓰크바 공산당원들이 파견되였다。

외국 무장 간섭과 공민 전쟁의 수년간 모쓰크바 로동자들의 긴장된 로동은 한시각도 중지되지 않았다。

모쓰크바 당 단체들은 근기있게 생산 문제에 종사하였으며 로동 생산성의 제고를 위하여 투쟁하였다。로력과 원료의 결핍이 공장과 제조소의 사업을 곤궁에 빠뜨렸을 때、로동자들이 굶주리였을 때이 믿기 어려울 만큼 곤난한 조건 중에서 모쓰크바 볼쉐위크들은 전선을 위한 제품의 생산을 보장하였다。

모쓰크바는 전선에 무기 군수품 피복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조병창이였다。전선의 주문을 수행하면서 모쓰크바의 근로자들은 지리한 줄 모르고 피로를 고려하지 않았다。로동자들은 스스로 十시간—十二시간 로동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료와 연료가 부족하여 수십 수백의 모쓰크바 기업소들이 작업을 정지하였을때 모쓰크바 로동자들은 로동 생산성의 제고를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부족한 원료의 대용품을 착안하였으며 연료와 전력을 절약하였다。

모쓰크바의 로동자들은 주인답게 인민의 소유로 된 공장 제조소에 관해서 념려하였다。많은 기업소들에서는 이전 소유자들이 할 수 없었던 고려한 사업들

을 진행하였다。

자거로동으로 붉은군대를 백방으로 원조하는 로동자들의 지향의 참으로 주목할만한 현상으로는 꼴챠크와의 투쟁 시기인 一九一九년 四월—五월에 모쓰크바에서 생겨난 공산주의적 토요 로동이였다。

이 위대한 사업에 대한 개시는 모쓰크바—까잔 철도의 쎄르또보츠니여 차고의 공산당원들에 의하여 시작되였다。그들은 一九一八년 四월 十二일 기관차 수리에 관한 토요 로동을 최초로 조직하였으며 여기에는 十五명이 참가하였다。

공산주의적 토요 로동은 전모쓰크바에 전파되였다。만일 토요 로동이 발생한 첫달에 그 참가자의 수가 모쓰크바에서 수백이였다면 一九一九년 十一월에는 토요로동에 벌써 一五、九二八명의 모쓰크바 사람이 참가하였으며 十二월에는 一六、六八六명、一九二〇년 一월에 三六、三九九명이 참가하였다。

토요 로동과 모쓰크바 공산당원들의 이 위대한 발기의 력사적 의의는 고귀한 것이다。

모쓰크바 당 단체는 사회주의적 문화적 건설의 령역에서 다면적이고 맹렬한 활동을 실현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에 의해서 교육되고 단련된 모쓰크바 당단체는 쏘베트 주권의 외부와 내부의 원쑤들을 때려 합에 붉은 수도의 근로자들의 모든 력량을 동원하는 제과업들을 영예롭게 처리하였다。

이렇듯 볼쉐위끼당의 지도하에 외국 무장 간섭과 공민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하여 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력사 간략 독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볼쉐위끼당은 로동자와 농민을 외국 침략자들과 부르조아—지주의 백위군을 반대하는 조국전쟁으로 궐기시켰다。쏘베트 공화국과 그 붉은 군대는 련합국의 주구들—꼴챠크、유제니치、제니낀、끄라스노브、우랑겔을 차례 차례로 분쇄하였으며 우크라이나와 백로씨야로부터 련합국의 또 하나의 주구인 삘로쑤쓰끼를 몰아내였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외국 무력 간섭을 격퇴하였으며 그들의 군대를 쏘베트 국가의 령토 밖으로 방축하였다。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국제자본의 최초의 무력적 진공은 그들의 완전한 실패로 끝맞추고 말았다。

혁명에 의해서 분쇄된 사회 혁명당원、멘쉐위끼、무정부주의자、민족주의자의 제당은 무력 간섭 시기에 백위군 장군들과 무력 간섭자들을 방조하였으며 쏘베트 공화국에 대한 반혁명 음모를 꾸몄으며 쏘베트 활동가들을 반대하는 테로를 조직하였다。十월 혁명에 이르기까지에 로동 계급 간에 약간의 세력을 가지고 있던 이 제당들은 공민 전쟁 시기에 들어와서 반혁명적 당으로서 자신을 인민 대중의 눈앞에 여지없이 폭로 하였다。

공민전쟁 및 무력 간섭의 시기는 이들 제당의 정치적 멸망의 시기였으며 쏘베트 국가에서의 공산당 최종 개선의 시기였다」

당생활경험

당세포핵심—열성자 양성사업

리승만 도배들이 야기한 내란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은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고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

우리의 영웅적 인민군대는 『국방군』의 불의의 침공을 무찌르고 리승만 도배들의 팟쇼적 통치 하에서 신음하던 남반부 인민들을 해방시키면서 계속 남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조선의 전체 애국적 인민들은 김일성 동지의 호소를 받들고 전선과 후방의 한계가 없이 총궐기하여 적의 박멸에로 동원되고 있다。

승리는 반드시 조국과 인민을 위한 정의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조선 인민들에게 올 것은 의심할 바 없다。그러나 승리는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취해야 하며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자기의 어깨에 걸머지고 전진하는 우리 당은 이 정의의 전쟁에서 승리를 조직하며 인민을 고무 동원하는 데 선봉적 역할을 부담하고 있다。그러기 위하여서는 당 단체를 내부로부터 더욱 강화하며 사기와 사업 수준을 보다 높이는 데 백방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조국에 조성된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여 매개 세포는 사업 분야에서 자기에게 부과된 모든 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함에 있어서 당의 사회적 여론의 집중적 표현자이며 세포 사업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노는 세포핵심—열성 분자들을 옳게 교양 훈련하며 그들을 광대한 군중과 밀접히 련결시킴으로써 군중의 적극성과 헌신성을 발동시키는 것은 사업 발전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한다。

어떠한 당 단체의 사업을 물론하고 구성원들의 성분을 보든지 당에 대한 열성과 사업에 대한 노력 정도를 보든지 서로 상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그러므로 그 세포에 핵심—열성자들이 옳게 형성되지 못한다면 사업에서 적극적인 전진을 기대하기 곤난한 현상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 핵심—열성자 양성 사업은 세포 사업 강화를 위한 첩쉽하고도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그러면 세포핵심—열성자들을 어떻게 선발 배치하며 교양할 것인가?

우선 세포에 있어서의 핵심은 세포의 지도 기관인 세포 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세포 위원회와 핵심—열성자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그것은 세포 위원회와 핵심—열성자들과 혼돈한다면 세포 핵심—열성자를 양성하며 그의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이 바로 세포 위원회 사업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기 때문이다。

세포 핵심—열성자는 세포 위원회와 총회의 결정 실행과 세포 내의 일상적 사업에서 군중의 모범이 되며 항상 군중을 교양하며 당 결정 실행에 있어서 선도적 역

할을 옳게 수행하면서 세포 위원회의 사업을 적극 방조하며 강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당 세포 내의 핵심—열성자들은 세포 위원회가 세포의 열성적 핵심으로 된다고 하여 반드시 세포 위원들 중에서만 구성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세포 위원들 외에도 반드시 그 세포에는 사업에 있어서 실천력이 강하며 군중의 선두에서 핵심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 열성 분자들이 적지 않게 있을 수 있으며 또 있기 때문이다.

세포 핵심—열성자로서는 우선 세포 위원장이 되여야 하며 그의 세포 위원들 중에서 또 세포 위원이 아닌 당원들 중에서 그 세포의 중심이 되며 세포의 전체 사업을 추동시킬 수 있는 분자들을 세포 핵심—열성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세포 핵심—열성자는 언제든지 실제 투쟁 속에서 육성되며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 요소는 언제나 고정 불변하며 동일할 수 없으며 또 필연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실제 투쟁 속에서 핵심—열성자는 끊임 없이 생겨나며 종래의 핵심—열성자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뒤떨어지는 분자들이 생길 수 있으며 타방으로는 일반 당원들 속에서 당 생활 과정에서 당사업 수준이 발전 향상된 새로 자라나는 열성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세포 내의 핵심—열성자는 당의 중요한 간부 원천의 하나로 되는 관계로 그 세포 내에서 열성 있고 발전성 있는 당원으로 사업상으로나, 정치적 수준으로나, 그 세포의 선도적 추동 분자로 되여야 하며 그 선발과 양성에 있어서 심중한 당적 주목을 돌리며 항상 핵심—열성자들의 실제 투쟁 성과와 사업 수준을 평가하면서 그들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다수 세포 내의 핵심—열성자 선발은 당이 요구하는 방향에서 옳게 구성되였으며 그들이 당과 국가 건설 사업에서 열성적 핵심적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도록 적극 보장하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에게 원쑤와의 가혹한 투쟁에서 항상 인민의 선두에 서서 인민의 지표가 되며 대담성과 영웅성을 발휘하여 헌신적 노력과 희생적 모범을 그 어느때보다 더욱 더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원은 비당원 군중에게 모범이 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당적 임무 실행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충분히 놀아야 한다.

특히 후방 공고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당원 비당원 군중을 힘차게 조직 추동하는 사업에서 세포 핵심—열성자들이 노는 역할은 매우 중대하다.

생산 기업소 직장내 세포들에서의 세포 핵심—열성자들의 선도적 역할은 후방에 있어서의 생산의 가일층의 제고를 보장하고 있다.

평양 고무 공장 내 세포들에서는 열성 당원들이 생산품의 규격과 질을 보장하는데 노력한 결과 불합격품을 근절하고 질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매개인 매월 생산 계획을 초과 완수하였다. 이에 따라 그 공장 내 당원들과 비당원들도 열성자들의 모범을 본받아 불합격품 생산을 근절하며 질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전개하여 개별 생산 책임량을 초과 실행하는 투쟁을 자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순천 화학 공장 카바이드 직장 장 과홍 동무와 황해 제철소 조강 직장 절단 부리가다 책임자 김원삼 동무, 등을 들 수 있는바 특히 김원삼 동무는 매일 작업 시간한 시간 전에 출근하여 기계 점검과 작업 순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매일 계획 실행의 제반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선도적 역할로써 다른 당원

및 로동자들을 옳게 고무 추동한 결과 무사고 운전을 보장하고 자기 계획을 매월 초과 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포 핵심—열성자들의 모범적 역할과 군중 속에서의 선도적 활동은 항상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달성하면서 세포의 지도적 역할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당 단체들에서는 핵심—열성자의 의의와 역할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선도적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당 사업의 성과를 옳게 관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당 단체들에는 세포 핵심—열성자 선발 구성에 있어서 시급히 시정하여야 할 부분적 결함들이 존재하고 있다.

평양시 동구역 당부 산하 일부 생산 직장 세포(분세포)에서는 세포 핵심—열성자 선발 구성에 있어서 세포(분세포)의 간부들、즉 분조장、직장 위원장、과장 및 반장들로만 구성되고 있으며、이천군 당부 내 일부 농촌 세포에서는 인민반장과 일부 리 간부들만으로써 핵심—열성자들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포 핵심—열성자들을 간부들로만 구성한 생산 직장과 리(농촌) 세포들에서는 이들이 자기의 직책 수행에 분망하기 때문에 세포 내의 실제 사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일상적 사업에 참가하는 경우가 적으며 실지 사업 성과가 원만한 수준에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포 내의 핵심—열성자의 의무와 역할이 명목상 부과되며 또 되었을 뿐 하등의 실천적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세포들에서 세포 위원들로써만 핵심—열성자가 구성되고 있는 반면에 부분적 세포들에서는 세포 간부들은 전부 제거되고 수준이 낮은 당원들로써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세포들에서는 핵심—열성자를 세포에서의 심부름꾼으로나 이러한 집회의 동원 재촉을 하는 데만 리용하며 또 심지어는 세포와 당부 또는 군 당부와의 사이의 련락원 역할을 담당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선발하고 있다. 더우기 평양 과학 공장 내 분세포들에서는 핵심—열성자의 역할을 행정측 또는 분세포의 사무 조직만을 처리 정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기 생산 계획에서 적지 않게 떨어지게 하면서 사무에 분망케 하고 있다.

또한 엄중한 사실은 핵심—열성자를 비밀리에 취급하고 공개할 수 없는 것같이 인식하는 (물론 구태여 그는 세포의 핵심—열성자라고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경향이 있다.

평북도 삭주군 내 부분적 세포들에서와 같이 세포 핵심—열성자들과 비밀리에 사업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 세포 핵심—열성자는 그가 실지 사업 과정에서 군중들을 조직하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와 의논하며 그의 지도를 받으며 또 그가 제시하는 방향에서 열성적으로 사업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포의 핵심—열성자라는 것이 공개되면 사업 성과가 옳게 보장될 수 없다고 간주하는 것은 오늘 조국이 처한 엄중한 정세 하에서 전선과 후방에서 전체 애국적 인민들을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정의의 전쟁 수행에 동원 궐기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당의 대중과의 련계를 옳게 인식 못하는 그릇된 견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

일부 시군 당부에서는 세포 핵심—열성자를 한번 선발 구성만 하여 놓고 그 후 그들의 실지 투쟁 성과와 수준을 평가하며 또 새로 자라나는 열성자들을 옳게 포착하고 그들을 실지 사업을 통하여 훈련 교양하여 핵심—열성자로 만들며、열성이 적고 발전성이 희소한 부분적인 다른 핵심—열성자들과 교체하여 새로 육성되는 열성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

시기는 사업이 부족하다.

흥남 비료 공장 당 단체는 세포 핵심—열성자로서 자기의 생산 책임량을 초과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당의 결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선도적이 못된 자들을 제 때에 포착하여 특별히 교양하거나, 또는 새로 자라나는 발전성 있는 열성 당원으로 핵심—열성자를 적당히 교체하는 사업을 제 때에 보장하였다.

그런 까닭에 공장 내에서 핵심—열성자로서 자기 책임량을 완수 못한 당원들은 없게 되었으며, 다른 당원과 비당원들의 사업에 방조를 주며 그들의 책임량 달성을 촉진하면서 부리가다 내의 추가된 경정 책임량을 초과 완수하고 있다.

평안북도의 삭주와 구성군 당부들에서는 행정 사무 기관 내의 세포에는 핵심—열성자를 조직할 필요가 없는 듯이 간주하고 있다. 그것은 행정 사무 기관에는 해당 기관 행정 책임자 또는 부 과의 책임자들이 당원인 경우에 그들이 핵심적으로 모든 사업을 장악 추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데로부터 출발되였다.

당원인 행정 책임자 또는 부 과의 책임자는 해당 기관 내에서의 책임적 위치에서 핵심이 됨은 원칙이나 그렇다고 세포 내의 모든 사업과 실천에 있어서 반드시 행정 간부들이 핵심—열성자로 될 필요는 없다.

이상의 몇가지 실례들에서 볼 수 있는 바 아직도 일부 당 단체들에서는 세포 핵심—열성자의 의의와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데로부터 세포 핵심—열성자 선발에 있어서 적지 않은 결함들을 가지고 있다. 세포 핵심—열성자에 대한 이러한 옳지 못한 견해는 실지 그의 양성 사업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내의 핵심—열성자 선발 구성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당 기관의 책임 간부들은 직접 하부에 내려가 실지 세포 사업을 지도 방조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그들과 담화하며 그들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며 사업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세포 핵심—열성자를 양성하는 목적은 세포 내에서 사상 정치적으로 준비되고 사업 조직과 집행에 능력 있는 당원들의 모범적 활동과 핵심적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당원과 비당원 군중들이 그의 모범을 따르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핵심—열성자 양성은 자연 생장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실제적 사업을 통하여 지도와 방조를 주며 교양과 훈련을 줌으로써 그들의 역할과 사업을 보장하는 데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 당 단체들의 세포 핵심—열성자들에 대한 선발과 양성 사업에 대한 지도 방조가 옳게 보장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 함주군 당부에서는 군내 수많은 세포의 핵심—열성자들 중에서 작년도에 군 당부의 실무 강습을 받은 당원이 불과 그의 六五%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강동군 당부는 핵심—열성자들에 대한 교양과 훈련을 계획적으로 조직할 데 대한 사업을 시 군 당부 위원장에게 책임지운 당 중앙 위원회 제五차 회의 결정을 정확히 집행할 대신에 군당 상무 위원회는 이 사업을 면 당부에만 위임하는 결정서를 채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 당부에서는 하등의 실무 강습도 조직한 일이 없었다. 핵심—열성자들에 대한 실무 강습을 조직 실시하지 않는 경향은 순화군 은률군 당부들에서 또 볼 수 있었다.

시 구역 군 당부는 핵심—열성자들에 대한 정치적 실무 교양과 훈련을 당부 위원장의 직접 책임적 지도 하에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안주군 당부에서는 군 당부에 월별에 따라 한 면 또는 二개 면을 통합하여 핵심—열성자들을 소집하고 실무 강습을 옳게 조직 실시하고 있으며 고원군 당부에서는 핵심—열성자 강습을 각면 단위로 조직할 계획을 세우고 군당 책임 간부들이 직접 면 당부에 내려가 二—三일 간씩 강습을 주는 방법으로 매월 一회 정도 정상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군 당부의 이러한 사업 계획 집행에 따라 각 면 당부에서는 자체 실정에 비추어 핵심—열성자들의 실지 사업에서 체득한 경험과 실지 사업 방법들을 호상 교환하는 세미나르를 적당히 조직 실시하는 데서 그 성과를 더욱 보장하고 있다. 또한 평양 북구역 당부에서는 핵심—열성자들을 생산 별로 소집하고 당부 책임 간부들로부터 그의 특성에 따른 강습을 직접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당부 책임 간부들이 핵심—열성자 강습에 직접 참가하는 반면에 유감스러운 것은 일부 당부 위원장들이 실무 강습에 적극적으로 출연하지 않는 경향들이다. 심한 경우에는 세포 핵심—열성자들을 위한 실무 강습을 하부 지도원에게만 맡기고 심중한 당적 관심을 적게 돌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시 구역 군 당부는 핵심—열성자들이 정치 교양과 실무 훈련을 받은 후에 세포에 가서 더욱 열성 있고 창발성 있게 모든 사업에서 높은 성과들을 발휘하는 문제에 대하여 심중한 검토가 없다. 교양과 훈련을 준 후에는 그들이 세포에서 의례히 핵심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리라고만 간주하며 시 군 당부의 책임은 그들에게 강습만 조직 실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시 동구역 당부에서는 핵심—열성자들에 대한 강습은 수차 조직 실시하였는데 아직도 그들의 역할이 미약하다고만 한다. 그것은 강습 실시 후 세포들에서 핵심—열성자들이 자기의 열성을 배가 발휘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들을 검열하지 않으며 이것을 옳게 평가하지 못한 데 기인된다.

세포 핵심—열성자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그가 실천에서 쟁취한 성과로써만 그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 구역 군 당부에서는 실무 강습을 준 후에는 그가 세포에서 더욱 열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사업하도록 추동하며 또 이를 시 구역 군 당부와 해당 세포 위원회는 수시로 그를 검토하며 옳게 지도 방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시 구역 군 당부와 면 당부들에서 핵심—열성자들의 역할을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의 또 하나는 세포 위원장들에게 핵심—열성자들과 사업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며 또 세포 (분세포) 사업을 실지 지도 방조하는 과정에서 핵심—열성자들의 사업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가르쳐 주며, 실지 해당 세포의 실정에 적합하게 좋은 경험들을 보급시켜 주는 당부 지도원들의 역할이 높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의 당부 지도원들은 세포 사업을 검열 지도함에 있어서 핵심—열성자들과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남포시 당부의 일부 지도원들은 세포 사업을 지도 방조함에 있어서 세포 위원장을 상대로 세포 문건에 의거하여 질문하는 데 그치고 세포 사업 계획에서 실행되지 못한 것을 독촉하였을 뿐 세포 핵심—열성자들과는 하등 담화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녕원군 당부에서는 핵심—열성자들에 대한 지도원들의 사업은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세포에서 핵심—열성자들에게 어떠한 과업을 위임하였으며 그들을 당의 모든 회합에 세포 위원회가 어떻게 참가시키며 또 그들이 회의에서 자기의 실지 사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창발적 대책을 어떻게 제출하는가 등에 이르기까지 옳게 지도 방조하고

있으며 그들의 실지 사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같이 토의하며 평가해 주고 있다. 당 세포 핵심—열성자들의 역할을 높이며 그의 실천적 사업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은 세포 위원회가 핵심—열성자들을 옳게 지도하며 추동시키는 데 중요하게 달려 있다.

세포 위원회는 항상 그들을 문제 토의에 참가시키며 그들에게 당적 과업의 위임을 조직하며, 그들을 수시로 점열 방조하며, 또 다른 당원들이 핵심—열성자들의 당적 과업 집행에 적극 협력하며, 동원되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핵심—열성자들과의 세포 위원회가 사업을 주밀하게 구체적으로 조직 실시하는 데서는 생산 성과가 향상되며 자기 책임량들을 옳게 실행하는 반면에 일부 세포들에서는 핵심—열성자들과의 사업을 옳게 진행하면서도 다른 다수 당원들과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세포의 사업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가 미약하다.

그러므로 세포 위원회는 당 결정과 지시의 실행에서 핵심—열성자들의 선도적 역할을 가일층 제고하면서 그의 매개 다른 당원들에게 적절한 당적 위임을 조직하며 또 그들이 당적 위임의 집행과 일상적 사업 과정에서 핵심—열성자들의 사업을 적극 방조 협력하며 또 핵심—열성자들은 당 사업의 부단한 향상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포 핵심—열성자 양성 사업의 강화는 우리 당의 기본 조직체인 세포 사업의 강화와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진다. 세포 핵심—열성자는 당이 사회적 여론의 집중적 표현자이며 세포 사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노는 세포 구성 부분인 것만큼 오늘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궐기한 조국이 엄중한 정세 하에서 당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이 당원 비당원 군중들에게 주는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된다.

그러므로 각급 당 단체는 세포 핵심—열성자들과의 사업을 가일층 계획성 있게 조직하며 전투적인 사업 과정에서 그들을 양성하며 훈련 교양하여야 할 것이다.

(당 중앙 본부 조직부 김태진)

근로자 一九五〇년 제十三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제十九호

一九五〇년 七월 十일 인쇄
一九五〇년 七월 十五일 발행

「근로자」 제十三호
【정가 三十원】

책임주필 기 석 복
인쇄인 조 훈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발행소 로동신문사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잡지편집국 전화 국장실 二五七六번
편집실 三八〇 一一五번

7--22030

로동신문사